금주의 법구-〈법구경〉
욕망의 숲을 자르고
욕망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라.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3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3월 3일)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코로나19 시대 연등회 '비대면·온라인' 전환

서울 등 전국 봉축행사 어떻게 진행되나

신성민 기자 ·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와 연등회가 비대면 ·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등회는 취소했지만, 올해에는 방역 수칙을 지키며 온라인으로 전환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4월 8일 열린 조계종 원로회의에서 올해 봉축행사와 연등회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봉축 점등식은 4월 28일 오후 7시 서울시청 광장서 열리며, 방역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올해 장엄등은 최근 복원이 완료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재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등회 연등법회는 5월 15일 조계사에서 오후 6시에 봉행되며, 6시 50분부터는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기념식이 진행된다. 연등행렬은 오후 7시 40분부터 조계사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이뤄진다. 행렬코스도 조계사부터 안국동사거리, 공평사거리로 대폭 축소됐다. 이들 행사는 줌, 유튜브, 불교계 방송을 통해 비대면 · 온라인 방식으로 중계된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대규모 연등행렬 어려움
사찰 · 지역 등 특성 맞는
다양한 비대면 방식 추진

참가단체 연등놀이는 5월 15, 16, 19일 중 각 사찰과 단체 상황에 따라 별도로 진행하면 된다.

이에 대해 봉축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규모 행렬 및 집회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대규모 연등행렬은 하지 않는다"면서 "온라인 연등회, 유튜브 문화마당, 희망의 등달기 등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연등회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등회보존위원회, 불교중앙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은 공동으로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 특별전을 4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전시는 총 3부로 진행된다. 제1전시실은 연등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비롯해 연등행렬의 연원과 현대 연등행렬의 구성을 전시하며 제2전시실은 연등회의 역사와 문화 등 제작 과정으로 구성됐다. 제3전시실은 함께하는 연등회로 남녀노소, 내 · 외국인 등 참가자 모두가 하나가 되는 영상과 사진으로 채워진다.

또한 '감동과 역사의 연등회 사진 · 자료 공모전'을 통해 개인 연등회 자료를 함께 향유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이번 특별전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위로하고 올해 축소 진행되는 연등회의 아쉬움을 달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역 봉축행사들도 '비대면'이 강화된다. 부산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불기2565부산연등축제'는 코로나19극복과 국운융창, 부산발전 및 안녕을 발원하는 릴레이기도로 진행된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은 5월 1일~5월 16일 총 16일간 송상현광장 일대에서 '불기2565부산연등축제'를 개최한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봉축연합대회와 연등행렬을 취소하고, 연등축제 기간 동안 매일 오후 6시 송상현광장 특설무대에서 릴레이 약사여래 기도를 봉행한다. 릴레이 기도는 코로나19 극복과 국운융창, 군부 쿠데타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미얀마 평화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불교연합회는 "행사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행사장 내 마스크 착용 및 살균게이트 등으로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부처님의 가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부산지역 전 불교도가 합심해 호국불교 정신을 실천하자"고 당부했다.

울산불교연합회는 5월 7일 태화강 연등축제 특설무대서 점등식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미디어 장엄등에는 코로나 극복 희망메시지와 함께 울산지역 문화재, 지난해 태화강 연등축제 영상이 소개된다.

전북 지역은 4월 17일 전주시 오거리 광장에서의 봉축기원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5월 1일 덕진공원에서 어린이 큰잔치, 5월 15일 전북도청광장에서 연등축제와 행복바라미축제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밖에 각 지역의 합창단이 참가하는 전북연합합창제와 6탄약창 연등제, 전북경찰청 위문법회를 봉행하기로 결의했다. 5월 29일 금산사에서 청소년 모악축제를 마지막으로 봉축행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광주전남지역은 4월 28일 5.18민주광장서 '화엄사4사자3층석탑등' 점등식으로 '2021 빛고을관등회'를 시작한다. 특히 차량을 활용한 연등행렬이 눈길을 끈다. 관등법회는 5월 15일 5.18민주광장서 열리며 운불련 차량과 트럭 20대를 활용한 차량연등행진이 5월 15일 광주 전역에서 펼쳐진다.

유튜브를 통한 행사도 주목할만 하다. 광주불교연합회는 2월부터 영상으로 만나는 전통등강습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3월 율동강습회, 빛고을관등회연희단의 단복 제작과 율동연습 영상 등을 소개하고 있다.



천진불에 '백만원력' 씨앗 심다 조계종 백만원력결집불사 2주년을 앞두고 천진불에게 자비씨앗을 심는 행사가 열렸다. 서울 서남권 포교중심도량인 약사사(주지 범해, 조계종 8대 포교원장)는 4월 4일 어린이 · 청소년법회에서 백만원력 발우저금통을 나누는 행사를 진행했다. 범해 스님은 "발우저금통 전달은 어려서부터 주변을 돌볼 줄 아는 이로 자랄 수 있게 자비심의 씨를 뿌리는 것"이라며 "보시의 공덕이 쌓여 우리 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인물로 자라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소수 인원만 참여했지만 아이들은 저마다 저금통을 들고 용돈을 열심히 모아 보시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 · 사진=노덕현 기자**

조계종 새 원로의원에 성오 스님 선출

원로회의, 4월 8일 만장일치
백만 원력 불사 경과 보고도

조계종 새 원로의원에 前 백양사 주지 성오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세민)는 4월 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66차 회의를 열고 성오 스님을 새 원로의원으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원로의원은 현재 25명이다.

원로의장 세민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애종심으로 회의에 참석한 원로의원 스님들에 대해 감사한다"며 "불교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방역에 앞장서왔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원로 스님들께서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인사말에서 최근 종단 현안인 선암사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과 내장사 대웅전 방화사건에 대한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원행 스님은 "항상 종단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종정 예하와 원로대종사 스님들의 지도 아래 승가 화합과 공동체 정신의 회복을 통해 종단 정체성과 신뢰를 다시 높일 수 있도록 파사현정의 자세로 임하겠다"며 "법체 강건히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를 위한 길에 앞장서 달라"고 청했다.



이날 원로회의는 대종사 · 명사 법계 특별전형의 건과 원로회의 신임회원 선출의 건 등을 주요 안건으로 진행됐다.

대종사 · 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의 건은 중앙종회가 지난 3월 23일 제220회 임시회에서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22명과 명사 법계 특별전형 7명을 후보로 추천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종회가 추천한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자는 성조 스님과 각수 스님, 월성 스님, 법정 스님, 옹산 스님, 법등 스님, 혜창 스님, 법성 스님, 도진 스님, 철형 스님, 효경 스님, 경선 스님, 정여 스님, 지안 스님, 도법 스님, 성오 스님, 진공 스님, 명공 스님, 현고 스님, 무착 스님, 정원 스님, 의정 스님 등이며, 명사 법계 특별전형자는 재희 스님과 운달 스님, 대웅 스님, 일법 스님, 도문 스님, 영운 스님, 보각 스님 등이다.

그러나 이날 원로회의는 특별전형 심의를 차기로 이월하고, 성오 스님의 원로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서만 만장일치 의결했다. 신임 원로의원 성오 스님은 1959년 백양사에서 봉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9년 서옹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2009년 종사 법계를 품수했으며 백양사 주지, 조계종 11 · 12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심향사 주지를 맡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총무원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종무보고를 통해 종단이 진행 중인 주요 불사에 대한 현황을 밝혔다.

현황보고에 따르면 조계종은 현재 백년대계 본부와 종단불사추진위원회 주도로 국내외 10개 불사를 추진 중이다. 이 중 현 집행부의 주요 불사인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건립불사는 2022년 3월 대웅전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시한국불교문화체험관 광제사 건립 불사와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흥제사 건립불사도 2022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는 2024년 6월 준공식 봉행을 목표로 용문사가 기증한 양평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다. 10.27법난 기념관 1 · 2동은 각각 봉은사와 동국대 인근 부지에 추진 중이며 이밖에도 종단은 위례신도시 종교시설 건립, 서울 조계사를 거점으로 한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를 진행 중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등간격 : 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연등승하강 장치기술(신형)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상월결사, 가야산서 걸음마다 불교중흥 발원

해인사 4월 7일 본 · 말사 자비순례

국운융창·불교중흥 초석 발원
흔들림 없는 정진 의지에 경의
봄꽃들 발걸음 장엄 하는 장관
걷기순례 새 문화로 자리 잡아

해인사=하성미 기자 · 성낙두 경남지사장

"걸음 걸음마다 보리심과 자비심이 담겨 온 세상에 펼쳐지길 기원합니다"

한국불교의 중흥을 발원하는 상월선원 만행결사 순례단이 합천 가야산 일대에서 힘차게 발걸음을 옮기며 불교중흥과 국운융창을 발원했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는 4월 7일 해인사 일대에서 본 · 말사 걷기순례 '2021봄 가야산 해인사 자비순례'를 봉행했다.

먼저 대장경 테마파크 대형주차장에서 집결한 대중들은 입재식을 봉행하고 해인사 자비순례 개최 의의를 전달했다.

입재식은 간략하게 진행됐으며 인사말 및 환영사, 발원문 낭독 순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순례인사는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을 대신해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이 전했으며 이어 죽비 전달식이 진행됐다.

죽비는 상월선원 만행결사의 상징이다. 자승 스님은 죽비를 전달하며 불교중흥에 대한 초석이 다져지길 발원하고 결사 정신이 가야산 해인사를 넘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길 기원했다. 자승 스님은 묵언한 채 깨어있음을 상징하듯 죽비를 세 번 친 후 주지 현응 스님에게 전달했다.

주지 현응 스님은 "자비순례는 정법포교와 국난 극복을 기원하는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다. 해인사는 법보종찰이다. 희망의 가야산을 걸음걸음 옮길 때 마다 보리심과 자비심이 담겨 온 세상에 펼쳐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상월선원 자비순례는 한국불교 중흥과 정법 포교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진행됐으며 여러 난관을 무릅쓰고 꾸준히 정진해왔다"며 "사부대중이 흔들림 없이 오늘 이 자리까지 정진해 빛을 발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자승 스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상월선원의 실천과 원력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다. 우리 모두가 묵묵히 나아가야 할 길이겠지만 선뜻 결심하고 실천하기에 쉬운 일이 아니기에 오늘 동참해 주신 사부대중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순례단은 가야산 소리길을 완주하고 해인사에 도착해 해인도와 장경판전 순례 후 대적광전 앞마당에서 행사를 회향했다.

사부대중은 발원문을 낭독하며 "국민들이 편안하여 화합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여 이웃과 함께 화목하며, 한국 불교의 미래가 환하게 밝아지도록 일심으로 정진하겠다"고 발원했다.

사부대중은 발원문을 낭독하며 "사회의 평온과 화합을 환하게 밝히겠다는 사부대중의 서원이 더없이 선명하기에 불은으로 열어 주신 길을 따라 오늘 가야산 해인사 자비순례의 길을 힘차게 걷고자 한다"며 "국민들이 편안하여 화합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여 이웃과 함께 화목하며, 한국 불교의 미래가 환하게 밝아지도록 일심으로 정진하겠다"고 발원했다.

순례는 오전 10시에 출발해 오후 2시까지 총 8km를 종주했다. 스님들은 대가사를 수하고 108염주를 들고 코로나 극복을 염원하는 묵언 걷기로 발걸음을 옮겼다. 발걸음 닿는 곳 마다 제비꽃과 민들레 등 봄꽃들이 장엄했고 고요한 발걸음을 대신해 염불하듯 흥류동 계곡의 맑은 물소리가 울려 퍼졌다.

순례단은 가야산 소리길 입구에서 무릉교, 칠성대, 홍류동 등 소리길을 완주했고 해인사에 도착한 사부대중은 해인도와 장경판전 등을 순례하고 대적광전 앞마당에서 행사를 회향했다. 회향식은 부처님께 순례를 고하는 예불에 이어 기념품 전달 및 기념사진 촬영 등으로 간략하게 진행됐다.

고창 선운사에 이은 두 번째 본 · 말사 상월걷기 순례인 해인사 자비순례에는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초심호계원장 호성 스님, 문화부장 오심 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 윤성이 동국대 서울캠퍼스 총장, 이영경 경주캠퍼스 총장, 채석래 의료원장, 중앙신도회 주윤식 회장,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원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한편, 해인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하고 거리두기, 손소독, 발열 확인 등 예방을 최우선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동참 사부대중은 순례기간 동안 묵언하며 마스크 착용, 손세정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다.

다양한 갈등상황, 화쟁으로 어떻게 풀까?

화쟁위, '화쟁조정 매뉴얼' 발간

스님들이 직면하는 여러 갈등 상황에서 화쟁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안내서가 나왔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호성)는 최근 화쟁안내서 '화쟁바라밀_화쟁법사를 위한 조정 매뉴얼'(이하 화쟁바라밀)을 발간했다. 화쟁위는 이를 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교육의 교재로 활용할 뿐 아니라 다양한 종단 안팎의 갈등에서 화쟁 방안을 제시하는 토대로 삼을 예정이다.

'화쟁바라밀'은 화쟁위가 지난해 발간한 청소년용 화쟁 교재 '하이, 화쟁'에 이어 일반용으로 펴낸 화쟁안내서다. 동시에 지난 2015년 제작한 '화쟁和諍, 인류의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몸짓'의 후속판이다.

화쟁위는 "'화쟁和諍, 인류의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몸짓'이 '화쟁사상'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한 최초의 실험이었다면 '화쟁바라밀'은 변화된 조건을 반영하고 '화쟁'의 원리와 원칙에 더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화쟁바라밀'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화쟁이란? △화쟁의 눈으로 보는 세상 △화쟁적 갈등해결 5단계 △'화쟁법사'가 조정하는 화쟁 △'화쟁법사' 실습 4제 △화쟁법사의 대화법이다.



'화쟁바라밀'은 화쟁 이론서를 넘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화쟁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실제 존재하는 다양한 종단 내 갈등에 기반해 화쟁 방안을 제시한 것인만큼, 스님이 현장에서 겪는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승려복지회,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5월 1일~31일 신청자 접수

조계종이 2021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스님에게 보험료를 지원한다.

승려복지회(회장 금곡)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1인당 매월 3만 6000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며, 기존에 보험료를 지원 받은 스님은 매년 3월 보험료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지원이 연장된다.

신청대상은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 중 국민연금(지역가입)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 중인 스님이다. 신규로 가입한 스님과 기존에 가입한 스님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스님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승려복지 코너 공지사항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재적교구 본사로 접수하면 된다.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주민등록증,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각 교구본사에서 승려복지회로 이관된 신청서류는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승려복지회 관계자는 "국민연금보험료 가입 대상인 만 18~55세의 스님 7000여 명을 보험료 지원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더 많은 스님들이 종단의 보험료 지원 혜택과 사회보험제도를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2)2011-1726~27

송지희 기자

"전통사찰 종부세 부과 철회" 촉구

조계종, 4월 8일 입장문 발표

지난해 정부가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전통사찰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 것과 관련, 조계종이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우리민족 공공의 문화자원이자 유산인 전통사찰의 유지 및 보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조계종은 4월 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가의 조세제도가 마련되기 이전부터 수백 년 간 계승되어온 전통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국가 법률에 의하여 지정 및 보존 · 관리되고 있는 전통사찰이 갖는 공공성을 정부당국이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국가 법률에 의해 지정되어 보존 · 관리되는 전통사찰은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조차 정부의 승인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통사찰의 공공성을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에, 전통사찰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행위는 전통문화에 대한 몰이해 내지 편견에서 나오는 반문화적,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라는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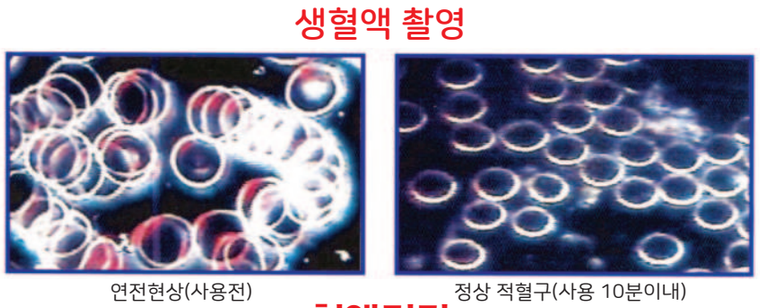
조계종은 특히 "대다수 전통사찰들이 신도들의 시주에 의존하는 사찰의 한정적 재정구조를 고려하면 추가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게 되고, 그 결과 많은 전통사찰들이 부동산을 매각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됨으로써 심각한 존폐의 위기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계종은 "전통사찰 소유 부동산을 투기의 일부로 간주함으로써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정부당국의 저급한 인식을 통렬히 규탄한다"며 △전통사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정책 즉각 철회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 11호의 단서조항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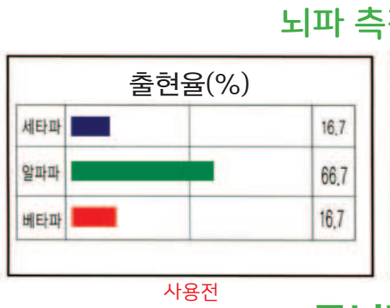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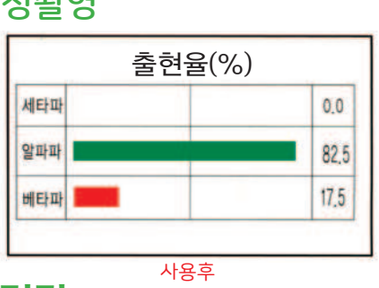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혈액건강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두뇌건강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 6개월 후

세포건강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혈관이 깨끗해진다면, 차가웠던 손 발이 따뜻해지며, 면역력 증강과 각종 혈관 질환 예방 및 각종 두통이 사라지며 탈모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비누거품을 코 속에 넣고 마사지 해주면 감기예방하고 코막힘, 비염, 축농증 예방 및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균 폐렴균 · 대장균 ·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에 의한 모든 폐렴질환을 예방할 것이며 대장균 99.9% 정균감소는 식중독,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아토피, 검버섯, 무좀,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증, 발뒤꿈치 각질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120g 2개 100,000원
BLOOD MATE® 순비누:120g 4개 100,000원
ORAL MATE® 치 약:120g 3개 63,000원
26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세상에 이런 세정제를 보셨습니까?

㈜에이스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삼강

지자체 주도 성지화 부작용…역사·불교 퇴색

도 넘는 가톨릭 성지화에 우려 확산

가톨릭 성지 잇는 순례길 사업
경기도 광주 비롯해 전국 확산
지역역사·불교문화 퇴색 심각
"과도한 성지화, 갈등요인"지적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가톨릭 성지화가 도를 넘고 있다는 우려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00년대 초부터 가톨릭 교구가 조성한 성지들을 중심으로 순교기념관이나 역사공원 조성 등을 넘어, 최근 성지와 성지를 연결하는 순례길 개발까지 '지역 성지화'가 다양한 형태로 진행 중인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성지화가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등을 명목으로 국비와 지자체 예산이 투입될 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내재된 기존 역사와 종교문화를 퇴색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톨릭 덮어씌우기'라는 우려가 높다.

경기도 광주시는 최근 가톨릭 순교지와 발상지를 잇는 '한국형 산티아고 순례길' 조성계획을 밝혔다. 이 중 순교성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가톨릭 발상지는 천진암터다. 광주시는 2021년까지 두 성지를 잇는 32km의 순례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공식 명칭은 '역사문화관광벨트'이지만, 사실상 가톨릭 성지 두 곳을 잇는 순례길이라는 점에서 남한산성에 담긴 역사와 불교암자로서 천진암의 정체성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천진암터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과거 사찰이 자리했던 곳이다. 조선시대 스님들이 박해를 피해 찾아온 가톨릭 신자들을 보호했던 암자로, 가톨릭 신자들이 이곳에서 박해를 피해 강학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천진암이 한국 가톨릭의 발상지로 불리게 된 근간에 천진암 스님들의 자비가 스며있는 셈이다. 나라의 명을 거역한 채 가톨릭 신자들을 숨겨준 대가로 천진암은 불타고 스님들이 희생됐지만, 가톨릭 성지가 된 천진암에 이 같은 역사는 찾아볼 수 없다. '가톨릭 역사 덮어씌우기'에 지자체가 나서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는 서소문역사공원이다. 서소문역사공원은 지난 2014년 건립 당시부터 특정 종교가 국유지를 점유해 성지화 사업에 나선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공원 조성부지 가운데 94%에 달하는 1만7000㎡가 국유지이고 가톨릭 소유지는 전무한 상황에서, 가톨릭 박해 역사공원과 순교자 추모관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지난 3월 24일 천주교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사진 오른쪽)를 만나 '남한산성~천진암 순례길' 조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제공=광주시청

특히 서소문터는 가톨릭 신자들의 순교지이기에 앞서, 조선시대 국가적인 통치행위가 이뤄진 역사적 공간이자 동학농민운동 당시 처형된 수가 훨씬 많다는 점에서 반발이 컸다. 역사적 사실보다 순교 성지로서의 의미를 필요이상으로 강조하는 것은 특정 종교에 치우쳐 역사를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숱한 논란 끝에 2019년 문을 연 서소문역사공원은 현재 '서소문성지'의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한 순례길 조성도 진행 중이다.

서산시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한 해미천주교순례길도 비슷한 사례다. 순례길 조성은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을 기점으로 추진됐으며, 애초 일부 코스에 전통사찰 천장사도 포함돼 있었지만 조성과정에서 천장사로 향하던 10km 길이 사라져 불교계 반발을 산 바 있다. 또 불교계는 "해미읍성은 동서남북에 미륵불을 세워 나라를 보호했던 불교성지이기도 하다"며 "지자체 주도로 진행되는 '종교 덮어씌우기'는 종교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 서산시 순례길은 '해미천주교순례길'로 불리며 정비를 마쳤고, 해미읍성은 최근 '해미순교성지'라는 명칭으로 가톨릭 국제성지로 지정됐다.

최근 들어 기존 조성된 가톨릭 성지들을 잇는 순례길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당진시는 최근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인 솔뫼성지와 충남지역 첫 본당인 합덕성당 등 당진시에 산재한 성지와 명소를 잇는 '버그내순례길' 조성에 나섰으며 용인시는 도비 1억원을 투입해 김대건 신부와 은이성지와 미리내성지를 잇는 '청년 김대건 순례길'을 조성 중이다.

용인시는 지난해 안성·당진시와 '천주교 문화광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천주교 역사체험관 및 순례길'을 조성 중이다. 특히 제주도 순례길은 김대건 신부의 길, 하논성당길, 정난주마리아의 길 등 제주지역 내 성당과 성지를 잇는 형태로 조성됐으며 6곳에 달한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각 지자체들이 기존 조성된 가톨릭 성지들을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관광·문화 활성화를 명분삼아 다른 전통유적과 사적들을 배제하거나 구색 맞추기 식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지난 2019년 비공개로 발간한 '종교계 성지화 사업,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법' 보고서에 따르면 성지로 인한 갈등 요인은 △같은 공간 내 서로 다른 종교적 기억의 갈등 △같은 공간 내 종교적 기억과 역사적 기억의 갈등 △특정공간에 깃든 종교적 기억의 무시와 삭제 △성지의 선점과 기억의 약탈·복원 등으로 분류된다. 현재 완공됐거나 추진 중인 성지화 사업들이 지역 내 역사유적과 전통종교를 배제한 채 특정 종교만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진행된다면 결과적으로 종교갈등의 잠재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은 "역사가 길지 않는 가톨릭 특성상 성지의 대부분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순교지나 선교장소, 성당 등 신앙적 공간이기에, 종교를 넘어서 역사·문화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있다"며 "때문에 지자체가 지역관광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한 명분으로 앞장서서 기념관 건립과 순례길 조성 등 성지화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다른 종교인들을 배제하거나 지역 고유의 역사를 퇴색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얀마 민주화 희생자 추모·국내 유학생 지원 봇물

4월 4일 구미서 추모법회
자비명상, 유학생과 결연
국제 사회에 대응 촉구도

군부 쿠데타로 촉발된 미얀마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군부에 의한 폭력적 탄압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외치는 미얀마 국민들을 지지하기 위한 국내 움직임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미얀마 민주화지지를 위한 모금활동은 물론, 한국 내 미얀마 유학생들을 위한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자비명상·현성정사(대표 마가)는 4월 8일 한국에 있는 미얀마 유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결연식을 진행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여파로 본국과 통신이 단절되고 금융거래가 중단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들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주최측은 "사단법인 자비명상 소속 300여 사찰이 미얀마 유학생이 처한 어려움을 돕고자 뜻을 모았다"며 "재한미얀마유학생과 결연을 맺어 마음의 위로와 안정을 찾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멘토 역할로 자처했다. 결연을 계기로 미얀마유학생들에게는 사찰 스님들과 상담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아 일상의 삶으로 찾아가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홍법사가 봉행한 '미얀마 평화기원 법회'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도 4월 7일 개최된 교구종회에 앞서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날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과 진성 스님, 교구종회의장 법전 스님을 비롯한 교구종회의원 스님들은 △군부 쿠데타를 반대한다. △구금된 모든 사람을 석방하라 △미얀마 국민의 뜻대로 해주세요를 외치며 미얀마 국민들이 원하는 평화적 자유 의사를 지지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은 (사)나누우리와 함께 세손가락 경례뱃지를 구입해 불자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통해 모금되는 성금은 미얀마에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4월 3일 대광명전에서 '미얀마의 안정과 평화를 기원하는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석은 4월 1일부터 진행된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를 개인의 안녕과 평화보다는 미얀마를 위한 기도시간으로 특별회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회향식에서 불자들은 미얀마의 상황을 알리는 영상을 함께 시청했으며 연꽃등을 밝히고 미얀마에 평화가 오기를 기원했다.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은 4월 4일 구미 외국인주민센터에서 '미얀마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승가결사체 마하보현승가회(회장 덕신), 미얀마 대구 찟따수타 사원(대표 위쑤따)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추모법회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민간인 학살 쿠데타를 반대하는 마음을 모으는 법석으로 마련됐다.

이에 앞서 종교시민사회단체들도 미얀마 군부에 의해 자행되는 학살을 중단하기 위한 국제사회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와 지리산종교연대, 우리신학연구소, 3.1종교개혁연대.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등은 4월 2일 긴급 서명 제안문을 발표하고 미얀마 군부의 학살 중단을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지희·하성미 기자·조동제 지사장

4.3사건 73주년 희생자 추모재 봉행

조계종 사회노동위, 4월 3일
4월 23~25일 제주서 천도재



제주 4.3사건으로 희생당한 이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추모재가 봉행됐다.〈사진〉 추모재는 지난 2월 제주4.3 피해자들의 희생자 명예회복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전면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는 4월 3일 서울 서대문형무소공원에서 '제주 4.3사건 73주년 희생자 추모재'를 봉행했다. 추모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동환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됐다. 4.3사건은 불교계에도 큰 상처를 남겼다. 관음사를 비롯해 40여 개 사찰이 소실됐고 스님 10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은 "21년만에 특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한층 더 명확하고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게 됐다"며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지만, 3만여 명의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8만여 유가족들이 마음의 짐을 벗을 수 있길 기도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제주 4.3사건이 과거의 뼈아픈 고통이 아닌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상징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노동위원회는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 서관음사지와 용장사지, 원천사지, 극락사지, 귀이사지 등 4.3사건 당시 피해 현장을 순례하며 천도재를 봉행할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쌍계사는 성덕왕23년(724)삼법과 대비 화상 개산. 문성왕2년(840)진감혜소선사 창건

쌍계사 보살계 안내

● **일시** : 음 3월 5~7일까지 3일간 ＊**입재** : **5일 오후 2시** ＊**회향** : **7일 새벽 4시**
＊**선다회총회** : **5일 저녁 7시** ＊**대장경정대불사** : **7일 오전 8시**
● **장소** : 금강계단(팔영루=진감선사께서 불교음악인 범패 어산을 창제하신 곳)
● **문의** : 종무소 **Tel. 055-883-1901**



한국불교는 쌍계사에서 시작된 해동계맥과 청나라에서 전래된 중국계맥등 양대계맥이 존재하는데
이 양대 계맥이 모두 동산율사 석암율사 고산율사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쌍계사는 계율의 근본도량이요 율찰대본산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유구한 역사를 가진 계율의 근본도량에서 보살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모든 분들은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한 복과 지혜를 닦고 생사해탈의 법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계율은 부처님께서 모든 생활규범을 제정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계를 받는다는 것은 진정한 불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자 부처님과의 맹세입니다. 즉, 우리 사회의 도덕입니다.

※ 쌍계사는 해인사 다음으로 많은 경판을 봉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념하고 지혜를 증장시키는 대장경정대불사
(육조단경인경본)도 함께 봉행합니다.

※ 선원제전집도서 보물2111호 22판.
원돈성불론·간화결의론 합각 보물 제2112호 11판.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보물 제2113호 335판.
그 외 지방유형문화재 185호 1376판.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禪)·교(敎)·율(律) 차(茶)와 범패(梵唄)의 근본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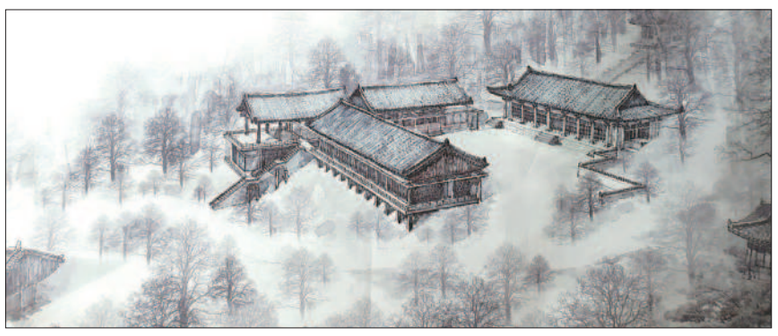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쌍계총림 三神山雙磎寺

청화 스님 탄신 100년 성역화 사업 본격화

청화대종사성역화추진위, 4월 5일 혜운사서 발표

무안 혜운사 일대 2천여 평
총 예산 53억 원 배정 되어
청화 기념관과 명상관 건립
수행 프로그램 진행될 예정




청화대종사성역화사업 조감도. 기념관과 명상관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국 불교계의 큰 스승이었던 청화 스님(1924~2003 · 사진)의 수행처 성역화가 본격화 된다. 청화대종사성역화기념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혜용, 박문재)는 4월 5일 무안 혜운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화스님 성역화 불사를 위해 올 8월 기념관 등을 착공해 1년 간 불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무안 혜운사 주지 정수 스님, 부안 실상사 주지 지안 스님을 비롯한 문도 스님들과 청화대종사성역화추진위원, 이혜자 전남도의원, 무안군청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청화대종사성역화사업은 무안 혜운사 일대 2000여 평 대지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한 5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성역화 공간으로 청화대종사기념관, 명상관, 종각, 숙박시설, 사무실 등이 건립된다.

이번에 청화대종사성역화사업이 진행되는 무안 혜운사는 청화 스님의 탄생지로 1952년 망운중학교 설립과 함께 창건된 사찰이다.

추진위 공동위원장 혜용 스님은 "이 시대 선지식 중 수행, 청빈, 교학 등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신 청화 스님을 선양하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불사를 위한 준비기간을 가졌다. 지역의 정 · 관계와 불자들의 관심, 지원 덕분에 착공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인근 신안군과 연계해 불교체험과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화대종사성역화사업 중 가장 중요한 시설은 전통목조형식의 청화대종사기념관이다. 기념관은 전체 90평 규모로 청화 스님의 유묵, 유품 등이 전시되며, 생전 법문 영상 등을 정리한 영상실도 들어선다. 특히 전국에 있는 청화스님 문도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품 10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불교문화체험공간인 명상관은 40평 규모로 마음공부를 원하는 누구나 찾아 정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청화 스님이 밝힌 염불선을 비롯해 간경, 참선, 주력 등 다양한 불교 수행법을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이번 청화대종사성역화사업의 불사의 회향은 2023년 청화 스님 탄신 100주기를 맞아 이뤄질 전망이다. 2023년에는 성역화사업 회향과 함께 다양한 학술대회와 문화행사, 수행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청화 스님은 1947년 백양사 운문암에서 금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50여 년 동안 진불암, 사성암, 벽송사, 백장암, 상견성암, 상원암, 남미륵암, 칠장사 등에서 일종식(一種食)과 장좌불와(長坐不臥)로 지계, 수행 정진했다. 스님은 1985년 전남 곡성 태안사를 중창 복원했으며, 미주포교를 위해 카맬 삼보사, 팜스피링스 금강선원, 2002년 서울 광륜사, 곡성 성륜사 등을 건립했다. 청화 스님은 조계종 원로의원, 곡성 성륜사 조실을 역임하고 2003년 11월 성륜사 조선당에서 세납 80세, 법납 56세로 원적에 들었다.

청화 스님의 저서로는 스승인 금타 스님의 유고를 정리하여 편저한 〈금강심론〉을 비롯해 법어집 〈전통선의 향훈〉 〈원통불법의 요체〉 〈마음의 고향〉 〈가장 행복한 공부〉 등이 있으며, 역서 〈정토삼부경〉 〈약사경〉 〈육조단경〉등이 있다.

파라미타 24회 전국청소년사경전 개최

5월 14일까지
10일 이상 사경작 제출 가능

불교계 청소년단체인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제24회 전국 청소년 사경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경전 글자 하나하나를 옮겨 적는 사경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돕는 자리로 전국 초중고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방법은 제시된 경구를 1일에 1회씩 10일 이상 사경한 노트를 5월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시된 사경 시안을 사경해 원본을 제출해도 되며, 제시된 경구를 이용한 자유표현 작품도 출품 가능하다.

사경작품 심사는 정신성, 예술성, 창작성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특별대상인 종정상을 비롯해 특별상인 봉축위원장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포교원장상, 동국대학교 총장상 등이 수여된다.

수상자는 6월 14일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02)723-6165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인덕원삼천사복지재단, 전문복지 강화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서 4월 1일 명칭변경 및 임원 취임

초대 이사장에 성운 스님 추대
전문케어, 지역복지 강화 박차



불교계 사회복지의 선구적 역할을 해온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이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삼천사복지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초대 이사장으로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사진〉을 추대했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삼천사복지재단(이사장 성운 스님)은 4월 1일 기존 대표이사 중심 체제서, 이사장 ·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고, 법인 명칭을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삼천사복지재단' 으로 변경했다.

이에 앞서 인덕원삼천사복지재단은 3월 31일 임원취임식을 열고 초대이사장으로 성운 스님, 명예이사장으로 도광 스님을 추대하고, 초대 대표이사로 강순옥 대표, 상임이사로 김수년 이사, 법인 이사로 김승자 이사를 새로 선임했다.

이와 함께 재단의 전문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복지행정 전문가인 이우진 법인사무국장을 임명했다.

인덕원삼천사복지재단은 체제 변화를 통해 조직 안정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보화시대에 부흥하는 전문 사회복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초대 이사장으로 추대된 이사장 성운 스님은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4차 산업과 정보화 시대에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인덕원삼천사복지재단' 으로 거듭 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복지기관들의 네트워크를 위해 3월 26일 구성된 서울시 사회복지법인연합회 창립총회서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이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노덕현 기자

모바일 · E북으로 만나는 성철 스님

백련재단 홈페이지 리뉴얼
모바일 버전 새로 구축 해
향후 인쇄 매체 점진 중단



새롭게 리뉴얼된 백련불교문화재단의 성철 스님 홈페이지 모바일 버전(사진 왼쪽)과 월간 〈고경〉 E-Book 페이지(사진 오른쪽) 모습.

성철 스님의 사상과 수행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단체인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의 홈페이지가 새롭게 리뉴얼 됐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은 "홈페이지 모바일 버전을 새로 구축하고 월간 〈고경〉과 〈퇴옹학보〉의 E-Book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4월 5일 밝혔다.

지난해 확대 개편된 백련불교문화재단의 홈페이지는 성철 스님의 법문과 동영상 법문, 성철사상연구원의 학술활동과 학술논문, 도서출판 장경각의 불서, 월간 〈고경〉의 콘텐츠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은 " '모바일 퍼스트' 라는 시대 추세에 맞춰 성철 스님의 법문과 〈고경〉 게재 기사 등을 핸드폰으로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했다"면서 "월간 〈고경〉, 계간 〈고경〉, 성철사상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퇴옹학보〉의 모든 콘텐츠들을 E-Book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경〉, 〈퇴옹학보〉의 특정 호수나 기사를 카카오톡이나 SNS 등으로 손 쉽게 링크 · 공유할 수 있고 E-Book 내 키워드 검색도 가능한 점은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이다.

향후 백련불교문화재단은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인쇄매체로 발간하는 월간 〈고경〉과 학술지 〈퇴옹학보〉 등을 모두 E-Book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백련불교문화재단은 오는 4월 24일 부산 고심정사에서 '퇴옹성철 스님의 불교관 연구2' 라는 주제로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연찬회에서는 강경구 동의대 교수의 '〈선문정로〉다시 읽기:성철선의 이해와 실천' 제하의 기조발제 등이 진행된다.

이번 학술연찬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발표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 발표된 논문들은 6월 30일자로 발간되는 〈퇴옹학보〉 제18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바라밀천일기도 불광사서 3차 회향

잠실 불광사(주지 진효)는 4월 1일 불광사 대웅전에서 '보현행자 바라밀천일기도' 3차 회향기도를 진행했다.

이날 기도 시작에 앞서서는 불광사 한주 혜성 스님과 주지 진효 스님이 천일기도 동참대중들을 대표해 보현행자 바라밀 천일기도 기도집을 광덕 스님 진영에 봉정했다.

이번에 펴낸 기도집에는 1968년 광덕 스님이 〈보현행원품〉을 한글화하여 출간할 당시 성철 스님이 내려준 '보현행원품 序' 전문도 실렸다.

주지 진효 스님은 인사말에서 "불교를 이론이나 철학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보현행원은 구체적인 실천행을 담은 것이다"며 "보현행원을 전해주신 광덕 스님의 공덕을 다시금 새겨보게 된다"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身 心 休
몸·마음·쉼
자살예방 프로그램 공모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생명존중·자살예방 '몸·마음·쉼' 사업의 일환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공모를 실시합니다.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 시 수상금 및 특전을 드리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공모기간 2021년 4월 26일 부터 ——— 5월 25일 까지

공모주제
명상을 활용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 프로그램 시행대상 : 유가족, 자살시도자, 자살고위험군

대 상
명상지도사, 자살예방 강사 및 교육생, 자살예방에 관심이 있는 개인 및 단체

제출서류
- 공모참가신청서 / 프로그램 설명서 / 프로그램 워크북
  - 불교상담개발원 홈페이지(www.kbcd.org) '2021 문체부 자살예방프로그램 공모'에서 다운받아 사용
  - 프로그램 설명서 및 워크북은 제본(5부)하여 우편으로 발송
- 사전사후 효과성 검증을 위한 측정도구 반드시 제출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발송과 이메일 발송 모두 제출
- 제본물 발송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운사길59, 1층. 불교상담개발원 공모 담당자
- 메일주소 - jabi7378@naver.com

우수 프로그램 선정 및 수상

구 분	수상금	선 정
최우수상	1,000,000원	2개

선정발표
2021년 5월 28일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연락

선정 프로그램 특전
-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홍보 및 전문가의 자문, 강사비 등 운영비 지원
- (몸·마음·쉼 자살예방 명상프로그램) 워크북 제작 및 배포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과 공동 사업 전개

문의처
불교상담개발원 02-737-7378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해상 조난 · 표류도 불교 교류 루트였죠”

‘불교의 바닷길’ 기획한
윤리나 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대전=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기원전 6세기 석가모니 부처님이 창시한 불교는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거쳐 한반도로 전래된다. 전래된 시기는 삼국시대로 고구려가 가장 먼저 불교를 받아들였다. 사료에 따르면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년)에 전진왕 부견이 순도를 시켜 불상과 불경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 한반도 불교의 시작이고, 교과서에 수록된 공식적인 역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사상과 문물은 육로를 통해서만 교류 · 전래되지 않았다. 도리어 해상을 통한 전래가 더 빈번했다. 그럼에도 해상 불교 전래와 교류에 대해서는 평가가 인색하다. 이같은 해상 불교 전래 · 교류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기획전시 ‘불교의 바닷길’이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지난 3월 1일까지 진행됐다.

국립해양박물관은 그간 등대, 항해도, 선박 등을 다루는 전시는 해왔지만, 불교 해상 교류사를 주제로 기획전시를 연 것은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 전시를 책임지고 이끈 실무자가 윤리나 학예연구실장이다.

4월 2일 대전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전시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여운이 남은 듯 했다. 전시 성과에 대해 묻자 곧바로 “상상 이상”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에서 전시회를 오픈했어요. 단계 조정에 따라 시간당 150명이나 200명 정도만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안되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하루 6차례 관람객을 받는데, 거의 매 시간이 매진이었어요. 주말에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운영 변화를 인지 못한 부산시민들이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관람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국립해양박물관 전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관객들의 호응이 있었던 것은 여지껏 국립해양박물관에서 다루지 않았던 ‘불교’를 해양과 접목시켜서다. 기획전에서는 바다를 통한 불교의 문화 교류를 총 76건, 119점의 자료를 토대로 3부로 나눠 보여줬다. 윤 학예연구실장도 “해양 불교만을 주제로 다뤘다는 점, 바다를 매개로 불교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시의 의미가 특별하다”고 자평하며 “외부에서도 해상을 통한 불교문화 교류를 단독 주제로 이 정도 수준으로 풀어낸 전시는 처음이라며 다들 높게 평가해주셨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를 통해 새롭게 조명된 역사에 대해서는 해상 조난 · 표류를 통해 이뤄진 불교 교류사를 꼽았다. 전시회의 3부 ‘불교, 바다를 향한 간절함’에 소개된 것이다. 관련 성보문화재로는 불갑사의 1706년 조성된 나한상과 복장물인 〈가흥대장경〉 등이 있다.

윤 학예연구실장에 따르면 〈가흥대장경〉은 중국 명나라 말기부터 100년간 절강성을 중심으로 발행됐던 최초의 방책본 대장경으로, 국가 주도로 조성된 대장경과는 달리 판매와 보급을 위해 만들어졌다. 1681년(숙종 7년)에 전남 임자도 앞바다에서 중국 무역선이 난파돼 〈가흥대장경〉이 대량 유입됐고, 백암 성총 스님에 의해 목판으로 판각되면서 조선 후기 불교 사학과 인쇄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일본으로 수출돼 〈황벽대장경〉으로 복각되기도 했다.

송광사성보박물관 소장 〈일본표해록〉과 대흥사 천불상도 표류와 조난의 교류사의 흔적이 있는 성보문화재다.

〈일본표해록〉은 1821년 화순 쌍봉사의 화승 풍계 현정 스님이 저술한 것을 1882년 석곡 스님이 필사한 것이다. 저자인 현정 스님은 해남 대흥사 완호 윤우 스님의 요청으로 1817년 경주 불석산에서 천불을 조성했다. 이를 완도 상선과 흥원 상선에 각각 실어 대흥사로 향해하던 중 부산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다. 완도 상선은 무사히 대흥사에 도착했지만, 현정 스님이 탔던 흥원 상선은 일본 사이카이도(西海道)에 표착했다. 선법(船法)에 따라 현정 스님 일행은 본도인 나가사키(長碕島)에 송환돼 7개월 동안 일본에서 머물렀다. 당시 현정 스님은 일본에 머물면서 일본불교와 일반인들의 생활 방식, 표류인 송환체계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다.

전시된 대흥사 천불상은 표류로 인해 일본으로 갔다가 돌아온 불상들이다. 이들 불상의 어깨에는 ‘날 일(日)’ 자가 표시돼 있는데 2011년 발견된 다산 정약용이 완호 윤우 스님에게 보낸 서찰에서 “반드시 부처의 등에다가 작은 전자로 ‘日’을 써서 표시로 삼아 일본으로부터 온 것임을 적은 뒤에야 서로 뒤섞이는 탄식이 없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확인되면서 그 연유를 알게 됐다.

올해 3월 1일까지 진행된
‘불교의 바닷길’ 기획전시
코로나19서도 연일 ‘성황’

불교 교류 다양성 확인해
나한상서 나온 기흥대장경
표류해온 商船서 흘러들어
스님 저술 일본표해록 ‘눈길’

해양박물관서 이례적 전시
여러 난관들 佛心으로 극복
“원학 · 만당 스님께 감사해”

“대흥사 천불상은 관람객들에게도 정말 인기가 좋았어요. 천불상은 원래 금란가사를 입지는 않는데, 전시를 위해서 특별하게 제작했죠. 무엇보다 이같은 일련의 문화재들은 해양을 통해 교류가 무역이나 이동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조난 · 표류와 같은 재난을 통해서도 이뤄져 왔음을 알게 하죠. 중국 무역선을 통해 한반도에 들어온 〈가흥대장경〉이 당시 조선 불교와 인쇄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은 사뭇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윤 학예연구실장은 전시 마무리 부분에도 역점을 뒀다. 전시의 마지막은 목어와 연꽃으로 장엄했다. 또한 해인사 팔만대장경판 중 하나로 바다가 가진 8개 공덕에 대해 부처님이 설한 〈불설해팔덕경(佛說海八德經)〉의 내용을 공유했다. 바다의 8개 공덕이 우리 인생사와 닮아서다.

“관음보살이 거주하는 보타낙가산은 ‘꽃과 나무로 가득한 작은 산’이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 ‘포탈라카’입니다. 심청이 임당수에서 피어난 것도 연꽃으로의 환생이었습니다. ‘더러운 곳에 머물더라도 항상 깨끗함을 잃지 않는다’는 ‘처염상정(處染常淨)’의 의미를 되새기며 관람객들이 연말연시를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전시를 목어와 연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코로나19 시기에 연꽃으로 아름답게 승화했으면 하는 기원도 있었어요.”

윤 학예연구실장이 이렇게 ‘불교의 바닷길’ 기획전시회에 매달린 것은 ‘불교의 해상 교류를 대중에 알리겠다’는 부처님과의 약속 때문이었다.

사실 윤 학예연구실장은 늦게 불교를 접했다. 본래 그의 집안은 가톨릭 신도로, 본인도 유아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2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종교적인 감동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고, 시간이 흘러 40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불교를 만나게 됐다.

“제가 마흔 되는 해에 수원에서 살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용주사에게 가게 됐는데, 사찰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다음 날도 사찰을 찾았는데 사찰이 가지고 있는 색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다가 다시 대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때 불교를 한번 공부하자는 생각이 들었고,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태전사에 가서 기초교리 강의를 신청해서 수강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윤 학예연구실장이 대견했는지 당시 태전사 주지 스님은 자신이 오래 간직했던 법명인 ‘진여심(眞如心)’을 속리산 법주사에서 내려줬다.

“불자가 되기는 했지만, 불교는 아직도 잘 몰라요. 그냥 사찰에 가는 것 좋아하고, 절하는 것 좋아하는 평범한 불자예요.”

본인은 평범하다고 했지만, 마애불에 대한 암석적 특징과 화학적 풍화를 연구해 이학박사가 된 과학자를 평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같은 연구로 그는 서울 화계사 마애석불 조성 당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실장으로 활동하며, 불교와 해양사를 연계한 전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의 발원과는 달리 전시는 준비부터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코로나19라는 외부 상황뿐만 아니라 불교 전시를 해본 적이 없었던 해양박물관으로서도 새로운 시도여서 내부적 반발도 있었다. 불교 문화재를 대여해오는 작업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극한 마음은 통하는 법이다. 前 해인사 성보박물관장 원학 스님을 찾아가 설득하고, 다시 해인사 임회에서 전시 설명을 해서 해인사 소장 성보문화재를 대여할 수 있었다. 또한, 불갑사 주지 만당 스님을 찾아가서 나한상과 〈가흥대장경〉 복장물들도 협조를 받았다.

“원학 스님은 개막하고 나서 직접 박물관을 찾아서 전시회를 꼼꼼하게 관람하셨어요. 2시간 30분을 관람했는데, 좋은 전시라고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격려 한 마디에 그간의 힘들었던 일들이 한 번에 사라지더군요. 문화재 대여와 많은 도움을 주신 원학 스님과 만당 스님, 그리고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 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윤 학예연구실장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불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양 교류사가 조명되는 전시가 열렸으면 한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이번 ‘불교의 바닷길’ 전시를 시작할 때, 목어를 두드리는 초발심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의상 스님의 바닷길이 보타낙가산에서 한국 관음신앙의 유산으로 이어졌듯이, 이번 ‘불교의 바닷길’ 전시가 불교 해양 교류사 탐구와 전시의 새로운 길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는 표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이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것이죠.”

〈불설해팔덕경〉에서 부처님이 설한 바다의 8번째 공덕은 “바닷물은 그 짠맛이 주변이나 가운데나 두루 한결같다”는 것이다. 그 ‘한결 같음’으로 바다는 인간과 자연의 역사를 품었다. 그 역사 안에는 불교의 시간도 존재한다. 자연 환경과 불교에 대해 천착했던 윤 학예연구실장이 한결같음이 ‘불교의 바닷길’이라는 새로운 관점의 전시가 있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그의 다음 전시와 연구가 기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윤리나 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이화여대 과학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지질과학과에서 이학석사를 받았다. 부경대 지구환경과학과에서 ‘마애석불의 화강암질 모암에 대한 암석학적 특징과 화학적 풍화 연구’로 이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문화재청 전시큐레이터를 지냈으며, 현재는 국립해양박물관에서 학술연구, 유물구입, 전시기획과 운영 등 학예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과학관 및 박물관 운영 관련 자문, 평가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서울 화계사 석불 조성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대흥사 천불상. 이운 중 배가 표류해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다. 등 부위에 ‘日’이 전자로 그려져 있다.



풍계 현정의 〈일본표해록〉 표지. 천불상을 이운하던 중 표류해 일본으로 간 뒤, 기록한 표류기다.



불갑사 나한상 복장물인 가흥대장경. 중국 상선이 표류해 왔다가 유출된 것을 백암 성총 스님이 목각으로 판각하며 보급했다.

코로나 이긴 149명 부루나존자 탄생

여래선원 여여불교대학 4월4일 첫 졸업식 거행

2020년 개원 후 첫 성과
코로나로 인한 이탈에도
도심포교도량 모범 역할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여래선원 여여불교대학은 4월 4일 여래선원 법당에서 '여여불교대학 제1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여래선원 여여불교대학이 첫 졸업식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졸업생 149명을 배출했다. 여래선원 여여불교대학(학장 효산, 이하 여여불교대학)은 4월 4일 여래선원 법당에서 '여여불교대학 제1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졸업식에는 회주 정여 스님, 학장 효산 스님을 비롯해 방수정 선정차문화원장 등 100여 명이 동참했다.

졸업식은 발원문 낭독, 학사보고와 법문, 졸업증 수여, 상장 수여, 꽃다발 증정,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회주 정여 스님은 법어를 통해 "코로나19로 혼탁한 말법 시대에 좋은 성과를 보여준 스님들과 불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위대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전법도량으로 여래선원이 더욱 발전해 나가자"고 격려했다.

학장 효산 스님은 "2020년 선원 개원 후 수행과 포교 원력을 중심으로 노력했다"며 "정법을 향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만든 결과"라고 감사를 전했다.

방수정 선정차문화원장은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시간이었는지 돌이켜 보며 다시 감사를 드린다"며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해 함께 하는 도반과의 여정은 행복했다"고 말했다.

여여불교대학은 올해 첫 졸업생으로 149명을 배출했다. 여여불교대학은 코로나 발생 전 수강등록인원이 349명에 달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모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여여불교대학의 성공요인은 '폭 넓고 신선한 프로그램'과 '접근성', '편안한 도량' 등이 꼽힌다. 여래선원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심도 깊은 불교경전 강의뿐만 아니라 경주 남산 탐사, 출가학교, 불교인문학 등 다양한 세대가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코로나로 인해 일부 프로그램이 취소되기도 했지만 학장 효산 스님의 유튜브 강의 등 온라인 교육을 도입하기도 했다.

효산 스님은 "많은 대중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코로나로 인해 계획했던 프로그램을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많은 인원이 중도 포기를 했다"며 "하지만 실속 있는 비대면 강의를 준비해 오늘의 졸업생이 있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여여불교대학은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유명하다. 부산 연산동 도심에 위치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직장인도 퇴근 후 편안히 찾을 수 있어 호응도가 높았다.

편안한 도량 분위기도 인기에 한몫했다. 여래선원 입구에 갤러리 북카페 소소(昭昭)를 운영해 불자가 아니어도 차를 마실 수 있는 쉼터를 마련했다.

효산 스님은 "갖고 있는 역량을 모두 동원해 수행과 전법의 도량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여불교대학은 불교대학 2기 입학생을 접수받고 있으며, 250여 명이 등록한 상황이다. 입학식은 4월 11일 법당에서 봉행됐다.

김해 바라밀선원, 증축 기념법회 개최

가야불교 재건 도심포교당 발원


김해 바라밀선원은 4월 3일 경내 법당에서 '바라밀선원 증축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김해 바라밀선원(주지 인해)은 4월 3일 경내 법당에서 '바라밀선원 증축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영축총림 방장 성파 스님의 증명으로 진행됐으며 통도사 염불원장 영산 스님, 총무국장 종현 스님, 호법국장 천주 스님,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송산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및 경남지역단 대중이 동참했다.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은 "금관가야 김해에 자리한 도량이 앞으로 한국 불교를 새롭게 하고 정진하는 거점지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인해 스님은 "앞으로도 바라밀선원은 가야불교의 중흥을 위해 앞장서고 포교도량으로 발돋움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바라밀선원은 동참한 불자들을 대표해 김종환 불자에게 방장 성파 스님이 직접 쓴 족자와 공로패를 전달했다. 한편, 바라밀선원은 2013년 김해 내동 상가건물에서 개원한 이후 2017년 현재 위치인 김해시 구지로로 이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원 성주사·한마음병원 MOU 체결


창원 성주사는 4월 2일 창원 한마음병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창원 성주사(주지 법안)는 4월 2일 창원 한마음병원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창원 성주사와 한마음병원은 이번 협약에 따라 불교문화 체험과 병원 의료서비스 비용 절감 등을 홍보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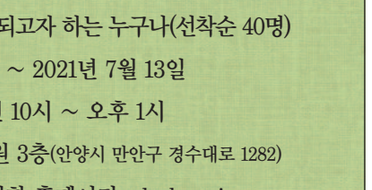
성주사는 병원 직원 및 가족들의 템플스테이 참가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창원 한마음병원은 성주사 신도들의 외래진료와 입원 등 비급여 항목 할인, 건강검진 할인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업무 협약식에는 창원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 하충식 한마음병원 이사장 등 관계자가 동참했다.

법안 스님은 "불모산 성주사는 병원 관계자분들의 힐링 공간으로 열려있으며 언제나 환영한다"며 "성주사에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통해 심신의 피로를 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충식 한마음병원 이사장은 "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이라며 "성주사 신도들과 한마음병원이 가까운 이웃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해동원효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봉행


해동원효장학회는 4월 7일 해동고 교내 법당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봉행했다.

해동원효장학회(회장 원광)는 4월 7일 해동고 교내 법당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봉행했다.

장학금 전달식은 해동고등학교 개교기념일에 맞춰 진행됐으며, 재학생 15명(1학년 5명, 2학년 5명, 3학년 5명)에게 각 100만 원 총 15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해동원효장학회장 원광 스님(정수사), 총무 자인 스님(길상사), 이사 지용 스님(장흥사), 감사 대원 스님(금불사)이 참석했다.

장학회장 원광 스님은 "여러분이 성장해 사회에서 역할을 다할 때 부처님 말씀처럼 어려운 이들에게 등불과 이정표와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수길 해동고 교장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해도 변함없이 장학금을 전달해주신 스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해동원효장학회는 2008년 출범했다. 장학회 회원 17명의 스님들이 학생 한 명을 지정해 지원하는 장학회로 시작됐다. 현재 약 2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천년고찰 산청 내원사 '덕산사' 이름 되찾아

경남 산청 지리산 내원사가 기와 등 실증 자료의 발견으로 1360여 년 전 이름인 덕산사로 변경됐다.

산청군은 삼장면 대포리 장당계곡에 있는 산청 내원사가 조계종 승인을 거쳐 덕산사로 전통사찰 명칭을 변경 등록했다고 4월 6일 밝혔다. 덕산사는 신라 무열왕 4년(657)에 원효 대사가 처음 세웠다. 1000여 년이 지난 조선 광해군 1년(1609)에 원인 모를 화재로 절터만 남기고 전소됐다. 이후 1959년 원경 스님이 절을 다시 세우고 내원사로 이름을 바꿨다고 전해진다.

그동안 문헌 기록 외에 기존의 내원사가 덕산사의 자리에 세워진 것을 실증하는 자료를 발견하지 못해 내원사는 본명을 되찾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웅전의 위치 고증을 위한 시굴 조사에서 덕산사의 사찰명이 새겨진 기와가 발굴돼 비로소 내원사가 덕산사 터에 지어진 것을 확인했다.

산청군과 내원사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명칭 되찾기를 진행했으며, 지난 3월 중순 조계종이 사찰명을 덕산사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녕 법성사, 창건주 법성보살 기려

4월 4일 대광명전에서 추모법회


창녕 법성사는 4월 4일 경내 대광명전에서 '법성보살 열반16주기 추모법회'를 개최했다.

대한불교관음종 창녕 법성사(주지 법명)는 4월 4일 대광명전에서 '법성보살 열반16주기 추모법회'를 개최했다.

추모법회는 △상단예불 △법성보살 전 삼배 △비로자나불 십신불 봉독 △상축 △헌다 및 헌화 △법성보살 생전 육성법문 청취 △법어 △인사말 △추모곡 낭송 순으로 진행됐다.

법회에는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법성사 주지 법명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도각 스님(진주 불명사), 부산 무문홍법사 호명 스님, 진주 약사정사 진여 스님, 대구 모은정사 학림 스님 등 스님들과 이경자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법성보살은 관음보살이자 비로자나불 기도도량인 법성사를 창건한 대보살이셨다"며 "그 뒤를 따라 우리들도 관세음보살이 되고 포교사가 되자"고 법문했다.

법성사 주지 법명 스님은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모이기 힘든 시점이지만 함께하고 동참해주셔서 무엇보다 감사드린다"며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바른 신심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극복 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한편, 법성사는 1985년 3월 덕오당 법성보살이 창건했다. 법성보살은 1928년 5월 26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 1리에서 3남 3녀 중 장녀로 태어났으며, 유년 시절부터 원인 모를 병으로 고통받다 1958년 10월 영축산 기도로 병고서 벗어나는 가피를 얻었다고 한다. 그후 중생구제를 위한 원력을 세워 비로자나불 기도를 정진, 창녕 영축산 청련사를 중창불사했다. 이후 법성사를 창건했고 1996년 3월 10일 법성사 관음전 맞은편 대광명전을 낙성했다. 법성보살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청도 약사사를 중창불사하고, 1993년 7월 조계종 청련사 다보탑과 비로자나불 불상 조성, 1994년 10월 청도 대적사 산령각 신축, 1995년 5월 요사채 신축, 화장실 개축 등 불사를 이끌었다. 영천 육군 3사관학교 법당 신축불사에도 동참했으며 관음종 백운사 법당도 중창불사했다. 또 중생구제 사업으로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돕고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도 힘썼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일 정 2021년 9월 8일(수) ~ 10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 육 비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수업참여 오프라인(황룡원), 온라인(Zoom)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불교의 현대적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 (9월 8일, 수)	2일차 (9월 9일, 목)	3일차 (9월 10일, 금)
09:00~12:00		생활수행의 원리와 사례	마음과 과학 특강
14:00~17:00	불교상담과 마음치유	현대인을 위한 포교	
18:30~20:30	한마음 교육의 원리 '나로부터의 시작'	온택트 시대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1 안양시 시민인성함양 프로그램 지원사업

제7기 행복한 부모되기

마음 치유와 자녀심리 이해

대상 지혜로운 부모가 되고자 하는 누구나(선착순 40명)

기간 2021년 5월 25일 ~ 2021년 7월 13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장소 한마음선원과학원 3층(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신청 및 문의 함께하는 진화 홈페이지 edu.hansi.org
전화 031-470-3198, 3200
매주 월요일 휴무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수강료 무료교육(안양시 지원금으로 교육진행)

1회	(5/25)	괜찮아(수용하기)
2회	(6/1)	다그치지 말아요(무의식 이해하기)
3회	(6/8)	평가하지 말아요(마음 자각하기)
4, 5회	(6/15)	쉼(관계의 통찰) & 걷기명상
6회	(6/22)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다
7회	(6/29)	고맙습니다(부모 역할 자각)
8회	(7/6)	우리, 안아줘요(건강한 가족)
9, 10회	(7/13)	내 안의 꽃을 피워요(성찰과 비전)

전북 서남권 불자 양성 터전 마련

선운사불교대학 4월 3일 첫 입학식 개최

100여억 원의 예산투입해
고창교육문화회관에 위치
신입생 47명 입학해 서원

조동제 전북지사장

조계종 24교구 선운사가 전북 서남권의 전법을 위해 불교대학을 개설하고 첫 입학생을 받았다. 선운사(주지 경우)는 4월 3일 고창교육문화회관 3층 명상실에서 선운사불교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개설된 선운사 불교대학은 불교 전반에 대한 정법의 이해와 바른 수행의 길로 불자들을 인도하고 낙후된 호남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됐다. 향후 졸업생을 중심으로 동문회 등을 활성화해 교육뿐만 아니라 환경운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회향이라는 불교의 시대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다.

선운사 불교대학이 입주한 고창교육문화회관은 명상학교, 요가교실, 식당,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 후 아카데미, 북카페, 스터디카페, 전시장, 청소년동아리방, 시니어클럽, 로컬푸드판매점 등이 입주해있다.

고창교육문화회관은 전 세대가 문화, 신행, 교육, 소비 등을 원스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시설이기에 선운사 불교대학의 생활불교실천 방침의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이날 입학식에는 강의실의 수용인원인 32명을 초과한 47명의 신입생이 몰려 인기를 가늠케 했다. 입학식 행사에는 선운사 교육문화회관장 법만 스님, 고창종합복지관장 대원 스님, 동국사 주지 종고 스님,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 선운사 총무국장 심학 스님, 사회국장 도심 스님, 재무국장 수찬 스님, 선운사불교대학 학감 현적 스님, 기도법사 지원 스님 등 스님들이 참석해 신입생들을 환영했다.


4월 3일 진행된 선운사 불교대학 첫 입학식서 사부대중이 불교중흥을 발원하고 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종고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선운사 불교대학은 24교구의 희망과 같은 곳"이라며 "선운사와 불교회관의 원력에 발맞춰 걸어온 불자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고 축하했다. 스님은 이어 "여러분의 열정이 정읍, 순창, 부안, 영광까지 전해져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심을 돈독히 할 기회를 얻기를 기원한다. 선운사를 비롯한 교구 모든 사찰의 성원이 선운사 불교대학과 함께 하고 있다"고 기대를 표했다.

법만 스님은 축사를 통해 "선운사 교육문화회관은 선운사를 비롯한 24교구 본말사에서 외부지원 없이 100억 원 가량의 자금을 투입해 건립한 시설이다.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부러워할 만큼 훌륭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었다"며 "선운사 불교대학의 첫걸음을 함께해주신 신입생들을 환영하고 축하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교육문화회관이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져 행복한 군민, 행복한 불자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입학식에서는 선운사 보은 합창단의 축가가 이어졌으며 입학생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이날 입학생들은 김만수 불자가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수행과 학문과 인격을 도야하고 대승보살도를 실천하여 민족, 자연과 인류사회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이상세계를 구현하겠다. 불법승 삼보를 외호하고 중생구제의 이타행 실천,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강화를 위해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선운사 불교대학은 1년 2학기 과정으로 32주 동안 주 1회 강의가 진행되며 수련회, 수계식, 성지순례, 철야정진, 특강, 봉사활동, 종단연수, 학생회 활동이 이어진다. 또 지역불교발전과 포교, 신도교육을 통해 불교대중화와 전문불교지도자 양성에 주력하게 된다.

금당사·석불사, 템플스테이 정식 운영

예비 운영서 정식 사찰 지정
각 사찰 특화 프로그램 인정

전북 진안 금당사(주지 법은)와 마포 석불사(주지 경륜)가 '2021년도 템플스테이 정식 운영사찰'로 지정됐다. 이들 사찰들은 2019년 예비운영사찰로 지정된 이후 사찰의 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고, 이를 인정받아 정식 운영사찰로 지정된 것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4월 7일 진안 금당사 템플스테이관에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증서 및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금당사는 2019년 11월 템플스테이 예비 운영사찰로 선정, 이후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21년 3월 정식 운영사찰로 지정됐다. 마이산 자락에 위치한 금당사는 지리적 이점을 토대로 차별화된 템플스테이를 기획, '소확행'이라는 주제로 마이산 걷기 명상 트레킹과 호흡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이 외에도 금당사는 인근의 청소년 야영장과 연계한 프로그램, 진안군 SNS 홍보단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 등으로 지역 상생과 발전의 템플스테이를 선보일 계획이다. 금당사 주지 법은 스님은 "마이산의 자연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보금자리로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포 석불사는 4월 1일 문화사업단으로부터 템플스테이 현판을 전달받았다. 이번 지정으로 서울 지역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은 총 13곳으로 늘어났다.

석불사는 2019년 11월 템플스테이 예비 운영사찰로 지정됐으며 이후 사진 촬영 템플스테이, 쑥개떡 만들기 템플스테이 등 이색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가자들의 호응을 받아왔다.

신성민 기자,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당사 주지 법은 스님(사진 오른쪽)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명패를 받고 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 교구종회 개최

4월 7일 2020 결산 및 법률·의료 협약



태고종 전북종무원은 4월 7일 교구종회를 열고 2020 결산안을 심의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이 4월 7일 2020년 결산 심의 교구종회를 개최했다. 전북종무원 청사에서 열린 이날 교구종회는 의장 법전 스님, 종무원장 진성 스님, 영산작법보존회장 혜정 스님을 비롯해 지방종회의원 스님들이 참석했다. 또 지방종무원을 순방 중인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도 참석했다.

종회의장 법전 스님은 "어려운 가운데 교구를 이끌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수행하는 교구, 수행기반을 다져가는 교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혜정 스님은 "영산작법보존회는 개인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하고 태고종 집행부에는 "전국 교구가 화합할 수 있도록 종단이 가지고 있는 영산문화재를 이용한 영산의장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지방교구 순방을 위해 방문한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서로 대화를 통해 종단의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전북종무원을 방문하게 됐다"며 "스님 개개인이 종단의 주인공이라 생각하면 종단이 안정되고 크게 활성화 될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교구종회에 앞서 태고종 전북종무원과 전주내과(원장 문성기), 법무법인 수인(대표 변호사 양승일)은 전북종무원 스님들과 신도에 대한 의료지원과 법률자문에 대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에 따라 전주내과는 태고종 전북종무원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법무법인 수인은 종무원 소속 사찰의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공익활동가에 자비쌀 전달

광주지역 공익활동가를 위한 자비의 쌀이 전달됐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무등)는 3월 31일 나무숲센터에서 '제14회 광주전남지역 공익활동가 자비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갖고, 총 65개 단체 활동가에게 각 40kg씩 쌀 2600kg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공동대표 혜오 스님, 서정훈 광주NGO센터장, 정영일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대표,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 등이 참여했다.



한편, 2008년부터 시작된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자비의쌀 나누기에서는 14년간 2만 8620kg의 쌀이 활동가들에게 전달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미얀마 민주주의 지지 콘서트

미얀마의 평화를 기원하는 콘서트가 열렸다. 광주 보은사(주지 도제)는 지난 3월 27일 경내에서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류류평화콘서트'를 개최하고, 미얀마 민주주의를 응원하는 메시지 전달과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5대종교영성회, 꿈앤꿈, 자연보호협회, 광산신문사, 보은사 신도회 등이 함께한 평화콘서트에는 평화의 시 낭송(서애숙 시인), 살풀이 춤(최미애), 가수 빅마미, 박장희의 노래가 이어졌다. 이어 도제 스님의 '평화의 메시지'와 하늘땅(국악), 야니와 샤프렌, 보은사 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행사는 전체 참가자의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마무리됐다.



도제 스님은 "41년 전 5.18 당시 군부의 학살과 광주시민의 항쟁은 한국 민주주의를 일깨우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는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며, 더 이상 희생과 아픔이 없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쇼토쿠 태자 입멸 1400주기 법요 회향

3일 고대 불교의식 재현해

아악과 불교 음악의 합주
아사히 신문 유튜브 중계

김민재 객원기자


쇼토쿠 태자(聖德太子)의 입멸 1400주기를 기념하는 법요가 호류지(法隆寺)에서 봉행됐다. 사진출처 = 아사히신문

고대 한일불교사에서 중요한 인물이자, 일본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추앙받는 쇼토쿠 태자(聖德太子)의 입멸 1400주기를 기념하는 법요가 호류지(法隆寺)에서 봉행됐다. 4월 4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 은 호류지에서 진행된 법요식의 모습을 특별 보도했다.

쇼토쿠 태자와 인연이 깊은 호류지에서는 지난 4월 3일부터 3일간 쇼토쿠 태자 입멸 1400주기 법요식을 봉행했다. 호류지는 7세기 태자의 명령으로 건립된 사찰로 매년 태자의 기일에 맞춰 기념 법요식을 봉행했으나, 이번 법요식은 1400주기라는 회기를 기념해 100여 년 전 1300주기 기념 법요식의 규모에 준하여 성대하게 진행됐다.

단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내빈과 진행요원 등 법요식의 참석인원은 450여 명 정도로 축소했고 방역수칙도 준수했다. 일반 참배객들의 분산을 위해 3일간의 법요식은 모두 아사히 신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쇼토쿠 태자는 일본에 불교를 도입하고 최초로 사찰을 세웠으며, 불교의 이념에 근간한 〈17조 헌법〉이라는 법령을 제정했다. 특히 17개조의 첫 조항으로 말한 '화합을 가장 귀히 여겨라(以和爲貴)' 라는 말은 지금도 일본에서 스스로의 사상을 말할 때 사용하는 '화(和)' 의 시작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이 〈17조 헌법〉에서는 '불법승 삼보를 공경하라' 고 명시하여 명실공히 일본의 국교를 불교로 인정하였다.

법요식의 첫날 호류지 주지인 후루야 쇼카쿠 스님를 대표로 120명의 대중은 비단 휘장을 친 연(輦)을 들고 호류지 동원(東院)의 쇼토쿠 태자의 사당으로 향했다. 대중들은 사당에서 간단한 예불을 올리고 사당에 모셔져 있던 쇼토쿠 태자의 존상과 손바닥 뼈로 알려진 유골을 각각 연에 담아 법요식의 중심 장소인 강당으로 이운했다. 이운의식에는 쇼토쿠 태자와 인연이 있는 사찰 및 종단의 주지와 대표자들이 참가하였고, 일본 궁중음악인 아악(雅樂) 연주자들이 음악과 춤을 공양했다. 강당 앞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는 전통적으로 경전의 내용을 문답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하는 토론의식이 진행됐다. 법요식 중에 진행된 문답은 쇼토쿠 태자가 생전 주석을 달고 강론하였던 〈법화경〉 〈승만경〉 〈유마경〉의 내용 가운데서 선별되었다.

각 의식의 사이에는 아악연주와 공연이 진행됐다. 또한 일부 예불은 스님들이 직접 악기를 연주하며 대중이 함께 예불문을 독송했다.

호류지 측은 "고대 일본불교의 의례에서는 아악을 연주하여 불보살을 공양하였다. 쇼토쿠 태자가 세운 오사카의 시텐노지(四天王寺)에도 돌로 만든 무대가 남아있다. 이러한 전통을 되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쇼토쿠 태자에 대한 소개와 기념사가 이어진 가운데 주지 쇼카쿠 스님은 "우리는 지금 코로나 대유행과 분쟁에 시달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쇼토쿠 태자가 소중이 여긴 화합을 상기하며 사회 화합의 정신이 모두에게 전해지길 바란다" 고 전했다.

3일간의 법요식은 금당에 모셨던 쇼토쿠 태자의 존상과 유골을 다시 사당으로 이운하는 것으로 회향됐다.

인도 '나가르주나 사가르'에 불교테마파크 개장

텔랑가나주도, '부다반암' 건립

인도의 관광명소 중 하나
'팔정도' 상징 8구역 구성


나가르주나 사가르 호반 인근의 부다반암 전경. 사진출처=더뉴스미닛

대중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인도의 관광 명소 나가르주나 사가르(Nagarjuna Sagar) 댐 인근이 불교테마파크 개장으로 한층 다채로워질 전망이다.

인도의 인터넷 매체 '더뉴스미닛(thenewsminute)' 은 4월 2일 "나가르주나 사가르는 곧 개장할 부다반암(Buddhavanam)이라는 불교 문화유산 테마파크 덕분에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다"며 "부다반암은 관광객들을 확실히 놀라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가르주나 사가르는 인도 텔랑가나(Telangana)주도의 하이데라바드(Hyderabad)로부터 날곤다(Nalgonda) 방향으로 약 16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관광명소다. 댐으로 형성된 호수와 나가르주나 곤다 섬 등으로 뱃놀이 등을 즐길 수 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텔랑가나 관광공사는 조만간 이곳에 불교테마파크 부다반암을 개장할 예정이다.

관광공사는 부다반암이 부처님 삶과 가르침에 대해 배우길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스톱 여행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부대중에게 평화로운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는 이 불교테마파크는 예술미를 자랑하는 불상들을 통해 해탈의 길로 이끌었던 부처님의 삶 속 사건을 엿볼 수 있다"는 게 관광공사 측 설명이다.

스리파르바타 아라마(Sriparvata Arama)라고도 불리는 부다반암은 나가르주나 사가르 구역 내 275에이커 부지에 건설되고 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를 위해 주정부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에서도 예산을 투입했다.

부다반암이 이 곳에 건립되는 이유는 역사적 상징성 때문이다. 1927년 후 부다반암 자리에는 사원과 법당터, 부도탑과 같은 불교문화유산이 다수 발견됐다. 불교학자 아차랴 나가르주나(Acharya Nagarjuna)가 인근 언덕에서 그의 여생을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부다반암은 총 8구역으로 나눠 건립된다. 이는 팔정도(Ashtanga Marga)를 상징하며 구체적으로 부다차리타바남, 자타카공원, 다야나파남, 부도탑 공원, 고등불교교육을 위한 아차라 나사르주라 국립센터, 크리쉬나 계곡 공원, 테루구 주의 불교를 대표하는 구역, 그리고 마하스투파 등으로 구성된다.

관광공사에 따르면, 일부분은 이미 착공됐고, 아차라 나가르주나 고등불교교육 국제센터, 크리슈나 계곡 등은 준공을 앞두고 있다.

특히 아마라바티(Amarāvathī)에서 가장 큰 부도탑으로 알려진 아마라바티 스투팜(Amaravathi Stupam)의 크기, 모양을 그대로 재현한 마하스투파는 불교테마파크의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부도탑은 수많은 사람들을 쉽게 수용하고도 남을 만큼 거대하다.

박정현 객원기자

달라이라마, 러시아대학생과 특별 대담

상생과 화합의 정신을 강조해
러시아 5개 주립대 학생 참여


달라이 라마가 러시아 대학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텐진 잠펠 스님

지난 3월 31일 불교전문매체 '글로벌 부디스트도어' 는 달라이라마와 러시아 대학생들이 가진 특별 대담회의 모습을 보도했다.

이번 대담회엔 러시아의 5개 주립대 학생이 참가했으며 '변화의 시대 속 우리의 세계' 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대담은 유튜브와 SNS 채널 등을 통해 다국어로 동시통역돼 생중계됐다.

달라이라마는 3월 24일 인도 북부 다람살라 관저에서 온라인으로 대담회를 가졌다. 이번 대담회는 모스크바 주립대학의 체르니고프스카야 교수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대담회에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칼미크, 부랴트, 투바 주립대의 대학생들이 참가했으며 모스크바의 세이브 티베트 재단, 티베트 문화 정보 센터가 주관했다.

특별 대담은 달라이라마의 짧은 인사말로 시작됐으며 러시아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달라이라마는 이날 "모든 인간은 한 가족이며 분열 없이 상생해야 한다. 우리는 지구라는 한 행성에서 함께 살아야하기 때문에 자국, 타국을 나누지 말고 인류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 와 '그들' 로 싸울 여지가 없다. 이는 낡은 사고방식"이라고 말했다.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것이 있는가' 란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립대 학생의 질문에 달라이라마는 "따뜻한 마음이야 말로 모든 이가 가진 아름다움이다. 동물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당신이 다른 존재에 대한 애정과 친절함에 의욕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이는 바로 당신의 얼굴에 행복한 표정으로 반영될 것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이라고 답했다.

또한 달라이라마는 러시아가 유럽권에선 가장 먼저 불교를 받아들였으며, 러시아 연방의 몇몇 공화국들이 여전히 불교국가임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러시아 불자들에게 기도와 의식뿐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교학을 공부하고 배운 것을 과학과 비교하라고 조언했다.

특별 대담에서 학생들에게는 "논리와 분석을 통해 지혜를 향상시키는 나란다 대학의 전통을 살려야 한다"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2100년 된 불교 유물, 인도서 발견

튜룰 만달서 기원전 1세기 제작 추정 유물 등 출토


인도 동부 군트르 지역 바이쿤타푸람서 발견된 불교유물. 사진출처=인디안익스프레스

2100년 된 불교 유물들이 지난 30일 인도 동부 군트르(Guntur) 지역의 튜룰 만달(Thullur mandal)에 위치한 바이쿤타푸람(Vaikuntapuram)에서 발견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3월 31일 보도했다.

인디안익스프레스(indianexpress)는 이날 "마을의 바바흐니 마슈람(Bhavaghni Ashram)에서 발굴 작업 중 유물들이 대거 출토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출토된 유물들에 대한 조사를 맡은 현지 고고학자에 따르면, 바이쿤타푸람서는 원뿔형의 광택 컵과 테라코타(양질의 점토로 구워낸 토기류) 화분, 매끄러운 화강암 조각, 사타바하나(Satavahana) 시대에 부도탑을 모셨던 천장덮개의 깨진 조각 등이 발견됐다.

특히 이 고고학자는 "인도고고학조사국(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 소속 비명(碑銘)학 전문가인 K무니랏남 레디 박사가 이 글씨는 기원전 1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유물들은 비야사 바관 사원(the Vyasa Bhagwan temple)에 건축 중인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그는 "바이쿤타푸람의 불교 유물은 125년 전 영국 고고학자들에 의해 보고된 게 최초였다"고 부연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대상 : 전국사찰 법당서 소리 체험 후 선택 (제주도 포함)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190만원부터~,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8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제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48만원
각종 제 전문 무선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 58만원

“선택한 맑은 가난 넘치는 부보다 값져”



행복한 무소유
정찬주 지음
정민 미디어 펴냄/1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고희를 맞은 이 책의 저자 정찬주 작가는 30대 중반에 법정스님을 처음 만났다. 그가 샘터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며 스님의 글을 매만지던 때의 일이다. 스님은 노년에 접어든 나이인데도 그때까지 상좌를 두지 않았다. 부처님보다 이른 나이에 감히 상좌를 들일 수는 없다고 저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저자는 그렇게 스님과의 인연을 이어가다가 재가제자를 허락받았다. 스님이 정 작가에게 내린 법명은 무염(無染)이다. ‘저잣거리에 살되 물들지 말라’는 뜻이다. 저자는 스님의 산문집 10여 권을 펴냈다. 스님의 글을 매만지며 그 의미를 천착하는 일을 수십 번 반복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가 지닌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스님의 글을 읽고 옆에서 오래 지켜봤기에 저자만큼 그 진의를 깨달은 이도 드물 것이다. 그런 그가 법정스님 입적 11주기에 즈음해 마지막으로 스승에게 헌정하는 산문집을 최근 출간했다. 제목은 〈행복한 무소유〉이다.

이 책에는 스님의 말씀과 일화를 통해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탐색하며, 사색한 저자의 온유한 글들이 가득 담겨 있다. 저자의 무소유서 깨달은 행복과 자유가 어느 사이엔가 향기로운 차를 음미하듯 읽는 이에게 천천히 스며든다.

이 책은 코르나로 인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안한 시대에, 봄날 햇살처럼 삶의 신산한 그림자를 걷히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 ‘한강 뷰 아니면 한강 물’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싶은 강한 욕구를 드러낸 말이다. 물론 과거에도 배금주의와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 정도가 한계선을 넘어버린 듯하다. 그렇다면 정말 소유만이 삶의 큰 행복일까? 현재 우리 사회가 법정스님이 선물하신 무소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다. 법정 스님은 누군가 무소유의 의미를 물어오면 이렇게 대답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궁색한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무소유가 아니다. 무소유란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때 좀 더 홀가분한 삶을 이룰 수가 있다. 선택한 맑은 가난은 넘치는 부유보다 값지고 고귀하다. 소극적인 생활 태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나눔’이 없는 무소유는 허망한 주장에 불과하다. 법정 스님은 불필요한 소유를 경계하면서 나눔의 삶을 이루라고 하였다. 결국 무소유에는 자비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다.

법정 스님의 말씀 중 ‘선택한 맑은 가난’이란 청빈(淸貧)의 삶을 뜻한다. 풍부하게 소유하기보다는 풍요롭게 존재하기를 바라는 수행자들의 덕목이기도 하다. 그런데 법정 스님은 수행자나 저자 같은 재가제자를 만났을 때는 좀 더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었다. “나도 없는데 하물며 내 것이 어디 있겠는가. 나도 공(空)하고 내 것도 공(空)하다는 도리를 알아야지. 그것을 말하기 위해 무소유란 말을 만들어낸 것뿐이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그 의미가 쉽지 않다.



법정 스님이 한때 주석했던 전남 순천 불일암 전경 모습.

제자인 저자가 스승에게 헌정한 산문집
무소유서 깨달은 삶의 행복과자유 조명
법정스님 무소유 암자 순례도 함께실어

저자는 산방에서 살아가는 소소한 삶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자연스럽게 법정스님의 ‘무소유’에 대한 뜻을 전한다. 행복이 돈이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밤새 내리는 봄비에, 잠든 세상을 깨우는 산새 소리에, 목련 꽃봉오리가 개화할 때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저자가 산방에서 손님을 맞으면서, 글을 쓰면서, 세계를 여행하면서 깨달은 삶의 의미는 소유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며 지쳐버린 우리의 마음을 따스하게 어루만진다.

이 책은 총 4부로 이루어졌다. 1부에는 법정스님이 무소유라는 화두를 꺼내든 계기와 무소유를 나눔으로 승화한 이야기, 무소유 삶을 살다간 인물 이야기, 무소유의 철학적인 뿌리를 밝히는 산문 10편이 모였다. 이어 2부는 저자가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면서 명상한 글들이다. 자신의 산방에서 자연을 스승 삼아 벗 삼아 살면서 깨달은 바를 ‘자연’이라는 제목으로, 산중에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한미한 작가로서의 인생을 성찰한 이야기를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고희의 삶을 살아오면서 얽혔던 인연을 ‘인연’이라는 제목으로 엮었다.

3부에는 저자가 ‘법정 스님의 사상과 진면목’이라는 제목으로 월간 〈불교문화〉에 게재했던 논문 형식의 글을 전재했다. 법정 스님의 사상과 가풍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조심스럽게 독자에게 전한다.

4부는 ‘법정 스님 무소유 암자 순례’ 편이다. 스님이 〈무소유〉 산문집을 펴낸 불일암, 스승인 효봉 스님으로부터 무소유 정신을 익힌 쌍계사 탑전, 말년에 무소유 삶을 보다 철저하게 사신 강원도 오대산 쯔데기골의 수류산방을 소개했다. 저자는 사진을 함께 실어 독자들이 눈으로라도 먼저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는 지복의 삶을 설파한 장소를 순례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 책은 돈이 삶의 전부인 양 미쳐가는 세상에서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법정스님의 무소유를, 삶의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사유해보는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왜 수많은 마음공부와 수행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일까?



마음 공부에 관하여
초걈 트룽파 지음
이현주 옮김
불광 펴냄/1만 7천원

이 책은 에고가 만드는 함정들을 하나하나 파헤치며 근본적인 마음 공부의 본질과 그 수행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모두 1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질문과 대답’으로 마음 공부를 하는 이들이 한 번은 가졌을 의심과 의문에 대한 답을 풀어준다.

1970년, 지난 100년간의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던 미국 땅에 동양의 낯선 스님 한 명이 찾아왔다. 티베트에서 온 초걈 트룽파이다. 당시 미국 사회는 영적으로 매우 고양된 상태였다. 고성장서 저성장 사회로 이행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기 시작했고, 그동안의 물질주의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정신적 기치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들은 동양의 정신세계서 더 깊은 삶의 의미와 전망을 찾고자 했다. 이런 시기에 미국에 정착한 초걈 트룽파는 불교의 가르침을 토대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성이란 무엇인지를 설파했다. 그는 깨달음마저 상품화하고 소비하려는 미국 사람들의 영적 물질주의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명상을 통해 곧장 영성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 책은 1970년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카르마 드종 명상 센터에서 열린 초걈 트룽파의 강의를 묶은 것으로, 마음 공부와 영성에 관한 바른길을 찾는 이들을 위한 살아 있는 고전이다.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더욱 심해진 물질주의 세태와 영성이 유용한 돈벌이 수단 중 하나가 된 이 시대에 전하는 날 선 가르침이다.

‘왜 수많은 마음 공부와 영적 수행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인가?’ 이 책의 부제처럼, 우리는 영성이 무엇인가를 묻기 전에 왜 그토록 영성이란 것이 성취하기 어려운 것인지부터 물어야 한다. 왜일까? 초걈 트룽파는 ‘에고(Ego)’가 거기에 이르는 길을 교묘히 가로막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행이란 마음의 깨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연습이다. 깨어 있는 상태가 곧 ‘깨달음’ ‘영성’이며, 그것은 본래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불교의 관점이다. 단지 에고가 만들어내는 미망에 가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내면의 영성을 향한 우리의 눈길을 가리는 에고의 기술은 생각, 감정, 그리고 개념이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에고는 독립적이고 고정된 ‘나’라는 신화를 만들어낸다. 생각하는 내가 ‘있고’, 감정을 느끼는 내가 ‘있고’, 세계를 인식하는 내가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인다. 이렇게 에고는 나와 나 아닌 것을 분리하고, 나 아닌 것 가운데 좋고 나쁜 것을 가려내 취사선택하게 함으로써 이분법적 태도로 삶을 바라보게 한다. 나와 동떨어진 깨달음과 영성, 세상이라는 관념 또한 이런 식으로 창조해내는 것이다. 나아가 에고는 진실을 보려는 우리의 마음 공부마저 도구로 삼아 우리를 거짓 영성에 빠져들게 한다. 어떻게 하면 이 에고가 꾸며내는 환상들을 물리치고 진짜에 가 닿을 수 있을까? 초걈 트룽파는 이 책에서 풍부한 일화와 예리한 비유로 그 답을 알려준다.

우리가 마음 공부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특별함’에 대한 추구가 있다. 마음 공부를 통해 남들과는 다른, 일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경지에 도달하고자 한다. 그 시작은 깨달음을 특별한 것으로 여기는 데서 출발한다. 사람들은 깨달음이나 영성이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본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 평범한 깨달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삶과 세상을 단번에 뒤집어버릴 초인적인 힘을 가진 깨달음을 상정하고 그것을 찾아 나선다. 특별한 깨달음이 생겨나면 뒤이어 그것을 얻기 위한 특별한 행위와 시도가 생겨난다. 세상과 떨어져 깊은 산중에 은거하거나, 엄격한 수행을 지속하거나, 특정한 종교적 도그마에 매달려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특별한 깨달음을 위해, 더 높은 의식 상태에

영성 가로 막는 큰 적은 에고가 만든 ‘나’
특별함 환상, 마음공부하며 빠지기 쉬워
“깨달음 시작, 지키고자 하는 것 잘라라”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스스로의 행위를 합리화한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을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하는 또 하나의 함정은 한번 찾아온 깨달음을 놓치지 않으려는 집착에서 비롯된다. 명상 수련 중에 깨달음을 맛본 사람은 그것을 특별한 체험으로 여겨 그 순간의 느낌을 잃지 않으려고 애쓴다.

참된 깨달음은 일상적이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온전히 깨어 있음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티베트 불교와 선불교의 가르침에서 ‘평범한 지혜’ ‘참된 평범성’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마음 공부와 마음 수련이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과정이다. 눈 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더 나은 것에 대한 희망을 버리는 일이다. 현실을 외면하고 지금 여기에 뿌리 내리지 않은 것으로 마음을 향할 때, 우리는 삶이 주는 영감(靈感)으로부터 멀어진다. 따라서 마음 공부는 언제나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곳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깨달음과 마주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자 최단 거리다.

김주일 기자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연꽃잎 조각에 그린 불보살세계

서용 개인전 '2021 천상언어' 展
갤러리 오 스퀘어 4월 6일~23일

"돈황서 벗어났지만 뿌리는 돈황"
땅과 하늘의 상생과 호흡 조형화
기존 작업에 확고해진 색채 더해
21C 정서로 그린 불화 아닌 불화



서용 作, 천상언어 2102(97×47cm×4ps)



서용 화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불교미술의 보고인 돈황석굴 벽화에서 그림의 가치를 정립하고 화가로서의 길을 모색했던 서용 화백이 4월 6일부터 23일까지 서울 '갤러리 오 스퀘어' 에서 개인전 '2021 천상언어' 를 연다.

서 화백은 이번 전시에서 이전의 작업에 더욱 확고해진 색채를 더한 콜라보 작품을 선보인다. 오래전부터 판화와 도자, 부조 등 다양한 기법을 공부했던 경험으로 재료 사용 측면에서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고 있는 서 화백은 이번 전시에서도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유감없이 드러낸다.

서 화백은 특정적인 문자를 분해하고 재배열해 흙으로 만든 무늬를 땅으로 삼았다. 그림의 베이스로 삼았다. 그리고 불보살 등 그리고자 하는 것들을 하늘로 삼았다. 연꽃 한 송이를 해체해 꽃잎을 형상화하고 그 위에 부처와 보살을 그렸다. 그렇게 땅과 하늘은 상생하고 호흡한다. 서 화백은 그것을 "조형"이라고 말한다.

이번 전시의 감상 포인트는 '조형' 이다. 수천 년 전의 도상들이 서용이라는 작가가 오늘에서 그리고 있는 '정서' 를 만나 현대화된다. 그것이 서용의 그림이다. 내용은 불교이지만 그 형상은 지금까지 없었던 형상이다. 서 화백은 그것을 '제시' 라고 했다. 눈에 익은 불화가 아니고 21세기 오늘의 서용이라는 작가가 자신의 정서를 집어넣어 그려낸 불화를 제시한다. 불화라는 형상이 현대화되고 돈황의 도상이 또 한 번 현대미술로 태어났다.

그 동안 '변화' 와 '다름' 을 추구해온 서 화백은 이번 전시에서 역시 또 한 번 변화와 다름의 그림을 보여준다. 서 화백 그림의 본격적인 변화는 2019년 열린 개인전에서부터 볼 수 있다. 그 큰 변화의 시작은 돈황을 벗어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번 전시를 보면 서 화백이 돈황에서 완전히 나왔다는 생각이 들만큼 새로운 작품세계를 보여준다.

"언제부턴가 돈황에서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돈황에 너무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돈황을 벗어나서 나의 세계를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돈황이라는 고대의 역사적인 미술언어와 21세기 AI시대를 살아가는 '서용' 의 정서가 자꾸 충돌했어요. 그런데 돈황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돈황에서 나오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서 화백의 그림에는 여전히 '돈황' 이 있다. 서 화백은 돈황을 아버지와 같다고 말한다. 자식이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아버지를 떠날 수는 있지만 아버지를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서 화백의 몸과 마음 곳곳엔 돈황의 바람소리와 모래바람 등 지울 수 없는 돈황의 풍경이 들어있다.

"내가 처음 돈황벽화를 만났을 때, 벽면을 가득 채운 벽화를 바라보고 먼 옛날 저 그림을 그렸을 화가의 모습을 떠올리며 화가로서의 삶에 지표를 삼았듯이 작가 본연의 자세를 놓치지 않으려고 긴장한다. 작가에게 작품은 하나하나가 그날의 기록이고 전시는 마침 표보다는 하나의 방점이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전할지 모르겠지만 좀 더 주의해서 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봐야겠다."

이번 전시의 제목인 '천상언어' 역시 서 화백이 돈황에서 불교 도상을 그리며 집중했던 단어다. 자신이 그리고 있는 모든 종교적 도상들이 신의 언어를 전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무당이 신의 말을 전하듯이 자신은 꽃으로 나무로 또는 바람으로 들었던 신의 말을 그림이라는 도구로 풀어놓는 것이다. 그리고 해석은 관자의 몫이다.

서용 화가는 1962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한 · 중 수교 직후인 1992년 8월, 중국에 유학하여 중국 북경 중앙미술대학 판화과에서 수인판화를 연수하고 1996년 동 대학 벽화과에서 석사를 받았다. 1997년 3월에 실크로드 고도 돈황으로 들어가 7년간 생활하며 돈황벽화를 연구하고 중국난주대학에서 개설한 돈황학 박사 과정을 1기로 졸업했다.

1994년, 중앙미술대학 화랑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시작으로 1996년 중국 최고의 미술관인 중국미술관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2004년 8월, 평창동 가나화랑 초대로 13년간의 중국 유학 생활을 정리하는 귀국 전시를 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작품을 한국에 소개했다. 그 후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 특별 초대전, 부산 예가 갤러리 초대전, SADI Space Gallery 기획초대전, 평촌 아트홀 기획초대전, 미국 코네티컷 대학 박물관 기획초대전, 중국 북경 공화랑 초대전, 동덕아트 갤러리 등 국내외에서 수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또한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북경 ARTFAIR, 한국을 이끈 30인의 작가전, 60인 독도진경전, 호옥션 기획전, 디 아카데미 작가 4인전, 시카고 아트페어, 스위스 쮜리히 아트페어, 서울오픈아트페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아르코 07' 아트페어 등에 작품을 출품했으며 홍콩 크리스티, 서울옥션 등 경매에 작품을 올렸다.

2006년 중국 언론에서 중국 내 국제관계에 공헌한 외국인 12인을 선정했는데 그중 문화계 인물 대표로 선정되어 수상했으며, 2003 세계의 한국인(SBS), 2006 KBS 역사기행 - 하서회랑을 가다(KBS), 2009 KBS 수요기획 - 실크로드 석굴벽화의 비밀 (KBS), 泊客中國-大漠之觀 (중국 천진TV, 홍콩 봉황TV) 등 수차례에 걸쳐 다큐멘터리를 통해 국내외 방송에 출연했다.

벽화 제작으로는 서울 상도선원, 중앙승가대학교 도서관 로비 벽화를 제작하였으며 강서대묘, 안악 3호분, 덕흥리 고분, 수산리 고분 등 고구려 고분벽화의 복원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아프라시압 궁전 벽화의 복원 및 모사 작품을 제작했다. 현재는 중국 북경 중앙미술대학 벽화과 객좌교수와 동덕여자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지도하고 있다.

BTN · BBS, 새 프로그램 통해 '봄단장'



BTN, 스토리텔링 법회 '붓다테라피' 선봬
BBS, TV강의 · 라디오 신행 프로그램 강화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 이하 BTN)와 BBS불교방송(사장 이선재, 이하 BBS)이 봄을 맞아 새 프로그램으로 시청자와 청취자를 찾아간다.

BTN은 4월 중 신규 프로그램 '붓다테라피' 와 'AI와 붓다' 를 선보인다. '붓다테라피' 는 일상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상황과 부처님 가르침의 비유를 통해 불법(佛法)을 좀 더 가깝게 만나는 스토리텔링 법회이다. 4월 1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9시30분, 저녁 7시30분과 화요일 오후 2시30분에 방송된다.

신규프로그램 'AI와 붓다' 는 '기계도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디지털시대에 불교는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 를 주제로 한 특강 프로그램이다. 인공지능 특강 시리즈 'AI와 붓다' 는 4월 27일 오후 4시에 첫 방송되며 방송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저녁 11시와 토요일 저녁 9시이다

BBS는 공중파 라디오와 케이블 TV채널에 봄맞이 신규 프로그램을 잇달아 편성했다. BBS 라디오는 4월 12일부터 시작된 개편을 통해 아침 시간대에 명상과 신행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첫 번째 주자는 '각산 스님의 새벽 명상' 이다. 한국명상총협회장이자 한국참선지도자협회장인 참불선원 각산 스님의 지도로 매일 새벽 4시,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돕는다.

이어 새벽 4시 30분에 방송하는 '선묵혜자 스님의 나를 찾는 백팔기도문' 은 조계종 군종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의 기도문을 들으며 108배를 올리는 시간을 갖는다. 이밖에 신규 프로그램으로 오후 4시 통도사 염불원장 영산 스님과 함께하는 '영산 스님의 음악산책' 이 방송되고, 저녁 9시에는 '도현아의 아무튼, 트로트' 가 방송된다.

이와 함께 BBS TV는 4월 1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에 방송하는 '오경 스님의 원각경 강좌' 는 안동 보경사 주지 오경 스님이 〈원각경〉을 한 음절씩 정확하고 명쾌하게 해석해 시청자들이 경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매주 월요일 저녁 10시 40분에는 '원제 스님의 온전한 나로 살기' 가 방송된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정보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원영 스님의 불교대백과' 가 방송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사찰 맞춤형 이동식 전통하우스

전통성 경제성 佛事는 내구성 효율성



시대에 맞는 신소재, 신기술, 신공법으로 무장한 광명이 佛心으로 채워 드립니다.

요사채, 창고, 삼성각, 기도실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보세요.(컨테이너처럼 간편히 설치)
공간이 바뀌면 사찰내 환경이 바뀝니다.

특허제10-1957831호
특허제10-1957826호
디자인등록 제30-0599196호

광명 문의 전화 H·P 010-3401-5633
TEL 041)852-5163

‘보물급’ 비지정 불화, 제 모습 되찾다

불교중앙博, 비지정문화재 보존처리 성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그간 제대로 보존되지 못했던 보물급 비지정문화재 불화 2점이 1년간 보존처리 작업을 통해 제 모습을 찾았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탄탄)은 4월 8일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에서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 및 예방적 관리사업’의 첫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존처리 사업은 멸실 위기에 처한 문화재 다량소장처 소장 중요 비지정문화재의 보존처리를 진행해 추가 훼손을 방지하고 가치를 제고하고자 2020년 처음 시작됐다.

첫 사업 대상으로는 보물급 문화재로 평가받는 순천 송광사 ‘오십삼불도’와 하동 쌍계사 국사암 ‘제석천룡도’가 선정됐다. 송광사 ‘오십삼불도’는 1725년 호남 지역의 유명한 화승 의겸(義謙) 스님이 그렸다. 1970년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원래의 족자 형태에서 판넬 액자로 변형됐고, 합판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가 불화에 손상을 입히고 있었다. 화면에는 안료 박락, 갈라짐, 충해 등의 다양한 손상이 확인됐다.

쌍계사 국사암 ‘제석천룡도’는 18세기 쌍계사 중심으로 활동했던 화승 평삼(評三) 스님이 조성했다. 과거부터 국사암 외부에 위치한 전각에 봉안돼 불화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손상들을 받아왔다.

이들 불화의 보존처리는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에서 맡았다. 연구소 측은 두 불화의 기초조사와 문헌자료 수집을 진행해

‘오십삼불도’·‘제석천룡도’
1년간 보존처리 작업 진행
초본 작성, 활용방안 모색


보존 처리를 마친 송광사 ‘오십삼불도’의 모습.



송광사 ‘오십삼불도’ 보존처리 전 부분도(사진 왼쪽)와 후 부분도(사진 오른쪽).

문화재적 가치를 발굴하고, 과학적 조사를 통해 유물상태와 재질에 적합한 보존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각각 불화에 맞는 보존처리를 진행했으며, 초본도를 작성해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오십삼불도’는 불화에 맞는 마직물을 열화시키고 염색해 기존 채색에 맞춰 결손부를 메웠다. 그림 위쪽으로 겹쳐 올라간 조작이나 방향이 틀어진 조각의 위치를 찾아 조정했으며, 불화를 족자 형태로 수장고에 걸어 보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장기 보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화면이 배접지에서 분리·박락될 정도로 손상이 심했던 ‘제석천룡도’는 모든 오염물질을 제거해 보존성을 높였다. 금

비지정문화재 보존 첫 사례
가치 발굴해 보물 지정 추진
올해도 불화 2점 보존 진행

속장식 부분에 안료를 쌓는 고봉기법을 통해 입체감을 표현했으나 두께가 있어 탈락 위험이 높아 레이온지와 풀가사리 풀로 고정시켰다. 또한 말아서 보관할 경우 손상이 이뤄질 수 있어 오동나무 장에 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보존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지정문화재 불화가 제대로 된 보존처리를 받은 건 유례가 없는 일로, 향후 중요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존처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불교중앙박물관장 탄탄 스님은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효율적인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축적된 자료를 활용한 비지정문화재의 지정문화재 승격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교중앙박물관은 올해에도 비지정문화재 보존처리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도 화성 용주사 감로도, 안성 석남사 아미타회상도 등 보물급 비지정문화재 불화 2점에 대한 보존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오대산 등불 ‘만화 희찬’ 조명 본격화

월정사·한국불교학회 공동
오는 4월16일 학술대회 열려
만화 스님 위상과 사상 고찰
월정사 복합 유산 등재 논의



한국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월정사를 중창하고 오대산의 수행가풍을 계승하는 데 힘썼던 만화 희찬 스님(1922~1983, 사진)의 수행과 사상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와 (사)한국불교학회(회장 고영섭)는 4월 16일 오후 1시부터 월정사 성보박물관 세미나실에서 만화 희찬 스님 탄신 100년 기념 춘계특별학술대회를 연다.

‘오대산을 지켜낸 만화 희찬’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되며 만화 희찬 스님에 대한 학술적 고찰을 비롯해 오대산과 월정사 일대를 유네스코 복합유산 등재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진다.

이날 학술대회 1부에서는 △‘만화 희찬의 생애 정리’(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 △‘만화의 적광전 중창과 상량문 분석’(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탄허의 수제자로서 만화의 위상과 그 제자들’(박부영 불교신문 부장)이 발표된다.

2부에서는 △‘신효의 월정사 수조(修造)와 사명(寺名)의 특수성 검토’(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 자현 스님) △‘오대산 중요 암자의 위치 및 동선과 시대에 따른 변화양상 검토’(권혁진 오대산 유산기 작업자) △‘오대산의 생태적 특징과 자연유산적 가치’(이민혁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존과 계장) 등 오대산의 역사·생태·문화를 조명하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학술대회의 논평자로는 장성우 동국대 불교학과 외래교수,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김지연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 등이 참여한다.

한국불교학회는 “한암·보문·탄허 스님을 보좌한 만화 희찬 스님은 오대산의 전통을 계승하고 중창시킨 실질적인 버팀목”이라며 “한국불교의 내면을 단단히 하고 외연을 넓히기 위한 일환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여기의 동시대성을 발견하기 위해 대한시대 불교 지성들을 탐구하는 춘계특별학술대회를 마련했다. 불자와 학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1922년 출생한 만화 희찬 스님은 1938년 오대산 상원사로 탄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한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 밑에서 수행정진했다. 한국 전쟁 당시 피난을 가지 않고 한암 스님을 시봉했다. 국군에 의해 월정사가 전소되자 상원사, 월정사 주지를 맡아 탄허 스님을 모시고 중창불사에 매진했다.

제3·4·5·6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조계종 발전을 견인했다. 1981년 11월에는 월정사 회주로 추대됐다. 1983년 12월 11일 상원사에서 세수 64세, 법랍 45세로 원적에 들었다.

신성민 기자

진관사 괘불·괘불함 문화재 등록된다

문화재청 4월 5일 등록예고
“뛰어난 근대기 작품” 평가

서울 진관사 소장 괘불도와 괘불함이 문화재로 등록된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서울 진관사 소장 괘불도 및 괘불함과 고흥 소록도 4.6 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유물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4월 5일 밝혔다.

서울 진관사 소장 괘불도 및 괘불함은 1935년 일섭(日燮, 1900~1975) 스님 등이 조성해 삼각산 삼각사에 봉안했던 것으로, 1960년대부터 서울 진관사에서


서울 은평구 진관사 괘불도.

소장해오고 있다.

해당 유물은 본존을 중심으로 좌우에 협시보살을 배치하고 그 뒤로 부처의 제자인 가섭존자와 아난존자를 배치한 오존도(五尊圖) 형식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무형문화재 제126호 ‘진관사 수륙재’에서 사용하는 대형 불화다.

문화재청은 “존상의 얼굴과 신체, 옷주름 등에 빛을 인식한 명암법을 사용해 그림자를 표현하는 등 근대기의 새로운 표현 기법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수준 높은 작품”이라고 평가하며 “제작연도·제작자·시주자 등이 기록돼 문화재 등록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길 위의 인문학’ 동국대 6년 연속 선정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6년 연속 선정됐다”고 4월 2일 밝혔다.

대학 도서관으로는 유일하게 6년 연속 선정된 동국대는 올해 자유기획형을 비롯해 처음으로 공모한 자유학년제 연계형까지 2개 프로그램에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동국대 중앙도서관(관장 오병욱)은 ‘호모 루덴스(Homo Ludense), 필동(筆洞)의 역사와 놀다’를 주제로 역사문화시민연대(소장 정준영)와 함께 자유기획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자유학년제 연계형 프로그램으로는 ‘호모 레볼루티오(Homo Revolutio), 4차 산업혁명이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동구여자중학교와 덕수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버추얼 과학관 탐방 등 다양한 체험을 준비 중이다.

동국대 중앙도서관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위축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인 만큼, 안전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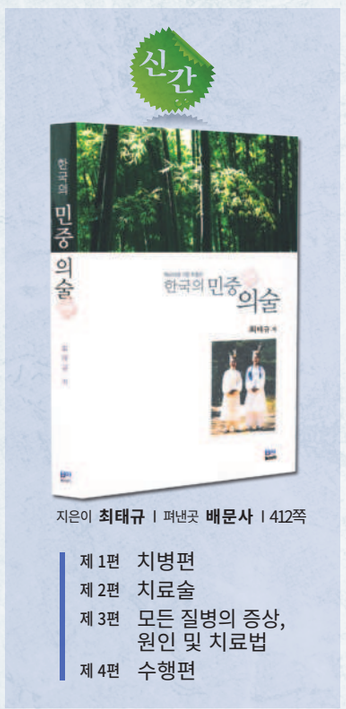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풍요와 복덕을 얻게하는 귀한 선물
천수경(千手經) 액자
인쇄물이 아니라 한 자 한 자 정성을 들여 모필로 써서 만든 것입니다.
붉은 비단에 금색원형으로 천수경을 적어 조형미와 더불어 품격까지 느껴져
주지스님 방이나 거실, 사무실 벽에 걸어놓기에 안성맞춤입니다.


· 작품크기 : 가로 45cm × 세로 45cm
· 바닥재질 : 비단(한지로 배접)
· 구입대상 : 스님, 신도님

천수경이란
천수경(千手經)은 관세음보살의 6번화신 중 하나인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을 신앙하는 경전이다. 천수다라니는 특히 티벳과, 네팔, 인도, 파키스탄은 물론 중국에 걸쳐 여러가지 이본(異本)들이 있는데 그 체제와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다라니의 내용도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송되고 있는 천수경은 가범달마(伽梵達摩)역의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경)을 모태로 한 것인데 우리말로 풀어쓰면 한량없는 손과 눈을 가지신 관세음보살님의 넓고 크고 걸림없는 대자비심을 간직한 큰 다라니경인데 천수다라니를 정성드려 모시거나 수지 독송하고 지키면 시방세계의 모든 불보살이 와서 증명하여 일체업장이 소멸되고 일체 악업과 중죄와 모든 장애를 여의케하며 일체의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증장시키고 이롭고 안락하게 하며 모든 병과 두려움을 없애주고 일체의 귀신이 범접치 못하게 하고 모든일을 성취케하며 구하는 바를 만족케하고 특히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수명이 장수하고 풍요와 복덕을 얻게한다고 한다. 이와같이 천수다라니에는 온갖 공덕이 들어있어 그 대비신력과 위신력의 영험은 한없이 높고 그 신묘함은 불가사의하다고 하여 신묘장구 대다라니라 한다.

문의 055-291-7263, 010-3845-2446 (금액협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00번길 37-15호 도덕정사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신간
한국의 민중의술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14

▶ **15회 예고**
강가강 들판에서 코끼리경주대회가 열린다. 빠딸리뿌뜨라 성민과 왕자 대표가 참가하는 대회였다. 수시마가 출전한다. 열다섯 살의 아쇼까도 갑자기 성민 대표를 대신해서 출전한다. 그런데 아쇼까는 수시마에게 1등을 양보한다.



아쇼까 스승, 빠딸리뿌뜨라성 떠나다

궁중정원 살라나무 숲에는 깃이 노란 노랑할미새가 많았다. 노랑할미새들은 살라나무 숲속에서 부지런히 풀씨 같은 먹이를 쪼아 먹으며 날아다녔다. 살라나무 숲속에 목갈리뿟다띳사가 나타나면 그의 어깨에 노랑할미새가 앉기도 했다. 어떤 날은 산비둘기가 목갈리뿟다띳사 앞에서 길을 안내하듯 종종거렸다. 어린 아쇼까는 이상했다.

'새들이 왜 나에게는 날아오지 않는 거야?'

그날도 목갈리뿟다띳사는 노랑할미새가 자신의 어깨에 앉았는지 모르는 듯 느릿느릿 걷기만 했다. 눈을 지그시 뜬 채 자신의 발을 응시할 뿐이었다. 어린 아쇼까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잰걸음으로 뒤따라갔다. 숲속으로 들어갈수록 새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윽고 목갈리뿟다띳사가 살라나무 숲속 그늘에 앉으며 품속에서 책을 꺼냈다. 산스끄리뜨어 왕자용 교본이었다. 목갈리뿟다띳사가 직접 쓴 왕자용 교본이 아니라 궁중에 전해 내려오는 손바닥만 한 작은 책이었다. 아쇼까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이곳에는 새들이 왜 많아요?"

"소승이 오니까 그렇습니다."

"맞아요. 제가 왔을 때는 새들이 도망쳐버렸어요."

"새들하고 친하게 지내보세요. 소승처럼 여기 올 때마다 이렇게 모이를 주면 새들이 반가워하겠지요."

목갈리뿟다띳사가 호주머니 속에 든 모이를 꺼내 반반한 바위 위에 놓아주었다. 그러자 새들이 몰려왔다. 까마귀부터 산비둘기, 꾀꼬리, 노랑할미새, 참새 순으로 날아와 모이를 순식간에 쪼아먹었다. 그런 뒤 숲속으로 날아갔다. 아주 멀리 날아가지 않고 목갈리뿟다띳사에게 보답이라도 하듯 부근 숲속에서 맑은 소리로 합창을 했다.

"왕자님과 날마다 배우고 있는 산스끄리뜨어도 저 새소리만큼 아름답지요? 아마도 산스끄리뜨어만큼 아름다운 소리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산스끄리뜨어가 새소리 같아요."

"새소리도 그렇고 자연의 모든 소리는 성스럽지요. 따라서 자연의 소리를 내는 산스끄리뜨어도 성스러운 것입니다. 성스러운 언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더욱 흥미를 느끼실 것입니다."

목갈리뿟다띳사는 산스끄리뜨어가 성스럽다고 강조하곤 했다. 그러나 아쇼까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다. 자신이 새들을 다스리는 왕자가 되고 싶었다. 숲속으로 들어왔을 때 자신에게도 새들이 날아오기를 바랐다.

다음날. 아쇼까는 목갈리뿟다띳사보다 먼저 살라나무 숲속으로 와서 반반한 바위 위에 모이를 놓았다. 그런 뒤 살라나무 뒤에 숨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까마귀가 날아와 작은 새들을 깍깍깍 소리치면서 쫓아냈다. 그렇다고 모이를 다 먹는 것은 아니었다. 작은 새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 독수리도 가까이 가지 못했다. 아쇼까는 왕자 별궁으로 돌아와 수시마 이복형에게 가서 새총을 빌렸다. 수시마는 새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아쇼까는 목갈리뿟다띳사가 숲속으로 오기 전에 까마귀를 잡으려고 했다. 새총은 대나무로 만든 것이었다. 새총을 입에 대고 훅 입바람을 불면 작은 화살이 날아가 새를 맞추었다. 그런데 아쇼까는 수시마처럼 새를 잡지 못했다. 입바람이 약해서 화살이 까마귀에게까지 날아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떨어지곤 했다.

아쇼까의 모습을 발견한 목갈리뿟다띳사는 적잖이 실망했다. 어느 해인가 애벌레를 죽이는 아쇼까를 보았을 때보다 더 낙심했다. 살생하지 말라고 자주 가르쳤지만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아쇼까의 습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왕자님, 오늘은 산스끄리뜨어 수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새총은 살생의 도구입니다. 그러니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악업이 됩니다."

"작은 새들이 까마귀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새들을 위해 까마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입니까?"

"까마귀도 작은 새도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살생하면 반드시 언젠가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생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백성을 위하듯 저는 이 숲속에서 사는 작은 새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목갈리뿟다띳사는 아쇼까를 가르치는 데 한계를 절감했다. 아버지 빈두사라를 닮겠다는 아쇼까가 고집을 꺾지 않아서였다. 이후 목갈리뿟다띳사는 아쇼까를 가르칠지 말지 고민했다. 아이답지 않은 아쇼까의 행동은 빈두사라를 실망시킬지도 몰랐다. 빈두사라가 목갈리뿟다띳사에게 아쇼까를 맡긴 까닭도 여러 종교를 체험하게 하여 세상 보는 눈을 키워주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마침내 목갈리뿟다띳사는 단순히 산스끄리뜨어와 수학만 가르친다면 굳이 자신이 아쇼까를 맡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건기인데도 갑자기 비가 내리다가 멎은 어느 날이었다. 말라가던 정원의 푸나무 잎들이 생기를 되찾은 듯 번들거렸다. 다르마 왕비 별궁으로 가는 샛길도 빗방울에 젖어 촉촉했다. 목갈리뿟다띳사는 다르마 왕비를 찾아갔다. 락슈미띳사가 멀리서 오는 목갈리뿟다띳사를 발견하고는 정원 앞까지 달려와 맞이했다.

"사문이시여, 웬일이십니까?"

"왕비님을 뵈러 왔소."

"지금은 안 됩니다. 대왕님께서 별궁에 와 계십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왔으니 밖에서 기다리겠소."

그때 아쇼까가 목갈리뿟다띳사를 보고는 달려와 인사했다.

"산스끄리뜨어를 가르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라다굽따 제관님과 함께 강가강에서 목욕하고 산스끄리뜨어로 기도했어요."

"산스끄리뜨어 자모를 모두 다 외우고 쓸 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목욕하는 것이 더 없이 좋아요. 목욕을 하면 그동안 제가 지은 죄가 다 없어진대요. 라다굽따 제관님이 그랬어요."

목갈리뿟다띳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강물에 목욕하면 지은 죄가 없어진다고 하는 라다굽따의 말은 브라흐민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몸에서 죄가 없어진다는 말은 해탈한다는 뜻이나 같았다. 강물에 몸을 적셔서 해탈한다고 하면 강물에 사는 거북이나 물고기들이 먼저 해탈해야 할 것이었다. 있을 수 없는 궤변이었다. 아쇼까가 별궁으로 가버린 뒤 락슈미띳사가 물었다.

"사문이시여, 왜 그러고 계십니까?"

"나는 아쇼까를 더 이상 어쩌지 못하겠소."

"이곳을 떠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소."

아쇼까가 다르마 왕비에게 알린 듯 궁녀 한 명이 종종걸음으로 왔다. 락슈미띳사를 밤낮으로 보조하는 어린 궁녀였다.

"왕비님께서 접견실로 들어오시라고 합니다."

"대왕님도 계신가?"

"함께 계십니다."

목갈리뿟다띳사는 어린 궁녀의 안내를 받아 접견실로 들어갔다. 예전에도 들어가 본 적이 있었으므로 접견실이 낯설지는 않았다. 빈두사라는 그때나 지금이나 중앙 맞은편 큰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다르마 왕비는 아쇼까와 함께 좌측 의자 앞에 서 있다가 목갈리뿟다띳사를 맞이했다. 빈두사라가 말했다.

"아쇼까의 산스끄리뜨어 실력을 시험해 봤는데 제법이요. 사문이 힘써 수고했기 때문이오. 고맙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옵니다. 지나놓고 보니 사문이 한 일이란 왕자님께 이러쿵저러쿵 지적하고 간섭하는 것뿐이었사옵니다."

"왕자의 선생이니 당연한 일이오."

다르마가 목갈리뿟다띳사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 말했다.

"사문이시여, 아쇼까가 잘못하면 지적하고 간섭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그제야 빈두사라가 아쇼까를 부르면서 정색을 했다.

"아쇼까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솔직히 말해보거라."

아쇼까는 당돌한 성격대로 마치 아버지 빈두사라에게 하소연하듯 말했다.

"살라나무 숲속에서 공부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숲속 새들에게 모이를 준 적이 있는데 그때 힘센 까마귀가 날아와 작은 새들을 쫓았습니다. 까마귀는 작은 새들하고 모이를 나눠먹지 않고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마 형님에게 새총을 빌려와 까마귀를 쫓았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벌하지 않사옵니까?"

"네 말도 일리는 있다만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사문께서는 새총을 쏘아 까마귀를 쫓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사옵니다."

빈두사라는 웃었다. 그러나 다르마는 울상을 지으며 쩔쩔맸다. 다르마가 말했다.

"아쇼까야, 새총을 쏘아 까마귀가 죽으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예전에 네가 애벌레를 죽일 때도 사문께서는 몹시 걱정하셨단다.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란다."

"어머니, 저는 살아 있는 작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그랬어요."

아쇼까는 빈두사라가 있어 그런지 아이답지 않게 거침없이 말했다. 아쇼까의 말을 웃으며 듣던 빈두사라가 목갈리뿟다띳사에게 물었다.

"아쇼까의 말이 틀렸다면 말해보시오."

"대왕이시여. 살생은 정당화되지 않사옵니다. 살생을 하면 반드시 과보를 받사옵니다. 그래서 살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따마 붓다의 가르침이옵니다."

"다른 나라가 침략해 왔을 때 우리 백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살생하는 것도 과보를 받는단 말이오?"

"그렇사옵니다."

빈두사라가 어이없다는 듯 입을 다물었다. 목갈리뿟다띳사를 존경하는 다르마만이 안절부절못했다.

"아쇼까야, 너를 위해 궁에 들어온 사문을 믿고 따라야지, 네 생각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어머니, 저는 라다굽따 제관님이 좋아요. 강가강에서 목욕하면 제가 애벌레를 죽인 죄도 다 없어진다고 했어요."

이윽고 빈두사라가 말했다.

"사문의 말도 옳고 네 말도 옳다."

그러나 빈두사라는 마음속으로 어린 아들이지만 아쇼까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벌써부터 어른들의 세계를 엿보고 있기 때문이었다. 빈두사라가 목갈리뿟다띳사를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사문의 의견을 존중함에는 변함이 없소."

목갈리뿟다띳사가 눈을 감은 채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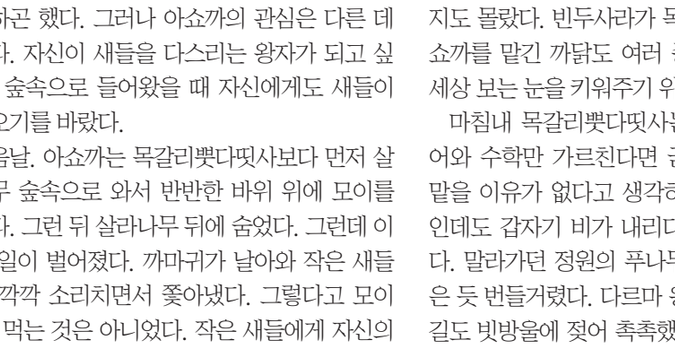
"대왕이시여, 왕자님과 소승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이옵니다. 고따마 붓다의 가르침을 외면할 수 없으니 소승은 궁을 떠나겠사옵니다. 허락해주시옵소서."

"사문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방금 말했으니 달리 방도가 없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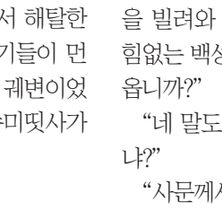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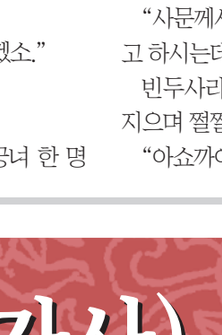
빈두사라는 만류하고 싶었지만 왕의 체통을 생각해서 참았다. 벌써부터 선생을 내치는 아쇼까가 웃자라는 것 같아 놀라울 뿐이었다. 다르마 왕비만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소연했다.

"사문이시여, 저는 아쇼까를 자비로운 왕자로 키우고 싶습니다. 궁에 남기를 청하니 한 번 더 생각해주십시오. 제 꿈은 오직 아쇼까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문께서는 아쇼까를 맡아 주십시오."

그러나 고따마 붓다의 가르침을 생명처럼 수행해온 목갈리뿟다띳사는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았다. 그날밤 빠딸리뿌뜨라 내성의 보리수 아래서 하룻밤을 묵고는 자신의 원래 수행처인 베살리 산속으로 돌아가버렸다. 〈계속〉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연꽃칠성촛대 연꽃촛대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꽃 크리스탈 촛대
양초 보시 대행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만복승복(가사)
특허권자가 승복을 지으면 뭔가 다릅니다!!
본 승복사는 가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업체입니다. 가사를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더 멋있는 가사를 지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업체입니다. 만복사(승복사)는 미싱 가사가 아닌 수가사식으로 지은 전통 3땀 가사이오며, 타 업체 가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가사의 가로, 세로의 크기가 거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 놓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땀 가사로 발명특허까지 출원하여 많은 스님들께서 좋아하십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전용 3땀

만복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제일시장 내)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킴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www.garden-heating.com 문의 010-3267-1263

박희승의 禪, 세상을 만나다 ❼ 〈금강경〉과 선 ㊦



▶ 한줄 요약
뗏목과 같은 불법, 선으로 전해지다.

중도, '머무는 바 없는 마음'

산 중에 산이 금강산이고, 경전 중의 경전이 〈금강경〉이다. 〈금강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이다.

이 무주(無住)의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中道)이다. 앞서 우리는 부처님이 초전법륜에서 중도를 깨달았노라 한 '중도대선언' 을 기억할 것이다. 부처님이 첫 설법에서 말씀하신 중도가 바로 〈금강경〉에서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이다.

우리 마음이 '나-너' '있다-없다' '선-악' 등의 양변에 머물지 않는 마음을 지(止, 사마타)라 하고, 그 머무름 없는 마음에서 관(觀, 위빠사나)이 나온다. 이 지관, 사마타 위빠사나를 〈금강경〉에서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이것이 양극단을 버린 중도이고 천태종에서는 쌍차쌍조(雙遮雙照), 화엄종에서는 적광(寂光)이라 하고 선종에서는 정혜(定慧), 살활(殺活)이라 말한다.

부처님의 많은 경전과 불교의 다양한 사상이 있지만, 모두 근본은 중도이고, 〈금강경〉의 말씀도 중도가 근본이다. 그동안 불교 연구자들이 〈금강경〉의 핵심 사상이 공이라거나 반야라 하지만, 필자가 보기엔 중도 사상이다. 물론 알고 보면 공과 반야가 곧 중도이니 불법은 하나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 장로가 '깨달음으로 가는 중생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는 물음에 대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나는 삶' 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금강반야 지혜' 로 다이아몬드 같이 단단하고 빛나는 마음이다. 부처님은 '내가 있다는 생각에도 머물지 말고, 내가 사람이다, 중생이다, 영혼이 있다는 상(相)에도 머물지 말라' 고 하신다. 더 나아가 남을 돕고 보시할 때도 집착과 머무름 없는 마음을 이르시며, 이렇게 하면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있을 것이고 마침내 궁극적인 깨달음을 성취할 것이라고 하신다.

이것이 바로 금강반야바라밀행이다.

코로나 대유행 시대에 금강 지혜를 밝힌다면, 코로나의 두려움에도 머물지 않게 된다. 평상심으로 방역지침을 잘 지키며 남을 배려 · 존중하는 삶이 바로 그 것이다. 나아가 인간의 탐욕으로 빚어진 지구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에 따른 문명사적인 위기와 경제적, 정치적 양극화에 대하여 정견을 굳건히 해 여와 야, 갑과 을, 노와 사에 집착하거나 머물지 않고 다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되는 것이다.

〈금강경〉과 혜능 선사의 깨달음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강지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영원하다. 이 〈금강경〉을 듣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들이 깨달아 영원한 대자유를 누렸다.

그 중에 유명한 이가 선종의 6조 혜능 선사다. 〈금강경〉이 설해진 지 약 1000여 년이 지나 동아시아 당나라에 무지랭이 나뭇꾼 혜능이 있었다. 그는 우연히 여관에서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는 문득 발심 출가하여 동산으로 간다. 당시 동산에는 오조 홍인 대사가 〈금강경〉 한 권으로 부처되는 설법을 하고 있었다. 혜능이 오자 홍인 대사는 글자를 모르니 방앗간 일을 시킨다. 8개월 동안 방앗간에서 일만 하던 행자 혜능은 어느 날 교수사 신수대사가 지은 게송이 아직 깨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하고 게송을 하나 지어 글 아는 이에게 부탁하여 써놓았다.

이것을 본 홍인 대사는 야밤에 방앗간 행자를 몰래 불러서 〈금강경〉을 읽어준다.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는 대목에 이르러 혜능이 확철대오한다. 오조 홍인 대사는 혜능의 깨달음을 인가한다. 이 소설 같은 이야기는 선종의 바이블로 불리는 〈육조단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선문에 전해오는 역사고 전설이다.

마음지혜를 바로 깨치는
언어도단의 참된 가르침
선의 근간으로 전해지다

당시 동산에는 오조 홍인 대사 문하에 상수제자 신수를 비롯하여 1000여 수행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째서 문자도 모르는 무식한 행자 혜능이 불교 경전에 해박한 신수 대사를 제치고 깨침을 인가 받았을까?

"나의 설법은 뗏목이다"는 가르침

여기에 불교와 선의 깊고 미묘한 뜻이 있다. 그 깊은 뜻이 잘 드러난 경이 바로 〈금강경〉이다.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란 문자를 안다와 모른다, 학식이 있다와 없다는 양변에 집착을 떠난 중도의 마음을 말한다. 혜능은 문자를 몰랐고 학식도 없었지만, 마음을 바로 깨친 것이다. 혜능은 오직 방앗간에서 일만 하다가 오조 홍인 대사의 〈금강경〉을 읽어주는 말을 듣고 깨친 것이다.

선종 역사는 분명 혜능 행자의 깨달음을 증명하고 있고, 선종의 6조로 확증되어 〈육조단경〉이라는 선종의 교과서로 전해지고 있다. 더구나 우리 한국불교의 장자 종단 대한불교조계종과 조계사의 '조계(曹溪)' 가 바로 육조 혜능대사의 사상을 받들고 수행하는 종단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혜능 행자의 깨달음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혜능이 〈금강경〉을 듣고 깨쳤고, 후학들에게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삼아 가르쳤으니 우리는 〈금강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충격적인 말을 한다.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내가 설한 바 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래를 비방하는 것이다.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는 없다."

이런 설법에 많은 불자들이 혼란스러워 불교가 어렵다고 한다. 우리는 부처님이 깨달은 거룩한 분이고, 그 말씀은 진리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불교는 그런 가르침의 종교가 아니다. 성스럽고 고귀한 것이 실제로는 없다는 무상(無相)과 나라고 할 것도 없다는 무아(無我)를 설한다. 그러니 내가 중생이고 영혼이 있다는 견해도 착각이니 떠나라 한다. 심지어 깨달을 법이 있다는 생각도 부처도 집착하지 말라 한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어떤 법도 깨달음도 설법도 집착하지 말라 하면서 마침내 당신의 설법도 마음을 깨치는 뗏목일 뿐이라 한다. 부처님의 설법은 결국, 경전의 글자와 말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바로 깨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중국 광동성 남화선사 조전에 있는 육조 혜능 선사 진신상.

마음을 바로 깨치는 禪

〈금강경〉의 이런 가르침은 선의 '살불살조(殺佛殺祖)' 정신으로 이어진다. 부처도 조사도 법에도 집착하지 않고 오직 자기 마음을 깨쳐 부처되는 길이 최상승이라는 것이다. 불교의 다양한 깨달음의 길 중에 선은 마음을 바로 깨치고 행하는 불교다. 선의 종지라는 '불립문자(不立文字)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이 바로 그런 뜻이다. 문자를 세우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 함은 〈금강경〉의 "불법이 불법이 아니라 이름이 불법"일 뿐, "부처가 부처가 아니라 이름이 부처"라는 그 마음을 바로 깨치는 길이다.

그러므로, 〈금강경〉은 문자를 알고 모르고, 배움이 있고 없고 하는 분별을 떠나 마음을 깨치고 행하는 길을 제시한다. 오직 부처가 되고자 발심 출가한 혜능 행자는 문자도 몰랐고, 경전 공부도 없었지만, 그것이 깨달음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었으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는 말을 듣고 마음을 단박에 깨칠 수 있었다.

선종의 육조가 된 혜능 대사는 〈금강경 해의(解義)〉라는 주옥같은 법어를 남겼다. 우리나라에서 한글(언해)로 가장 먼저 역경 편찬된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다. 조선 세조가 지시하여 당시 대학자들이 역경 편찬한 〈금강경 언해〉에는 흥미롭게도 〈금강경〉 한문과 언해 외에 〈육조 해의〉가 수록되어 있으니 조선 초기까지도 〈금강경〉과 육조 혜능대사의 가르침을 둘로 보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禪과 〈금강경〉에 대한 오해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도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한 철학자 도올 선생은 〈금강경 강해〉에서 이렇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금강경〉이야말로 선종의 기초경전인 것인냥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건대, 〈금강경〉과 선종은 역사적으로 일푼어치의 직접적 관련도 없다.…禪이란 본시, 중국의 당대에나 내려와서, 이전의 일체의 교학불교를 부정하는데서 생겨난 不立文字, 直指人心의 아주 래디컬한 토착적 운동이고 보면, 禪은 문자로 쓰인 모든 경전을 부정하는 일종의 반불교운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도올 선생은 〈금강경〉을 '인류 최고의 지혜서' 라 하여 그 가치를 높이 보는 것은 불자들과 인식이 일치한다. 하지만, 〈금강경〉이 선종의 소의경전이라는 사실은 부정한다. 도올이 〈금강경〉과 선종의 관계를 저토록 부정하는 이유는 禪을 중국에서 탄생한 '모든 경전을 부정하는 반불교운동' 이라 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禪은 불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자의 인식이라 하기엔 안타깝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그런데 돌아보면 도올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불교계 안에도 남방 상좌부승가에서 공부하고 온 일부 스님과 재가불자들조차 선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 중국에서 도교와 만나 탄생한 변종 불교라 폄하한다.

동아시아 불교 사상문화의 중심이고 한국불교의 유구한 선 사상을 이렇게까지 부정하는 것은 곧 자기 부정이 아닐까? 이런 견해를 가진 분들은 자기 안의 빛나는 보배를 보지 못하고 밖으로 귀한 것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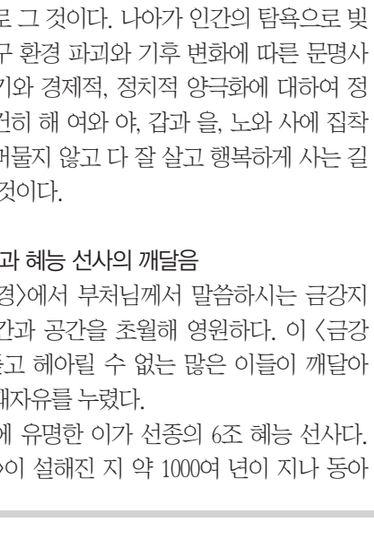
우리는 지금까지 초기경전인 〈초전법륜경〉과 〈가전연경〉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도라는 것과 〈금강경〉의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는 말씀이 회통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선은 이처럼 부처님이 깨친 중도를 마음으로 체험하고 행으로 실천하는 길이다.

"나의 설법이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불교인재원 교수〉

"불교란 무엇인가?
그리스 왕이 묻고 인도 고승이 답하다!"

화제의 신간



밀린다 왕의 물음
Milinda Panha

밀린다 왕의 물음

알렉산더의 후예인 그리스 왕 밀린다와
불교에 정통한 인도 고승 나가세나의 주옥 같은 대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유려한 우리말로 풀어쓴
〈밀린다팡하〉역해서!

이 책은 불교에 회의적인 서구인들이 내게 묻는 대부분의 질문들에 답하고 있다.

〈밀린다 왕의 물음〉이 인도 산문의 위대한 걸작 중의 하나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문학적 견지에서도 어느 나라의 어떤 책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서정형 역해 / 288쪽 / 14,600원



나가세나

밀린다 왕 : 사람의 지혜는 어디에 머물니까?
나가세나 : 머무는 데가 없습니다.
밀린다 왕 : 그렇다면 지혜라는 건 없군요.
나가세나 : 바람은 어디에 머물니까?
밀린다 왕 : 머무는 데가 없습니다.
나가세나 : 그럼 바람은 없습니까?

서정형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에서 20여 년 불교와 철학개론을 강의했고,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공감라소통 전화 031-942-9472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주·야 상담합니다
조형물·동상·작품 모든 주물 가능함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 031)641-2747, 010-5302-1022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0여분 전시중!

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❼ 〈석보상절〉 3권: 싯달타 태자의 수업



▶ 한줄요약

싯달타 왕자는 7살에 태자로 책봉되고 500여 석씨 아이들과 교육을 받는다. 싯달타 왕자가 학당에 들어서자 스승은 자신도 모르게 일어서서 절을 하고, 그 비범함에 대한 찬시를 읊었다.

비범한 태자, 스승을 뛰어넘다

어느덧 4월이고 도처에 울긋불긋 꽃대궐을 이루고 있다. 싯달타 출가를 막기 위한 '삼시궁'의 모습이 이러할까. 이제 싯달타 왕자는 일곱 살이 되어 태자로 책봉되고 본격적인 전륜성왕의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하나를 가르치기 전에 이미 백가지를 알아 오히려 스승을 가르치는 태자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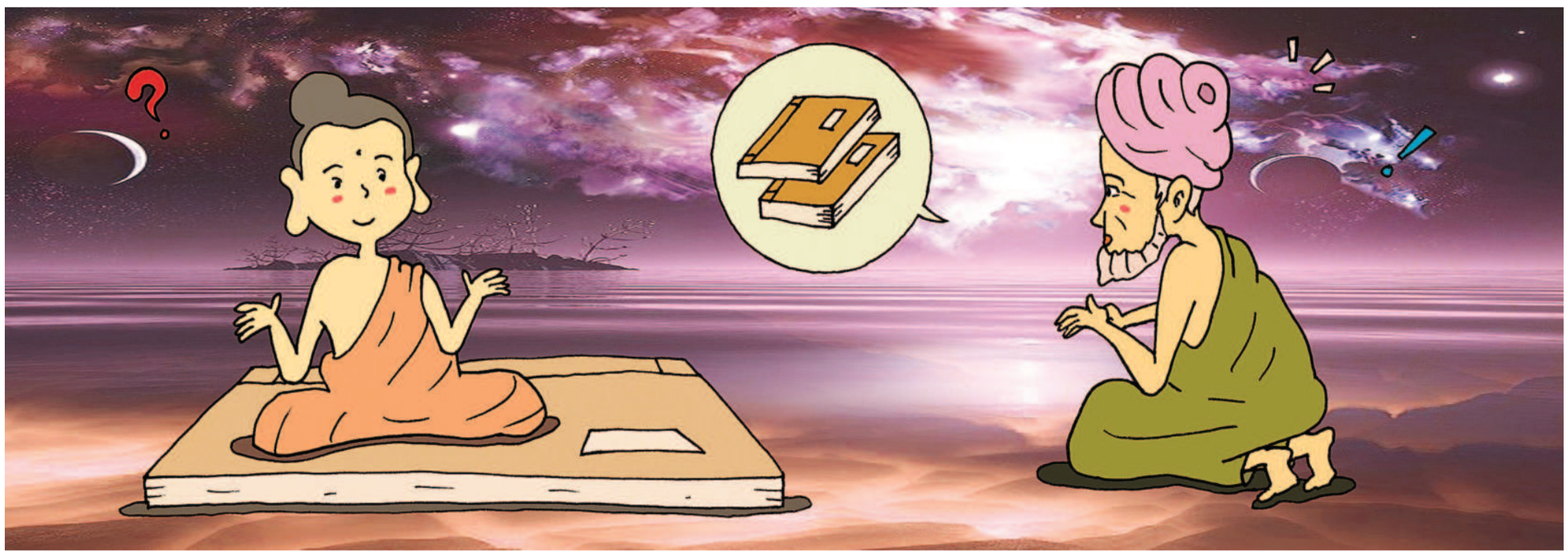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삼십사장

사해(四海)의 바닷물을 이고 오거늘 태자의 머리에 붓고 태자를 세우셨습니다.

금륜보(金輪寶)가 날아가거늘 천하(天下)가 알고 나라들이 다 항복해 오셨습니다.

태자를 위하여 신하들이 동서남북 사해의 바닷물을 길어오니 정반왕께서 아들 싯달타의 머리에 물을 붓는 관정의식을 하고 태자로 책봉하셨습니다.

전륜성왕의 상징인 금륜보는 보는 나라들마다 항복하게 되니 천하의 나라들이 모두 조복하게 되었습니다.

〈월인천강지곡〉 제34장의 내용으로 석보상절 권3의 태자 책봉의식을 노래로 요약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태자수업을 하기 위하여 스승을 구하고 공부하는 과정이 그려진다. 그야말로 석보상절 중 '자세히 할 상(詳)'으로 나열된다. 깨알같이 묘사된 내용은 잘 기억해 두었다가 변상도를 그려보고 싶을 만큼 눈에 선하다.

태자의 스승 비사바밀다라

왕이 백관을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천하에 그 누구가 지혜있고 재주를 갖추어 태자의 스승이 되겠는가."

모두 사뢰었다. "비사바밀다라(毗奢波 蜜多羅) 야말로 가장 현명합니다."

왕이 비사바밀다라를 불러 말씀하셨다. "존자가 날 위하여 태자의 스승이 되어 주시오."

밀다라가 말씀드렸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관(百官)'은 백 군데의 관청이니 큰 신하를 이르는 것이다. 이때 부처의 나이 일곱이시니 주나라 소왕 32년(B.C.962년) 경신이다. '존자(尊者)'는 존귀하신 분이라는 말이니 어진 사람을 공경하여 존자라고 하는 것이다.

역시 〈석보상절〉 사전인 '협주'에서 '백관'과 '존자'의 정의를 친절하고 쉽게 풀이하고 있다. 싯달타 태자의 스승으로 추천된 비사바밀다라(Visvamitra)는 '우주(Visva)의 친구(mitra)'라는 의미로 크샤트리아 출신인데 극심한 고행 끝에 범선(梵仙)이 되었다고 한다. 베다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싯달타 태자가 크샤트리아(찰제리종)이고 출가하여 고행 끝에 붓다가 되는 과정과 비슷한 스승 밀다라의 행적도 눈여겨 볼 만하다.

학업 시작과 신동 태자

태자가 동남동녀를 데리고 오백 석씨 아동들이 앞뒤로 둘러싸고 학당에 오르실 때 밀다라가 바라보고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 태자께 절하시고 두루 돌아보며 부끄러워하였다.

동남(童男)은 남자 아이요 동녀는 여자 아이다. 석동(釋童)은 석씨 성을 가진 아이들이다. 학당(學堂)은 글 배우는 집이다. 〈석보상절〉 협주의 설명이다. 학당은 '글 배우는 집'이라니 정겹고 다정한 풀이가 아닌가.

이렇게 태자는 같은 또래의 취학 연령의 석 씨 아이들 500명과 공부를 시작한다. 왕자니까 독선생을 모셔와 홈스쿨링을 할 줄 알았더니 학교 교육인 것이 또한 흥미롭다.

한편 스승 밀다라는 태자를 보고 'ᄒᆞ가라없이' 일어나 학생에게 절을 하고 부끄러워하는 장면을 연출한다. 'ᄒᆞ가라없이'는 뜻을 잘 모르는 15세기 단어이지만 〈불본행집경〉에는 '종좌홀기(從座忽起)'라고 나와 있어 '나도 모르게 홀연히' 정도의 뜻으로 유추할 수 있다. 혹시 지방 방언에서 아직 사용하고 있을지 모를 이 용례를 알고 있는 독자가 있다면 꼭 연락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말이 되살아난다면 참 좋겠다.

어쨌든 스승은 가르쳐야 할 학동인 태자를 보고 그 위의에 저절로 일어나 절을 하고 자신이 스승이 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해 부끄러워하였다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첫 문답 장면에서 스승은 완전 K.O 패를 당한다.

태자가 글 배우기를 시작하여 명주(明珠) 서안(書案)에 우두전단향 칠보 서판을 놓으시고 금붓을 잡으시고 글을 쓰며 물으셨다. "무슨 글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싯달타 왕자, 7살에 태자 책봉
500명 석씨 일족과 동문 수학
태자 나타나자 스승 무릎꿇어
"뭇 글을 전부 통달" 찬시 내려

밀다라가 대답하였다. "범서와 거류서로 가르치려 합니다."

태자가 말씀하셨다. "글이 예순 네가지가 있으니 어찌 다만 두 가지입니까." 하시고 다 헤아려 이르셨다.

스승 밀다라가 항복하고 게송을 지어 찬탄하였다.

명주는 맑은 구슬이니 명주 서안은 명주로 꾸민 서안이다. 서판(書板)은 글쓰시는 널판이니 칠보 서판은 우두전단향나무로 만든 서판에 칠보로 꾸민 것이다.

예순 네가지 글은 범서, 거류서, 불가라서, 안거서, 만거서, 호중서, 취서, 반서, 구여서, 질견서, 타비라서, 이적색서, 타여서, 강거서, 최상서, 진서, 흉노서, 중간자서, 유기다서, 부사부서, 천서, 용서, 귀서, 건답화서, 진다라서, 마휴륵서, 아수륜서, 가루라서, 녹륜서, 언선서, 천복서, 풍서, 항복서, 북방천하서, 구나니천하서, 동방천하서, 거서, 하서, 요서, 견고서, 타아서, 득주서, 염거서, 무여서, 전수서, 전안서, 폐구서, 상서, 차근서, 내지서, 도친서, 중어서, 실멸서, 음서, 전세서, 치우서, 선적지서, 관공서, 일체약서, 선수서, 섭취서, 배향서이다.

이상은 협주의 내용이다. 〈불설보요경〉 제7권에서는 오히려 스승이 책의 종류를 묻고 태자가 답하는 형식으로 64종의 책을 열거하고 있다. 이 책들은 〈불설태자서응본기경〉에서는 스승이 말한 500권의 책 다음에 범서(梵書)를 태자가 소개하며 범왕이 전륭왕이 될 줄 알고 자신에게 전한 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름이 전해지는 것만으로도 압도되는 이 64종의 책을 모두 연구한다면 당시 학문의 세계가 도도하게 펼쳐질 것이다.

스승은 바로 두 손들고 태자가 신동을 넘어 하늘의 스승인데 어찌 가르치겠냐며 그를 기리는 찬탄의 시를 읊는다. 〈불설보요경〉에 다음과 같이 그 찬시가 전해지고 있다.

미치기 어렵도다, 참되고 깨끗하며 높으신 이여/ 세상에 계시면서 가엾이 여김 일으키어/ 온갖 법전을 모두 배우셨으면서/ 현재 서당 안에 드셨나이다.

모든 글의 이름을 다 말씀하셨지만/ 저는 근본과 끝도 모르옵니다./ 이 뭇 글을 모두 통달했으면서도/ 일부러 또 배움에 들어옴을 보이셨소.

감히 그 정수리를 살펴보지 못하고/ 사람만을 살피면서 예배할 뿐이오며/ 어떻게 크신 성인께/ 모든 글과 산수를 말씀하게 되오리까.

하늘 중의 하늘이라 하늘보다 뛰어나서/ 여러 하늘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며/ 지극히 높아서 짝할 이 없고/ 세상에서도 비유할 수 없나이다.

이러한 위신(威神)으로써/ 엄숙하고 깨끗하게 좋은 방편 쓰시옵는데/ 누가 능히 맑고 밝음을 미치오리까./ 모든 세간들을 다 제도하오리다.

이 내용을 〈월인천강지곡〉에서는 다음과 같이 35장에 담았다.

삼십오장

밀다라는 두 책을 배워서 알기 때문에 태자께 가르치지 못합니다.

태자는 예순 네 책을 배우지 않아도 아시므로 밀다라를 또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스승과 제자의 역할이 뒤바뀌는 싯달타 태자의 학교 수업 이야기는 비범한 왕자 탄생부터 예견된 바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흥미롭다. 7살 어린 왕자 앞에서 쩔쩔매는 훈장은 마치 김홍도의 서당풍경을 비틀어 반전의 그림을 보는 것 같다. 훈장님 자리에 태자가 앉고 훈장님이 그 앞에서 글 못 외워 야단맞는 학동처럼 쩔쩔매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라. 또한 〈월인천강지곡〉의 내용은 〈논어〉에서 배워서 아는 이(學而知之) 밀다라와 태어나면서 아는 이(生而知之) 태자의 경우로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다. 애써서 배우는 이(困而學之)들인 우리 범부들이 보기에는 까마득한 경지이지만 그래도 이러한 천재와 성인들이 있어 세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아닌가.

다음에 이어지는 태자의 배우자를 얻는 과정 또한 우리 상식의 허를 찌르는 이야기로 예사롭지 않게 전개된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최재희의 인물로 본 미얀마 ④ 번역가 먀닌이세인(Mya Hnin Yee Shein)



▶ 한줄 요약
이미 6권의 한국책을 미얀마어로 번역한 먀닌이세인 씨는 불서번역의 인연이 닿길 기다리고 있다.

한국서적 미얀마어로 번역하며 가교 역할

한 나라의 문학을 번역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단순한 글일지라도, 한 나라의 상황과 가치관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파악하지 못할 뉘앙스가 담겨 있을 수 있다. 언어를 할 줄 안다고 훌륭한 번역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전 세계에 진출하면서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의 언어를 번역하는 번역가, 작가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2016년 맨부커상 인터네셔널 부문'에서 수상할 때까지 런던대학에서 한국학을 공부한 '데보라 스미스'의 역할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아무리 한국의 작품이 훌륭해도 다른 나라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깊이를 제대로 아는 '번역가'가 없다면 우리나라의 작품이 해외에서 인정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미얀마에서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통역'을 잘하는 미얀마 사람들은 여럿 보았지만 '번역'을 잘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 특히나 한국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노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만났지만, 책과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은 많지 않았다. 사실 한국책을 미얀마에서 접하는 일은 양곤외대 학생이거나 주변에 한국 사람들이 책을 주지 않는 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얀마의 쿠데타로 인해 한국에서 미얀마 유학생들을 다양하게 만날 일이 늘어나면서 미얀마에서 자신의 선배와 함께 한국 책을 6권이나 번역을 하고 에니어그램 기초 책을 미얀마어로 저술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먀닌이세인(Mya Hnin Yee Shein)'을 알게 되었다.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먀닌이세인 씨.



지난 4월 7일 경기도가 주관한 재한미얀마유학생연합회 정담회에 참석했다.



먀닌이세인 씨가 그동안 미얀마어로 번역한 한국책들.

그가 번역한 책은 〈디테일이 강해야 산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격려〉, 〈링컨 대통령〉, 〈땅콩박사 조지카버〉, 〈이제는 실행하라〉, 〈경청〉이다. 자신은 불자(佛者)이기 때문에 불교와 관련된 한국 책도 향후에는 번역하고 싶다며 두 눈을 반짝이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양곤외국어대학교에서 한국어를 4년동안 전공하고 미얀마에 있는 한국분과 인연이 닿아 미얀마 출판사에서 한국책을 4년동안 6권을 번역할 수 있었다. 그의 최종 꿈은 미얀마 사람들에게 '열정과 힘'을 주는 책을 쓰고 싶은 '작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책을 번역할 때 미얀마 청소년들이 읽으면 좋을 '교훈'과 '힘'을 주는 책을 번역했다.

미얀마에서는 오랫동안 군부독재기간 동안 미디어에 관한 학문도 발전하지 못 했다. 자신이 배운 한국어를 쓰면서 한국어 실력을 키우고 한국생활을 직접 하고 싶어 유학을 왔다. 작가라는 꿈을 키우기 위해 '언어'의 전공을 넘어 다른 전공도 배워서 배움의 외연을 넓히고 싶어 한국에는 미디어와 관련한 전공으로 유학을 왔다. 다시 미얀마로 돌아가면 작가라는 꿈과 함께 미얀마의 미디어와 관련한 언론 학문의 폭을 넓히고 싶다는 큰 꿈을 가진 그의 삶의 앞에 미얀마 군부 쿠데타라는 본국의 악화된 상황이 놓여 졌다. 요즘 들어 그에게 '명상'은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보호막과도 같다.

불교는 자신의 또다른 목숨처럼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긴다. 9살 때 몸이 크게 아팠고 대학생때도 자주 쓰러지고 아팠다. 어린 시절 아픈 몸을 이끌고 어머니와 함께 절에 가서 스님 법문도 듣고 명상을 하기는 했지만, 그의 삶 속에서 부처님 법이 살아 움직이지는 못 했다. 대학생 때 기숙사에서 만난 한 친구를 만나면서, 부처님 법이 자신의 삶 속에서 깨어났다. 아팠던 몸이 나아지고 건강해지는 경험을 하면서 부처님 법은 그에게 자신의 목숨처럼 소중한 진리가 되었다.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던 친구는 자기 전에도 늘 명상을 했고, 불교 교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친구와 함께 명상을 하면서 부처님 말씀 중에 "자귀의 법귀의(自歸依 法歸依)"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되었다. 하루 하루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자신의 아픈 몸과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주변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챙김을 스스로 하면서 마음이 많이 깨끗해지기 시작했고, 명상을 하면서 몸이 아픈 것이 없어져서 한국에 유학을 올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졌다. 그 전에도 말로는 불자였지만, 명상을 통해 삶에서 부처님 법대로 살다 보니 진실한 불자가 되었다.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 순간 마음챙김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이 아파 고통을 받다가 건강해진 그는 온 몸으로 체험했다며 '마음챙김'의 중요성을 삶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며 강조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달 반 만에 큰 오빠도 해외에서 일하다가 죽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린 시절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 헤어짐을 통해 더 큰 고통에 빠지지 않은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큰 힘이 되었다.

양곤외대 한국어과 전공한 유망주
미얀마 출판사서 한국번역서 출판
독실한 불자로 '마음 수행' 지속해
민주주의 발원하며 의지 다지기도

미얀마 쿠데타로 고통받는 현 시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스스로의 보호막은 스스로의 자신이다"라는 말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미얀마 현재 상황과 잘 맞는 것 같다며, 자신은 이 두가지 말을 늘 마음 속에 새기며 한국에서 어려운 미얀마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또 학업과 함께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한국에서 끝까지 마음의 용기를 잃지 않고 싸울 것이라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현재 미얀마 사태로 인해 "마음"의 힘이 약해지는 사람들에게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당부하고 싶다며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를 보니, 부처님 법이 얼마나 미얀마 사람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그에게 "미얀마에서 불자답게 산다는 것의 어떤 의미인가요"라는 질문을 건넸다.

"'불자답게 살아간다'라는 말은 늘 조심스럽지만, 순간 순간의 알아차림을 통해,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과 진리를 스스로 알아내고,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이 불자답게 사는 것 같습니다. 또한 평생 노력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것을 노력하는 일입니다. 저는 '알아차림'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도 관리합니다. 제가 이대 기숙사에서 명상을 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이슬람, 기독교 친구들도 따라서 명상을 합니다. 다른 종교 친구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알려줍니다. 모든 종교가 이야기 하는 점이기도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도 불자답게 살아가는 것 중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얀마에서 발생한 쿠데타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얀마 현재를 살아가는 미얀마 청년에게도 부처님 법은 자신의 목숨과도 소중하다. 한국의 책을 6권이나 번역한 번역가이자, 미래의 미얀마의 작가이자 언론 전문가가 될 먀닌인세인이 한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한국의 문화와 한국 문화와 역사 속에 담겨진 불교의 역사와 흔적까지 제대로 배워간다면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미얀마의 한국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양곤대 박사과정〉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법화경 수지하는 사람도 공양해야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⑭ 부처님의 심부름

그때 세존이 게송을 읊어 이르셨다.

"부처의 도에 안주하여 자연스럽게 지혜 이루려면 '묘법연화'의 가르침을 수지하는 사람을 공양할 것이며, 속히 일체종지(一切種智)를 얻고 싶거든, 이 가르침을 수지하며, 수지하는 사람에도 공양을 베풀라. 만약 능히 법화의 가르침을 수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처님의 사자로서 중생을 연민하게 여기는 자이니라. 법화의 가르침을 수지하는 모든 사람은 청정한 땅 떠나와 중생 때문에 여기에 태어나느니, 이런 이는 마음대로 태어날 수 있기에 이 험악한 세상에 태어나 위없는 법을 설하느니라. 하늘의 꽃과 향과 보배와 의복, 보배의 무더기로 공양해야 할 것이니라. 내가 열반에 든 뒤 험악한 세상에서 이 법화의 가르침을 수지하는 자에게 합장하고 공경하기 세존을 공양하듯 하여 여러 맛난 음식과 갖가지 의복으로 공양 올리고 잠시라도 법문 듣기를 원할 것이니, 후세에서 이 묘법연화의 가르침을 능히 수지하는 사람은 내가 심부름 보내 여래의 일하게 하는 사람이니라."

'법사품'에 나오는 이 대목은 〈법화경〉을 수지하는 사람에게 공양하라는 권고하는 내용이며 그것이 부처님의 심부름을 하는 일이라고 하고 있다. 대승경전을 대표하는 〈법화경〉이나 〈화엄경〉에서는 불법을 믿는 신심을 지극히 하여 신앙으로 승화하도록 유도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온다. '약왕보살본사품'에는 약왕보살의 전신인 일체중생희견보살이 팔을 태워 소신공양(燒身供養)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등신불(等身佛)'이란 말도 있듯이 몸을 태워 공양을 한다는 것은 법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희생이요 일종의 순교자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자타카〉에 나오는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이야기에도 대비(大悲)를 실천하며 몸을 희생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짐승을 살려주기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법화경〉에서는 작은 일 하나가 성불의 인연이 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어린 아이가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부처님 형상 비슷하게 그리면 이것이 장차 성불하게 될 인연이 된다고 하고 또 진흙을 빚어 장난감을 만들 때 그 모양이 부처님을 닮았으면 이것도 성불의 인연이 된다고 말했다.

〈법화경〉은 대승불교의 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불교의 신앙체계를 형성하는 전거(典據)가 되는 경전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관음신앙이 〈법화경〉의 '관세음보살보문품'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이 '관세음보살보문품'을 별도로 유통시켜 〈관음경〉이라 하기도 하였다. 이 경에 관세음보살이 32응신을 하면서 중생들의 고난을 해결해 주는 위신력이 있다는 것을 설하고 있다. 중생에게 닥치는 불길한 재난의 요소들을 관세음보살을 일념으로 지극히 부르면 그 고난을 벗어나게 된다는 불가사의한 위력을 설하고 있다. 〈법화경〉이나 〈화엄경〉 등에서 수많은 보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중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4대보살이 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지장보살이다. 우리나라 예불문에도 이 4대보살의 명호가 들어 있다. 문수와 보현은 〈화엄경〉 주불인 비로자나의 좌우협시 보살로 문수는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은 행원을 상징한다. 관세음보살은 자비를 상징하는 보살로 모성(母性)을 갖춘 보살로 인식된다. 지장보살은 대비천제(大悲闡提)로 악도의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성불을 포기한 보살이다. 그래서 대비심이 지극하여 지옥 중생을 먼저 제도하기 위하여 자신의 성불을 미뤄버리므로 대비천제라 하는 것이다. 문수는 지혜의 눈이요, 보현은 행원의 발이며, 관음은 자비의 손이라 한다. 지장은 함께 울어주는 눈물과 같은 보살이다. 대승불교에 와서 특정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며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하는 풍습이 생겼다. 아미타불 염불과 정토신앙은 내세의 극락왕생을 염원하고 관음신앙의 현세 이익을 얻고자 기도한다. 지장신앙은 돌아간 영가(靈駕)를 천도할 때 주로 이 기도를 한다. 그 외 〈화엄경〉을 의지해 생긴 신중신앙이 있고 문수보살의 주처로 알려진 오대산신앙 등이 있다. 이러한 신앙이 소승불교에서는 행해지지 않던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부파 내에서 대승 생겨났을 수도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⑭ 율장의 재조명

삼장(三藏) 가운데 하나인 율장(律藏)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경장(經藏)이나 논장(論藏)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경장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모은 것이라면 율장은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생활규범을 모은 것이다. 따라서 경(經)과 율(律)은 새의 양 날개처럼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현존하는 부파의 율장은 팔리율 1종, 한역 율장 5종, 티베트역 율장 1종으로 모두 7종이다. 이 가운데 부처님 당시와 유사한 형태로 전승되는 것은 남방 상좌부(上座部)의 팔리율이다. 어떤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통용되는 팔리율을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동북아시아에서 통용되는 한역 율장을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남아시아는 자연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인도와 유사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원형에 가깝게 전승될 수 있었을 것이다. 반면에 동북아시아는 인도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기 때문에 어떤 부파의 율이든 그대로 수용될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같은 동북아시아의 대승불교권이라도 티베트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과 일본의 양상은 다르다. 티베트에 전승되는 율장은 한역 율장 가운데 설일체유부의 신율(新律)인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의 완역이며, 그 범본(梵本)의 일부가 카슈미르 북부에서 발견되었다. 다시 말해 8세기에 의정(義淨)이 한역한 율장과 티베트역 율장은 모두 근본설일체유부의 율장이다. 이처럼 동북아시아에서는 설일체유부 계통의 율장이 많이 전해졌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과 일본에서는 법장부의 율장인 〈사분율(四分律)〉이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파의 율장은 소승 율장으로 폄하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승불교의 기원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율장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기존에는 대승불교가 재가자를 중심으로 한 불탑(佛塔) 신앙에서 기원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최근에는 전통적인 부파 교단에 대승불교도가 공동으로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7세기 무렵에 인도에서 유학한 구법승인 현장(玄奘)과 의정은 이런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율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런 결론에 도달한 일부 불교학자들은 부파 내에서 대승이 생겨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율장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인도불교사를 해명하기 위한 문헌 자료이기도 하다.

현존하는 율장을 성립 연대에 따라 배열하면 〈사분율〉과 〈오분율(五分律)〉, 팔리율과 〈십송율(十誦律)〉, 〈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와 〈티베트율〉이 될 것이다. 이들 율장은 인도에서 기원전 100년에서 기원 300~400년까지 성립되었으며, 동북아시아로 전해져 5세기부터 8세기까지 한어 또는 티베트어로 번역되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성립된 율장에는 인도와 아시아의 문화가 스며들어 있어서 문화사적인 측면에서도 눈여겨볼 만하다.

한역 율장은 크게 지지계(止持戒)와 작지계(作持戒)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팔리율의 경분별(經分別)과 건도부(犍度部)에 해당한다. 전자는 계조(戒條)에 따라서 분별하고 주석을 붙인 것이며, 후자는 출가 교단의 생활규범을 모아 주석과 설명을 덧붙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자에서는 계경(戒經)과 결계(結戒), 범계(犯戒)의 종류와 출죄(出罪) 등을 다룬다. 후자에서는 수계(受戒)·포살(布薩)·안거(安居)·자자(自恣)와 그 밖의 의식주에 관한 스무 가지 사항을 다룬다. 이외에 후자에는 집법비니오백인(集法毘尼五百人)과 칠백집법비니(七百集法毘尼)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제1 결집과 제2 결집에 대한 기록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⑭ 곡류 음식문화

종교의식에 쓰였던 쌀과 보리

싯다르타 시대에 대중들이 주식으로 사용했던 곡류는 아마도 쌀과 보리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베다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밀과 같은 곡류는 베다 시대의 종교의례나 서사시에서도 잘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당시에 가장 많이 대중들이 사용했던 곡류는 쌀과 보리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베다 의례를 치르기 위해 가장 빈번히 준비해야 했던 곡류 음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뿌로다샤(puroḍāśa)와 짜루(caru)라 부르는 음식이다. 뿌로다샤는 한마디로 말하면 쌀떡이고 짜루는 쌀이나 보리를 끓여서 만든 죽이다. 떡은 쌀을 물에 불려서 맷돌에 간 다음 쌀가루를 거북이 모양의 떡으로 만들어 쪄서 만든다. 짜루는 물에 버터나 우유를 함께 넣고 쌀이나 보리를 넣어 끓인 죽인데, 낱알을 으깨지 않고 끓인 것이다. 베다의 사제들은 자기 몫의 쌀떡과 죽 등을 따로 챙겨놓고 나머지를 제사에 참가한 제주에게 돌려주곤 했다. 이러한 형태의 떡이나 죽은 당시 일상에서도 어렵지 않게 만들어 먹었을 것이라 상상해 볼 수 있다. 물론 베다 의례는 곡류 음식을 만들어 제물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것은 동물을 바치거나 소마주를 바쳤던 의례보다 훨씬 규모와 의미가 작은 제사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다시 말해 일상생활에서 신에게 바쳤던 음식이었으며 따라서 쌀과 보리가 일상생활의 음식에서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쌀과 보리는 각기 생장 시기가 달랐기 때문에 쌀을 수확하기 전까지는 보리를 수확해서 음식을 차렸고, 보리가 다 떨어질 때는 쌀을 수확해서 음식을 준비했다. 쌀과 보리는 그 품질에 따라 여러 종류가 존재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후기 베다 제사 문헌에는 고급품종인 샬리(śāli)와 일반품종인 브리히(vrīhi)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쌀의 구분은 후대로 갈수록 더 세분화되는데, 불교의 자따까 문헌 등에서는 고급미에 해당하는 샬리 쌀을 깔라마 샬리, 락따 샬리, 마하샬리 등으로 세분하고 후대의 힌두문헌에서는 7종이나 10종 등으로 더 자세히 구분했다. 당연히 일반인들보다 부자들이 선호하는 쌀이었다. 이름으로 보건데, 아마도 색깔과 크기가 일반미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특히 유명한 쌀은 깔라마 쌀이었다. 깔라마 종은 아유르베다 문헌인 짜라까상히따(Caraka saṃhitā)에서 약성이 있는 음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고대 인도의 음식학(pākakalā)을 보여주는 문헌에서도 이는 벵갈 유역에서 수확되는 고급 품종으로 손꼽는다. 고급미가 있었다면 평민이나 가난한 이들이 주로 먹었던 일반미도 있었을 것이다. 니바라(nīvara), 쁘리양구(priyāṅgu), 스야마까(śyāmāka) 등은 천민들이 먹던 거친 쌀을 가리켰다.

보리도 쌀만큼이나 고대 인도에서 주식으로 사용되었다. 아타르바 베다에는 '쌀과 보리를 하늘이 내린 두 자식'이라고 할 만큼 귀하게 여겼던 것이다. 쌀처럼 보리도 떡을 빚어먹거나 죽 또는 경단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 때로는 보리를 볶은 후 이를 분말처럼 갈아서 우유나 요구르트 꿀 또는 우유 등과 섞어서 먹기도 했으며, 소마 주스 등과 먹기도 했다. 쌀을 섭취할 때 우유나 기이(ghee, 인도식 정제버터)를 함께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밀은 훨씬 후대에 음식으로 등장한다. 본래 메르가르나 하랍빠, 모헨조다로 같은 인더스 문명의 도시들에서 밀의 흔적이 발견되는 것으로 미루어 대략 3500년 경 전후에 인도 땅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지만, 반(半)유목민이었던 인도-아리안인들에게 더 익숙했던 곡류는 특이하게도 쌀과 보리로 나타난다. 반면 밀은 이들의 종교생활에서나 일상생활의 초기 기록에서 쌀과 보리처럼 빈번히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아마도 '경전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기원전 300여 년경 전후까지도 밀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인도인들의 주식으로 자리 잡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불교가 일어난 훨씬 뒤에도 밀이 대중들에게 사용되기는 했어도 쌀이나 보리처럼 그렇게 대중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02-2004-8200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의 현대화 —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서 현대불교신문을 검색하세요!
NAVER 검색창에 현대불교신문 을 쳐보세요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가목(원탄)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산삼 캐는 심마니가 산에 갈 때는 꼭 마가목 지팡이를 짚고 가야 기운이 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2개월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 KBS1,2 TV 건강하게삽시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내고향 스페셜, MBC TV 고향이 좋다. 방영
■ 2019.10.31.(목) KBS1 저녁 7시 40분 한국인의 밥상 설악산「마가목」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탄)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문의 010-9049-2848 (공휴일·야간전화 금지)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탈종공고
• 사찰명 : 광목사
• 주 지 : 송언
• 주 소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예술인촌길 66-7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4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36호 | 17 | 전면광고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없고
곡식보다 더 귀한 재물이 없으며 지혜보다
더 밝은 것이 없고 생각보다 더 빨리 변하는
것은 없느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잡아함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사찰건축전문

문화재기능962호

대웅전 한옥별장
요사채 재실
누각 산신각

펜션(육송 나무목재만 사용)

원명 010-4300-9104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초빙 동참 안내

지역에 법인지사 설치시
법인 주지사 임명
지역에 사암 등록시 주지 임명
수행승 자격·신분증 부여

세무서 법인번호 등록, 법원 등기 관 등록

불교문화법인
대표법사장 법광 종법주
서울시 노원우제국 사서함 25호

010-5412-8040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검 색★

GPN 손도사

최고 운명정보, 무료검색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커피황토집짓기 영업사원모집

기능성 황토벽돌 집 커피전문상가, 숯황토벽돌 맥반석황토벽돌, 한방황토벽돌 홍송나무황토벽돌, 편백황토벽돌 해송황토벽돌, 35%착수금 나머지는 20년분납 0.3%이자

한식과학원 043-745-3332
영동군용산면율리길155-28

사주·구성학·명리

삼보에 귀의하옵고
사주(구성학 · 명리)
1대1 강의 단기완성

포교당 스님 ·
찻집·카페하실 보살님 !

대전 010-5257-9731스님

명 상 쉼 터

30,000여평의 수려한 계곡 자연경관, 심산의 질 좋은 식수, 공기, 황토방 생활, 명상과 건강관리를 우선시하여 지내실 몇몇분을 기다립니다.
경제적 부담없이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3802-7102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 매주 목요일 정오12시~6시 [월 4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078-9595

비구·남여 행자·비구니스님 종도모집

• 준비서류 : 수계증및 법계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입종등록신청서(총무원비치)
• 승려증 발급, 수계증 발급
• 주지 임명장 발급

사단법인 참승조계종 010-5353-3936

내 마음대로 되는

특수한 기도법 전수 (스님에 한함)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불교 무용 배울분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뽑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영가 찾는법

YouTube 백암TV 무료강좌

• 대상 : 왕초보반(포교원 운영자) • 수강료 : 월10만원

백암역리원 02)597-1101 / 010-9150-2284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꽃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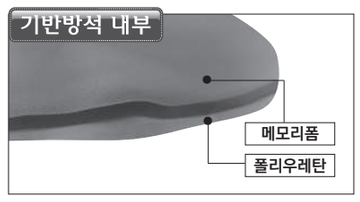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36호 | 18 | 전면광고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내지 않고 항상
가여운 마음을 내서 평등한 마음으로
증오함을 없애면 머지않아 삼매를 얻으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반주삼매경》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시
◎대지 : 500평
◎건평 : 60평,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매가 : 23억

◎위치 : 경북
◎대지 : 150평
◎건평 : 80평
◎시내, 생활편리
◎매가 : 7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 부지 : 1천평, 건물 : 400평
- 가액 : 39억
- 佛敎의現代化,佛法의生活化,布敎의大衆化 ● 불교컨벤션 ● 명상힐링캠프 ● 불교복지시설 ● 대한민국 불교의 미래를 선도(先導) 하려는 스님, 보살님, 거사님께 적극 추천합니다.

010-2822-10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담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토 지 안 내

- 위치 :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 절터적합, 남향, 긴동굴 있음, 계곡접함
- 총17,470평, 전900평, 산16,570평
- 가액 5억5천만원
- 상담환영

010-3618-6200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가격절충)

010-5421-1536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구성면 용호리
- 835번지 300평, 836번지 130평 총 430평(샘물나옴)
- 포크레인 작업 완료(3년전)
- 암자, 산소, 별장(자리적당)
- 급양도 3천7백5십만원

010-7628-999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흥천이포IC 5Km (이천 여주 광주 시내 25분거리)
- 대지299평, 건물 2채 주차시설, 목조 한옥집(24평), 법당 사무실 방 주방 화장실, 요사채(18평), 방2개 화장실2 주방
- 가액 5억5천만원(절충)

010-6355-64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4길 23
- 부지102평, 구조 2층 법당 15평, 생활관 1층 33평, 화장실2평
- 가액 : 1억

010-4156-3779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 / 국유지 70평 (사용가)
- 법당 / 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
- 가액 13억 5천만원

010-6325-5112

인천 사찰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만수소방소 건너편) ● 평수 : 단독건물,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110여평 ● 건물 : 지하1층:창고형, 1층:공양간(방3개, 화장실) 2층:방3, 화장실, 3층:법당, 3존불, 지장불상, 칠성, 산신 ● 가액 : 3억 5천 (시세이하, 급양도함, 사찰연력 40여년)
- 답사 하실분만 사전전화 요망

010-8360-8259

사찰 (급) 안내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도심속 산중사찰(위치 좋음)
- 법당, 삼존불, 탱화 완벽, 산신각, 현대식 요사채
- 양도가 : 9,500만원(지상권), (년간 도지세 20만원)
- 조용하고 경치좋은 암자, 토굴기도 비구 비구니 스님, 역학하시는 스님, 보살 최적의 장소

010-7677-8385

오래된암자안내

- 위치 : 충북 괴산
- 종교용지 등기 912평(약 1천평)
- 뒤는 산, 앞은 면사무소, 학교, 시장
- 대웅전, 지장전, 삼성각, 요사채, 목조기와 단청, 공원같이 아름다운 곳
- 은행 1억5천 안고 2억5천만 합 4억
- 신도있고 스님이 연로하시어 양도함

010-3535-790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대지:100평 ● 건물:법당25평.요사채30평(방3개.큰다락방.다용도실.공양간.화장실2개) ● 해수 관세음보살 입불상(7m) ● 부처님 진신사리3과(기증) ● 가액:2억8천만원(대출6천만원 포함)절충가능 ● 전.월세가능
- 시내지만 조용하고 즉시 법회가능

010-2678-3499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 190 (안심타운 맞은편) 4층
- 법당 70평 외 (방 3개, 공양간 1개, 화장실 2개)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가격절충)

010-9015-4040
010-2077-782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역 (2,4호선)
- 먹자골목, 교통최요지
- 2층 평수 30평, 시설 완비, 즉시 강좌, 법회 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 125만원
-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10-9150-228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금산 추부면 ● 종교부지 280평. 임야 50평. 총 330평 ● 법당 23평(철재경량골) ● 삼성각 : 30년된 목조기와 7평. 단청 ● 요사채 : 철재스레트 30평 ● 방5개. 거실. 주방. 화장실(실내1, 실외1) ● 사찰 뒤는 산, 앞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전망좋은 곳
- 가액 : 2억(융자 6천만원)

010-3875-630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백병길 171) 대웅사
- 토지 : 5,830평(종교용지 1,700평, 산168-2번지 4,130평)
- 건물 : 대웅전1동, 요사체(1,2층)1동, 기도방(연가 및 납골용)
- 특징 : 전설속의 백병산 남한강을 바라보는 전망좋은 기도사찰
- 입주조건 : 매수(조건부 장기임대로 분활상환 가능)
- 가액 : 21억(계약과 동시 입주 사용등 협의절충가)

주인직접 010-4225-0012

작은법당 안내

- 위치 : 경기 시흥 지역
- 법회 보고 상담하기 제일 좋은 암자
- 빌라 반지하 몽땅 8천7백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31-433-813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양면 지곡면 음지주암길155
- 대지 200여평, 건평 30평
- 법당 (삼존불, 지장, 신장, 용왕탱화)
- 요사채 (방2, 부엌)
- 가액 : 1억7천만원

010-2081-3324

토굴 · 토지 구함

- 정업수행을 하는 비구승입니다.
-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토굴이나 토굴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구합니다.

010-7678-5536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5층코너 상가주택 포교원 급 안내

-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내 최고요지 아파트앞
- 규모 : 대지 264.5㎡ (80평), 연면적 762.99㎡ (231평) 제2종지역, 대리석 건물, 점포 6칸임 (지하1층부터 3층까지 상가임)
- 4층 주인세대 : 156.05㎡ (47평), 방4칸, 화장실2, 넓은 거실, 건물수리 완료
- 3층 포교원 : 156.05㎡ (47평) 최신 불단 조성, 종무소큰방, 스님 방, 실내 남녀 화장실, 주방, 세면장, 도시가스, * 단, 부처님, 탱화, 기타 법기물 일체는 양도에서 제외함
- 참고사항 : 상가수입, 주차장 있음, 도시가스, 일조권 조망권 최고(우암산 전망 최고), 주변 대학교, 중학교, 대형마트, 생활편리.
- 급매가격 : 7억 5천 만원 * 금융융자 3억 5천 만원, 상가보증금 5천 만원

연락처 010-9011-7230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신안리
- 부지 : 530평
- 법당 : 목조 15평, 요사채 : 50평, 산신각 : 1평
- 가액 : 2억(절충)

010-9656-0108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용수 스님의 5분 명상

수행은 놓아버리는 것

우리는 수행을 잘못 알고 있어요. 달라지고 나아지는 게 아니라 달라지고 나아지기를 바라는 욕망을 버리는 거예요. 수행은 하나예요. 놓아버리는 거예요. 관점을 여기에 두세요.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전환했을 때 바로 평화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이 평화예요. 놓아버리는 것을 유일한 관심과 수행으로 삼지 않으면 강렬한 업의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놓아버리는 것만 마음에 두세요. 유일한 수행으로 삼으세요.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수행자에게는 3가지 약속이 있어요.

남은 인생을 수행으로 삼겠다는 것, 중생을 위해 수행하고 회향하겠다는 것, 청정한 본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김종미 교수의 차와 사람을 잇다 ⑦ 선비차

유배도 견디게 했던 차의 위로

다산 정약용, 강진 유배 시절
백련사 혜장 스님과 차 교유
직접 차밭 가꾸고 제다도 해



김종미 대표가 지리산 다원에서 햇차를 만들며 차를 마시는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염원하고 있다.

산에 들에 연둣빛 차싹이 피어납니다. 햇차가 당도하였습니다. 차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왜 차를 사랑하고 목말라 할까요?

"나를 나이게 하는 벗이 셋이 있는데, 첫째는 책이요, 둘째는 차요, 셋째는 채마밭이라. 차가 없었으면 산중 생활을 어찌 하였을까…"

'법정 스님 강연녹취록'에서 우연히 이 법문을 듣고 무척 공감했습니다. 법정 스님 사진전에서도 스님이 차를 우리는 사진을 보았는데 무척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법정 스님의 책사랑, 차사랑을 생각하면 200년 전 똑같이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벼슬하지마라, 공부할 시간 없다. 멸문한 집안으로 살아남는 길은 독서와 공부, 그것뿐이다."

18년간 해남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하며 500여 권의 책을 집필한 다산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다산 정약용과 아내 홍혜완의 사랑은 극진했습니다. 결혼 30주년을 기념하여 홍혜완은 유배생활을 하고 있는 정약용에게 자신이 결혼할 때 입었던 빛바랜 비단치마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살아생전 당신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애절한 편지와 함께요. 아내의 비단치마를 받아든 정약용은 3년을 고이 간직하다가 기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부부의 사랑이 진하게 배인 빛바랜 비단치마를 잘라서 두 아들에게 주는 비단책을 엮는 것이었습니다.

이 귀한 비단조각에 정약용이 진심으로 써내려간 편지가 유명한 하피첩입니다. 하피첩에서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근면검소' 할 것을 특히 강조합니다.

"음식은 목숨을 연명하면 되고 옷은 몸을 가리면 된다. 부지런하고 검소해라. 집안에 노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매사에 절약해야 한다."

의식주는 최대한 간단하게, 남는 시간은 모조리 공부, 이렇게 엄격하게 자신을 관리하고 자녀를 교육했던 정약용도 '차 사랑' 만은 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요즘 차만 탐하는 사람이 되어
차로도 마시고 약으로도 마십니다
책속에서 차를 찾아 육우의 다경
세 편을 모두 읽었고
병든 숫누에처럼 차를 탐해 노동의
일곱 잔 차를 다 마셨습니다
아침 꽃잎이 벌어질 때
푸른 하늘에 흰구름 흐를 때
낮잠에서 막 깨어날 때
밝은 달이 계곡 샘물에 비출 때
고운 구슬 흩날리는 작설
화로에 끓는 자줏빛 차싹의 향기
갓 떠온 샘물에 알맞은 불
찻자리에 번지는 신선의 맛
깊이 간직했던 용단, 봉병 귀한 차는
이미 바닥나고
땔나무조차 할 수 없는 아픈 몸으로
오직 차를 나누어 주기를 구걸할 뿐
인생의 고해를 건너는 데는 보시가
가장 중요하다 했으니
명산의 정기를 품고 약초의 으뜸인
차를
목마르게 바라는 마음 저버리지 말고
큰 은혜로 차를 베풀어 주기 바랍니다.

다산 정약용 〈걸명소〉, 잇다 김종미 번역

정약용이 강진에 유배되어 주막집에 방을 얻어 살 때에 백련사 혜장 스님과 교유하며 차를 얻어 마셨습니다. 그 해 겨울에 차가 다 떨어지자 상소문의 형식으로 '차를 구걸하는 글(걸명소)'을 써서 혜장 스님께 보냅니다. "인생의 고해를 건너는 데는 '보시'가 가장 중요하다 하였으니, 나에게 차를 보시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글입니다.

오래 전에 강진 백련사와 다산 초당을 둘러본 적이 있지요. 다산이 유배생활이 조금 느슨해 졌을 때 강진 바닷가 귤동이란 마을 뒷산에 초당을 짓고 살았습니다. 귤동 뒷산 너머 멀지 않은 곳에 백련사가 있었기에 혜장 스님과 교유하며 차를 배웠습니다. 정약용과 혜장 스님은 유쾌한 우정을 나눴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해서 문득 찾아오는 바람에 정약용은 처소의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산 정약용에게 차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산의 아들이 아버지를 해배하려고 이른바 로비를 도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안 다산이 아들을 크게 꾸짖으며 또 그러고 다니면 죽을 때까지 너를 안보겠다고 호통치는 내용도 있습니다.

차가 무엇이길래, 스스로에게 엄격했던 다산이, 차를 구걸한다는 제목의 글을 쓰게 된 것일까요? '다산(茶山)'이라는 호로 스스로를 지칭하면서요. 다산은 차농사를 짓고 찻잎을 따고 차를 덖고 떡차를 수백 근씩 만들어 스스로도 충족히 마시고 주변에도 선물하였습니다. 다산의 차사랑이 조선의 차문화를 다시 부흥시키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받는 부분입니다.

요즘 차의 효능으로 주목받는 영양소가 폴리페놀의 주요성분인 카테킨입니다. 카테킨은 찻잎이 병충해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물질입니다. 대자연의 찻잎에는 카테킨이 그득합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찻잎의 카테킨이 몸의 병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치유한다고요. 따뜻한 차 한 잔이 입안에 가득 향기를 남기고 몸 안으로 흘러 들어갈 때 마음의 맺힌 곳을 풀어주며 토닥토닥 아픔을 감싸 안아 준다구요. 차의 치유가 있었으므로 다산 정약용도 유배생활을 견뎌낼 힘을 얻었던 거라구요. 차가 없었다면 못살았을 거라구요.

〈잇다it茶 대표〉



| 공모주제 - 2021봄, 희망을 담다
- 봄을 맞은 사찰 풍경 및 자연경관 부처님의 가르침
- 나의 사찰과 수행
- 스승 · 도반 · 신도
- 사찰행사, 포교현장 등

| 공모대상
- 응모자격 : 스님 및 불교에 관심있는 누구나

※ 국내외 스님, 외국인 스님 포함

| 응모기간
- 응모기간 : 3월 30일(화) ~ 5월 30일(일)
- 심사발표 : 2021년 6월 말경

※ 입상자 BTN 홈페이지 / 개별통보

[NOTICE]
- 입상작의 출판권, 저작권은 출품자와 BTN이 공유하고 입상에서 탈락한 작품(파일)은 폐기함.
- 출품작은 국내외 타 공모전 등에 출품 및 발표되지 않은 순수 창작 영상이어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며, 수상 후에도 위반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수상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된 상금은 반환하여야 함.
- 출품 작품의 초상권과 저작권 분쟁에 관한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 1인에 대해 중복시상은 하지 않고 상금이 많은 분야만 시상함.
- 입상작은 심사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 지정된 메일 주소로 원본파일 제출.

| 접수방법
- BTN 홈페이지에서 "폰 사진 공모전" 페이지를 통해 업로드 접수

| 시 상

폰사진 공모전	
BTN 대상 (1명)	상금 2,000,000원
BTN 사장상 (1명)	상금 1,000,000원
금상 (1명)	상금 500,000원
은상 (2명)	상금 300,000원
동상 (3명)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 당선작은 자사채널(TV, VOD, 유튜브) 콘텐츠로 활용예정

| 출품 사진 구격
- 휴대폰 고화질로 촬영한 3Mb이상 10Mb 이하 JPG파일

※ 1일 3점까지 출품가능(출품비 없음)

| 심사 기준
- 내부 심사로 창의성, 스타일, 구성, 이야기, 종교성 등 종합 심사

| 문 의
- 폰사진 공모전 운영팀 / 02-3270-3417

[수상 결격사유]
- 다른 작품을 표절, 합성,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경우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 국내 외 관련법규에 의한 법적분쟁이 있는 경우

BTN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tv 305번 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마음책 다시 읽기 부처님의 감정수업 마음을 알면 우울이 보인다 ❷ 우울증 통제

▶ 한줄 요약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 지혜가 생긴다.

우리는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



부처님이 발견한 것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결과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일어난 모든 현상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니 사람들이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육이 생기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정신적인 현상이 있을 때, 그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마음을 먹으면 그것이 분명히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한 이치를 분명히 알게 되면 순간순간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게 됩니다.

하루 종일 무엇을 하든지, 그때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유익한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에 따라 그에 걸맞는 결과가 돌아오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틱낫한 스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우리의 사인이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스스로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과의 법칙은 '업설(業設)'로도 불립니다.

불교에서는 느낌과 감정 역시 조건이 형성되면 생겨난다고 봅니다. 즉 모든 것이 인과의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잘 관찰해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슬프거나 화가 날 때 스스로 그렇게 느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슬픈 조건이 있기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뻐했다고, 기쁜 감정을 의도적으로 느꼈다고 말하면 정확히 나의 느낌과 감정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 조건이 마련되었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감정은 결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계 정신과 의사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3년간 갇혀 있었던 빅터 프랭클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쓴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보면 감정이란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서 수용소 문을 나가면 얼마나 기쁠까하고 항상 생각했는데,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어 수용소 밖으로 나오기 전 몇시간 동안 그곳 사람들과 자유롭게 수용소를 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의아하게 생각하던 중에 모두가 다시 막사에 모였을 때 한 사람이 은밀하게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야기 해보게. 오늘 자네 기쁘던가?" 그러자 질문을 받은 그 사람이 거기 모인 사람들 역시 비슷한 감정에 젖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지 부끄러운 듯이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지, 기쁘지 않았다네!"

이 대화를 듣고 빅터 프랭클은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다. 아마도 천천히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능을 다시 배워야만 하리라." 그의 말에서 감정은 우리가 느끼고 싶다고 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만 느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과의 법칙을 근간으로 하여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무아(無我)'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아라고 해서 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몸과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인과의 법칙에 따라 몸과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 것이 인과의 법칙에 따라 작동될 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 첫 제자인 5비구에게 두 번째로 설한 법문인 〈무아특징경〉에는 오온, 즉 몸과 마음이 내 것이 아니므로 고통이 따른다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 법문을 듣고서 5비구는 아라한이 됩니다. 만약 몸이 자아, 즉 내것이라면 우리는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키를 늘리고 머리카락 색을 바꾸고 외모를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바람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생기고, 그 간극만큼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어서 부처님은 '느낌은 자아가 아니다. 그래서 고통이 따른다. 무아이기 때문에 고통이 따른다' 고 말합니다. 만약 느낌이 내 것이어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즐거운 느낌만을 가질 것입니다. 우울할 때 내 마음대로 기분 좋은 상태로 넘어 갈 수 있다면 아무도 정신과 의사를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식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만약 아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알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알아보는 게 괴로운 일이라서 못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의도에 대해서도 '의도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괴로움이 따른다.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고 말합니다. 좋은 의도가 일어나려면 그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은 자아가 아니다 그래서 고통이 따른다' 고 말합니다. 마음도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일이지, 조건을 무시하고 뜻대로 어떤 마음이든지 낼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보아야 보이는 답
부처님 사성제 안에 있어
사념처 수행에 선정 증득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입니다. 고성제는 인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말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괴로움을 피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밝힌 것이 고성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고, 싫은 사람과 만나야 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집착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집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이 갈구하는 집착인 갈애라고 밝힌 것입니다. 갈애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갈애, 존재에 대한 갈애, 비존재에 대한 갈애입니다. 비존재에 대한 갈애는 존재하고 싶지 않은 갈망을 말합니다.

멸성제는 갈애가 완전히 멸한 상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이 괴로움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괴로움의 원인인 갈애를 완전히 없앨 수 있고, 그 결과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그러한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누구든지 올바르게 노력하면 괴로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도성제는 괴로움을 완전히 멸하는 방법입니다. 팔정도라고 부르는 여덟가지, 즉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을 실천하면 괴로움을 완전히 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정견은 바로 보는 것입니다. 정사유는 바로 본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정사유는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유, 성냄이 없는 사유, 해치지 않는 사유를 말합니다. 정어는 바른 말, 정업은 바른 행위, 정명은 바른 생계 수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정정진은 자신에게 있는 선법은 더 발전시키고 아직 있지 않은 선법은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이미 있는 악법은 없애고, 아직 있지 않은 악법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념은 몸과 느낌, 마음, 법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사념처 수행을 말합니다. 정정은 마음이 하나로 집중된 상태인 선정을 성취하는 것으로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의 사선정을 말합니다.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인 팔정도는 정견으로 시작됩니다. 그만큼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보는 것에 따라 감정이나 태도, 행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는 게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보고 일어난 현상에 적절히 작용을 해야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그와 동떨어진 행동을 해서는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 혈압이 높아집니다. 혈압이 높으면 내과를 갑니다. 내과를 가면 혈압약을 권하는데, 혈압이 높을 때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제 생각에 혈압이 오르는 것은 대개 네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가 심리적인 영향입니다. 둘째는 체중, 세 번째는 운동, 네 번째는 음식입니다. 혈압이 높을 때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지 않고 약을 쓰면 당장은 혈압이 떨어질지 몰라도 혈압을 높인 원인이 그대로 남아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당뇨가 생기거나 콩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압을 높인 요인을 찾아내 그것을 해결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먼저 원인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그래도 혈압이 안 떨어지면 그때 약을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혈압도 떨어지고 다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졌다면, 그것을 가질 만한 원인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자가 제게 허무감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불교정신치료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허무감이 생기는 이유는 그것이 올 만한 무언가를 그 사람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물었더니 그는 "인생 별거 없고 이러다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허무감에서 벗어나려면 보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불교는 뭐든지 정확히 보고 난 뒤에 자신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역시 정확히 보고 자신에게 제일 좋은 것을 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진리에 입각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간혹 불자 중에 자신에게 해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제대로 불교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언제나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바로 보는 것을 바탕으로 바른 의도인 정사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른 의도를 가지면 바른 말과 바른 행동, 그리고 바른 수단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게 됩니다. 모든 것의 바탕에 정견이 있으니 항상 바른 노력을 통해 자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매 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바른 노력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사념처 수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선정을 성취합니다. 이렇게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가진 존재가 가질 수 밖에 없는 괴로움을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공동저자 : 김정호(덕성여대 심리학과 교수)
서광 스님, 전현수(정신과 전문의)
〈불광출판사 펴냄〉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대행 스님

내 근본 한군데에서 마음의 봄날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사계절 없는 마음의 봄이 와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봄 말입니다. 사계절이 있는데 겨울이 좋은 사람은 겨울로 쫓아가고 여름이 좋은 사람은 여름으로 쫓아가고, 가을로 봄으로 사방으로 흩어져서 쫓아다니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근본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일체 만법이 들고 나는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 근본 한군데에서 봄날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곤충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사생에 대한 문제가 천차만별로 돼 있는데 천차만별로 돼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사계절 없는 마음의 봄이 된다면 얼마나 자유스럽고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뜻을 알지 못하고, 과거에 수억겁을 거치며 쫓고 쫓기면서 살아온 악업 선업을 잔뜩 짊어지고 이 세상에 나서 지금 모두 살고들 계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과거가 따로 없고 미래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을 것이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을 것이고 현재는 공했기 때문에 없을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공한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의 봄을 찾지 못한다면 인간으로서 자유스럽게 살지 못하며, 항상 얘기드리지마는 악업 선업의 업식 속에서, 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업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과거로부터 수없이 행해 온 악한 일 선한 일들이 용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지금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면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그 수십억의 업식들이 화해서 내 눈앞에, 죽은 그 혼백 앞에 그냥 줄줄이 늘어서게 되니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어요.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으니까 벗어날 길이 없죠. 그래서 업식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고 말하는 겁니다.

요것을 말하기 전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부처님께서 네 여자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신다면 군더더기로 또 말할 거 없고요.

대중 모릅니다.

큰스님 어떤 남자가 마누라를 얻어서 참 근근득생 살았더랍니다. 그러다가 좀 살 만하게 되니까 첩을 하나 얻었죠. 하하하…. 아마 들으면 다 아실 겁니다. 첩을 하나 얻어서 거기에 그냥 온통 미쳐서 정신없이 끌려가다가 첩을 또 하나 덜컥 얻었어요. 그러고는 정신없이 몇 해고 가다가 또 새 첩을 얻었죠. 첩을 셋이나 얻은 겁니다. 그래서 새 첩을 얻어서 거기에 미쳐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더니 그만 어느 땐가 덜컥 죽어 버렸단 말입니다.

죽어서 셋째 첩에게 "너 같이 가자." 하니까 세상에, 방문 안에서 인사를 하곤 그냥 대척도 안 하더랍니다. 둘째 첩에게 또 가자고 하니까 아예 대문 안에서 그냥 고하고 말아 버리더랍니다. "네가 좋아서 나를 쫓아왔지 내가 좋아서 너를 쫓아다닌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왜 쫓아가느냐." 하면서 안 가더랍니다. 그래서 또 첫째 첩에게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동구 바깥에서 그냥 인사를 올리고는 안 가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큰마누라는 가자고 그러니까 "아이, 죽으나 사나 가야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으나 사나 같이 가야지 어떡하느냐고 하더랍니다. 가장 천대받고 가장 무시당했던 마누라가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왜 그렇게 네 여자로 비유했느냐? 셋째 첩은 금은보화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방에서 나가는 일이 없죠. 둘째 첩은 집이니까 대문 안에서 나가는 법이 없죠. 또 첫째 첩은 부인이나 자식들이나 또는 사회 인사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니 동구 바깥밖에 더 나갑니까? 지금으로 치면 화장터, 묘지 같은 이런 데까지밖에는 더 나갈 수 없죠. 거기서 하직을 하죠. 그러니 죽어서 갈 때도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대신해 줄 수 없는 거고 말입니다. "죽으나 사나 같이 다녀야지 어떡하느냐?" 하는 큰마누라는 바로 업식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업식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업식마저도 벗어나야 된다는 얘깁니다.

죽으면 자기 몸까지 다 버리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몇천 년 몇만 년 살 것같이 마음이 그냥 거기에만 온통 쏠려 가지고는 아우성을 떨다가 털컥 망하거나 뭐가 잘못되면 병까지 든다 이겁니다. 사람이 병까지 들어요. 그러면 그게 자기를 깎아 먹는 일이지 자기를 승화시키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게 마음의 탓이라 이겁니다. 말이 딴 데로 샜어요. 근데 정작 죽어서도 업식은 그렇게 따라다닙니다. 혼백이 죽은 몸뚱일 버리고 딱 나가 보니까 자기 살았던 대로 업식이 늘비하게 쫓아다니니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죠.

또 거기에서 어떡어떡하다 벗어났다고 봅시다. 그런데 '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라 하는 것은 나라는 걸 빼 버려라 이겁니다. 공했다는 걸 알아라. 나라는 게 있다면 의식적으로 나를 내세우게 되고 또 그게 화해서, 죽어서 몸뚱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 몸뚱이가 있는 줄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가려고 강가를 돌면서 노력을 하는데 자기가 빠져 죽을까 봐 건너갈 수가 있나요? 그래 강가를 돌면서 배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보니까 오백 년도 가요 천 년도 가요, 이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둘 아닌 줄을 몰라요. 항상 변하고 부서지고 돌아가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 불바퀴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내가 둘이 아닌 줄 알고 둘이 아니게 나투는 줄 안다면 그냥 불바퀴가 돼 버릴 텐데, 불바퀴에 닿으면 타 죽는 줄 알고는 거기에 접근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중생을 면치 못한다 이 소립니다. 이 세상만사가 다 조그만 불바퀴가 있는가 하면 큰 불바퀴가 있어서 함께 돌아갑니다. 우리네 이 몸을 혹성이라고 가정하면 그 혹성 가운데에 별성이 있고 별성 가운데에 그 뜻이 있고 바로 의식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들이 일체를 들이고 냄에 있어서 광력 전력 통신력 자력을 충만히 엮어 나가면서 내면세계의 인연의 줄을 타고 그냥 돌아가는데, 이걸 모르니까 깜깜하게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 무(無)의 세계,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50%를 깜깜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유(有)의 세계, 물질세계만 가지고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누가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바도 없는데, 누구한테 칭찬받을 줄도 모르고, 또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가 먹고살 양으로만 애쓰다가 그냥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먹고만 살려고 하는 자는 돼지와 같으니라. 돼지에게 옥을 준들 옥을 알랴." 사람이 살 양으로 먹나, 또 먹을 양으로 사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점도 있지 않아요?

생명의 근본이라 한다면 우리 인간의 생명, 근본만이 아니라 일체 만물만생이 다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고로 작은 거나 큰 거나 생명은 다 같습니다. 이것을 만날 전력으로 비유하는데, 전력이 크고 작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모두 그 불 들어오는 것만 봤지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못 보시죠? 그리고 아주 커다란 모터가 돌아가는 것만 봤지 전력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오고 가는 사이 없이 오고 간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우리가 자유스럽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즉, 말하자면 우주 만유가 다 인연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연의 법칙, 바로 인연의 줄이, 줄이 없으면서도 있죠. 그렇게 전력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나가는 것도 모르지만 전구에 불이 들어와 있듯이, 인연의 줄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불가에서는 법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연줄을 '가설'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모두가 가설이 돼서 재깍 불이 들어왔다가 재깍 나가고, 재깍 들어왔다가 재깍 나가고 하는 이것이 바로 나툼입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사는 데는 불을 켜려면 붙여야 되고 불을 끄려면 떼야 하는 작용을 여전히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런

☞ 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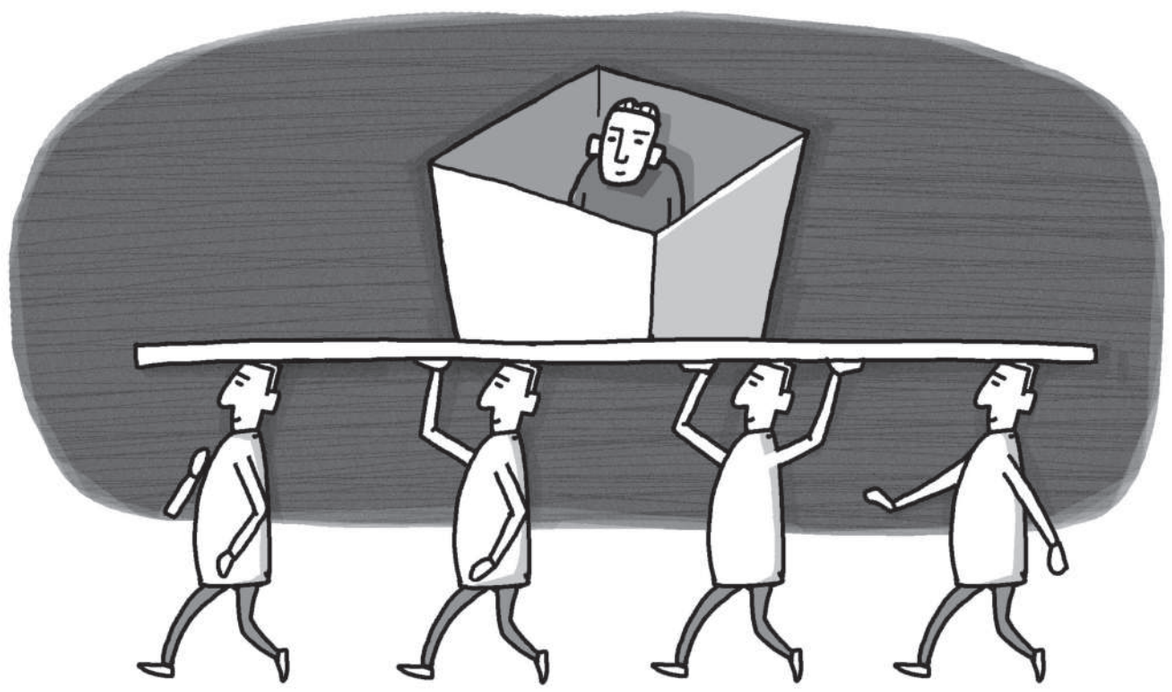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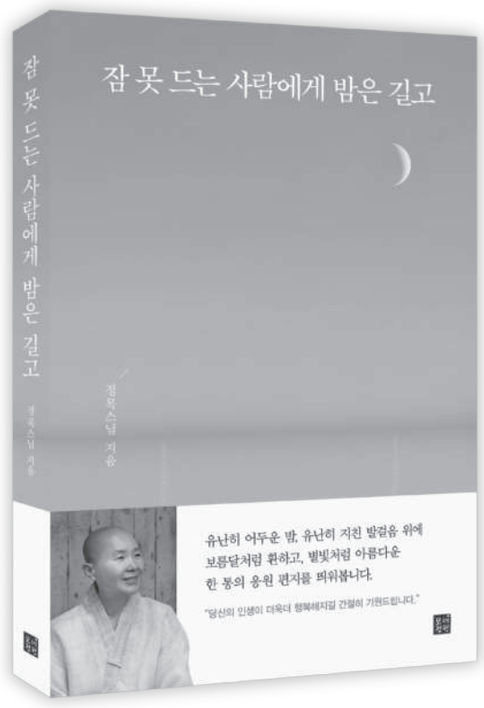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막막하고 불안하고 외로운 당신에게,
정목스님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 같은 이야기들**

잠도 안 올 만큼 분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선택할지 기쁨을 선택할지는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지요.
식당에 가서 원하는 음식을 결정하듯 깨어 있는 사람은 사랑과 미움도 스스로 결정합니다.
기쁨을 원하면 사랑을, 고통을 원하면 미움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용서와 화해로만 풀 수 있지요.
그 용서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잘 용서가 안 된다면 우선 상처 준 그를 향해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나와 똑같이 저 사람도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정목 스님 낭독 -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정목 지음 / 248쪽 / 14,000원

이 책의 저자 인세 수익금 전액은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사랑'에 희사합니다.

모네의 정원 TEL. 02-2004-8253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나라는 걸 빼버려라! 공했다는 걸 알아라!

☞ 21면에서 계속

데 인등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불은 영원한 겁니다.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언어도 붙지 않는 자리다 이 소립니다. 그거는 우리 몸뚱이가 있든 없어지든 영원한 겁니다.

왜 영원하다고 하느냐. 이건 말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닌데, 말로 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을 벗고 죽으면, 늙어서 죽었든 젊어서 죽었든 아주 애 적에 죽었든, 죽으면 탈바가지만 없어지는 거지 그 사람 자체 근본은 죽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또다시, 즉 구름이 모여서 한 식구로 살았다면, 흩어졌다가 또 딴 구름하고 모이듯이 딴 집 가서 또 태어납니다. 자기가 지은 대로, 깡통이면 깡통 집안에 태어날 거고 금이면 금 집안에 태어날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각처로 나누어져서 돌아가면서 또다시 태어납니다. 자식들도 태어나서 같이 살다 보면 응그랑 응그랑 하고 소리가 나는데, 깡통끼리 만났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하지 마시라 이런 소립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것에서 벗어나려면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자꾸 나오는 데다가 되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거기다가 맡겨 놓고 살림을 하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남편이든 부인이든 형제든 자식이든 부모지간이든 병고 아니면 애고, 애고 아니면 재난 이런 문제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죠. 유전성이나 영계성이나 업보성이나 세균성이나 이런 문제들이 모두 덮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냥 때때로 심심하면 나오는 겁니다. 돈을 조금 벌어서 모일 만하면 '너 고렇게 모였구나.' 하고 탁 쳐 버리고 탁 쳐 버리고, 또 웬만큼 벌어서 살 만하다 그러면 그냥 반을 착 없애 버리고는 병들게 하거나 이렇게 일을 마련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자기한테서 오는 거거든요.

자기한테서 오는데, 이걸 잘 이해해서 들어야 합니다. 가게에 가면 배는 배들끼리 모아 놨죠? 그래서 한 가족이 모두 똑같은 배라면 누구 탓을 할 게 하나도 없죠. 하하하. 전체가 똑같은 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걸 뜻으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끼리끼리 만나느니라.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끼리끼리 만남에 의해서 돌아가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부인 탓을 하겠습니까, 남편 탓을 하겠습니까, 자식 탓을 하겠습니까. 모든 걸 탓하지 말고 제가끔 생각하는 대로 제가끔 자기 탓으로 돌려라 이거예요. 그래야만 거기에서 그냥 홀랑 벗어난다 이겁니다.

'화목을 가져오는 것도 너밖에 없다. 나를 이끌어 가는 것도 너밖에 없다. 나를 낫게 해 주는 것도 너밖에 없다. 이렇게 고통스런 고가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너한테서 없애고 네가 이끌어 줘야지 딴 데서는 이끌 수가 없다.' 이렇게 되놓는 작업을 수없이 해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실험을 해서 거기다 놓고 착 지켜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풀어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좀 완화가 돼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들이 좀 더 유하게 되고 그렇게 일을 저지르지를 않아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자꾸자꾸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가 자기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죠. "대나무 방구씨를 심어서 대나무 귀신 방구털을 먹여서 키운다. 그런데 그 방구털을 더 먹여도 안 되고 덜 먹여도 안 되느니라." 허허허,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나한테 닥치는 대로, 가는 거 잡을 필요도 없고 오는 거 마다할 필요도 없고 오는 대로 그냥 그 중심에 놔라 이겁니다. 놓고 가라. '거기서만이 모든 것을 들이고 내는 거니까, 모든 건 네놈한테서 나온 거니까 네놈이 다 알아서 할 게 아닌가! 네놈이 이끌어 줄 거고 네놈이 다 할 거고. 이 몸도 네 시자니까, 네 종이니까 네가 건강하게 해서 이끌고 다니려면 이끌고 다니고, 네가 죽이려면 죽이고 마음대로 해라.' 하고 왈칵 그냥 다 놔 버리는 거죠.

> **나한테 닥치는 대로,**
> **가는 거 잡을 필요도 없고 오는 거 마다할 필요도 없고**
> **오는 대로 그냥 그 중심에 놔라.**
> **놓고 가라.**

마음을 이렇게 돌려서 굴려 놓는 자체가 팔수레공법이란 말입니다. 바로 사무 사유, 이것이 팔입니다. 모두를 본다면 하나하나가 그냥 거저 이렇게 된 게 없어요.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여러분이 다 지어 놓은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그냥 살아가는 거 같지만 지금 살아나가는 게 끌려가고 매달려 가는 셈입니다.

그러니 모두 마음들을 잘 실험을 해서 체험을 하도록 하세요. 여기 사시는 마산 분들이 열심히 해서 마산을 아주 풍요롭게 하고 내 가정을 풍요롭게 하고 내 나라를 풍요롭게 하세요. 내 나라를 풍요롭게 하려면 세계를 풍요롭게 할 줄 알아야죠? 그런 데다가 또 수없이 인연 따라서 아는 사람을 만나고 불쌍한 사람을 만나고 불쌍한 짐승을 만나고 이럴 때 한생각에 다 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을 바다로 비유해 보죠. 바다에 몇 양동이 물을 갖다 붓는다고 두드러집니까? 두드러지지 않죠? 또 몇 양동이를 퍼낸다고 줍니까? 안 줄죠? 고거와 같다 이겁니다. 내 마음속에 불쌍한 사람들을 수없이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으니 무명을 벗겨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다가 맡겨 놓는다면,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줄지 않는 바로 평등공법, 활궁공법이 그냥 수없이 자동적으로 솔솔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사과 하나 떨어지는 걸 보고도 중력에 대해서 캐치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사람들이 발전하는 것도 생각하기에 달렸다 이겁니다. 또 생각을 잘해서 발전하는 것도 인연에 의해서, 상대방에 의해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 홀로 발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차원대로 높은 것입니다. '차원대로 높은 것이다' 하는 거는 낮고 높고가 없다는 겁니다.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짓는 대로 높고 공업 하는 사람은 공업 하는 사람대로 높습니다. 고거 두 마디만 해도 아시겠지요? 상업 하는 사람은 상업 하는 대로 높고요. 왜? 이거 하는 사람에게 저거 하라면 못하고 저거 하는 사람에게 이거 하라면 못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 낮고 높은 게 없이 생각하라 이겁니다. 사대 성인들도 다 내 주인공으로 생각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佛)이라는 단어는 최상의 단어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풀 한 포기도 생명이 있고 어느 거 하나도 생명이 없는 게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불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불이되, 죽은 세상이나 산 세상, 보이지 않는 데나 보이는 데나 모두 서로가 통하는데, 서로가 이렇게 통해서 돌아가는 자체가 바로 교(敎)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어느 종교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끝간 데 없이 돌아가는 이 진리 자체가,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자체가 바로 불교다 이겁니다.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나 사회에 나가서나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증오하지 말라. 칼을 들고 강도질을 하러 들어왔더라도 남을 증오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모든 거를 내 주인공에다 맡기고 '저 사람과 나와 둘이 아닌데 나쁜 일을 할 수가 있나?' 하고 생각을 하면 그대로 칼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다 합니다.

어느 청년이 길을 가다가 깡패들을 만났는데 돈 내놓으라고 칼을 들고 하도 야단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공! 모두가 둘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그냥 급하니까 거기다 맡겼답니다. 급한 나머지 막 그냥 주인공도 부르고 스님도 부르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 셋이서 "에이! 이놈 봐 봤자 시간만 낭비해." 그러곤 가더랍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력을 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창조력을 길러야 되고 창조를 해내야 되겠죠. 이건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필연적입니다.

어느 사람이 속세를 떠나서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한다 하니까 "너 다 버리고 간다면 먹지도 말아야 하고 입지도 말아야지. 또 참선을 한다는데 앉았다 일어나면 선이 끊어지니까 앉았으면 일어나지도 말아야 하고 오줌도 누지 말고 똥도 누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하니까 이 소리를 듣고선 깨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고 이러는 모두가 그대로 참선입니다. 하나도 참선 아닌 게 없습니다. 쪼그맣다고 깔보고 또 우습게 생각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옛날에도 망상과 졸음을 쫓기 위해서 턱에다 칼을 대고 그랬다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잠이 오는 것도 근본에서 나오는 거, 망상도 근본에서 나오는 거니 모두 근본에 돌려놓으면 근본에서 잠을 덜 자게 할 수도 있고 더 자게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망상이라는 거는 수십억 마리의 업식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기가 목석이 아닌 이상에야 생각이 있는 거지요. 목석입니까, 생각이 없게? 있는 대로 그냥 자꾸 거푸거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데 나오는 대로 거기다 맡겨 놓고 '이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하고선 놓게 되면 졸음과 망상 때문에 공부 못 하지는 않습니다. 자는 것도 참선이요, 일어나 앉은 것도 참선이요, 선 것도 참선이요, 일하는 것도 참선이요, 모두가 참선 아닌 게 없으니 아니, 어떤 거를 놓고 어떤 거를 안 놓고 어떤 거를 끊고 어떤 거를 끊지 않고가 어딨습니까? 그걸 송두리째 집어삼켜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이 마음은 체가 없으니 우리가 탑을 쌓으려 해도 한순간에 쌓을 수가 있고 봉우리를 올려놓으려 해도 한순간에 올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점수다 돈오다 할 게 없습니다. 모두가 그냥 둘이 아닌 까닭에 앉았다 서는 것도 참선입니다. '아이구! 내가 이렇게 답답해서 쓰겠나. 이렇게 공부가 안돼서 쓰겠나.' 하는 생각조차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다 놔라 이겁니다. 모든 걸 다요. 잘되는 건 감사하게 놓고 안되는 건 돌려서 놓고요.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데 어떤 걸 내가 하고 어떤 걸 끊고 이런 게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본래는 놓고 갑니다. 여러분이 본래는 놓고 가는데 마음으로 놓고 가질 못해서 고만 그렇게 업이 되죠.

생각이라는 게 너무나 엄청난 것이라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내가 말을 해 줘서 되는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사람의 사량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한생각에 작용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저 태양의 근본에 의해서 은하계로 연결이 되고, 또 지구로 연결이 되고 대천세계 중천세계 소천세계에 다 연결이 돼서, 이름만 대천세계 중천세계 소천세계라고 하지 같이 돌아갑니다. 비유를 한다면 여러분 생명의 근본이 있죠? 또 마음을 내는 마음, 육신이 움죽거리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한데 합쳐서 있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와 같이 삼위일체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대천세계와 중천세계 소천세계가 다 같이 그렇게 돌아가죠. 그런데 그 대천세계 도리천도 한생각에 들었다 놨다 할 수가 있다, 작용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멋진 묘법을 모르고 육신을 그냥 버린다면 참 원통할 거예요. 원통할 거예요. 정말입니다! 원통하고 말고요! 남 날 때 나서 코 달리고 눈 달리고 귀 달리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이 도리를 모른다면 그냥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세상에! 먹고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철 캠핑하러 나왔다 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한 철 캠핑하러 나왔는데 그 사이에 이 도리를 알아서 세세생생 끝 간 데 없이 자유자재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게 문제니까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2년 4월 26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현불 논단 |

제2 대승불교 운동이 필요하다



정운 스님
동국대 강사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 500년 후
부파불교 혁신한 대승불교 등장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주장

12세기 인도서 불교 자취 감춰
대중성 잃어 승보 없었기 때문

現 한국불교도 안심 못할 상황
발전, 예측말고 개혁해야 가능
개혁을 이끈 부처님 본 받아야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할 당시에 사문(śramana)들이 출현했다. 이들은 바라문교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되어 자유로우면서도 개혁적인 종교운동을 주도했다. 이 사문 가운데 한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시대의 구태의연함에서 탈피한 것을 독일 철학자 칼 야스퍼스(Karl Jaspers)는 '인류 발전의 축(軸)'이라고 찬사했다. 특히 불교는 당시 사회 통념이었던 카스트 제도나 제사(供犧)를 부정한 신흥 종교였다. 또한 부처님은 당시 수행자들이 행했던 고행과 선정이 아닌 중도에 입각해 해탈을 추구함으로서 불교가 시작되었다.

불멸(佛滅) 후 500년이 지나 대승불교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신운동을 펼쳤다. 즉, 기원전 1세기에 시작된 대승불교 또한 당시 교단에 대한 반발이었다. 지나치게 법(法, Abhidharma)에 천착했던 부파교단에 반발하면서 출가자만이 아닌 '모든 이들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종교운동이 대승불교이다. 그러면 이 대승불교를 주도한 이들은 누구인가? 대승불교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살'로서 전생 인행(因行)으로 현생에 부처가 되었듯이(果德) 자신들도 보살이라고 지칭하며, 보살사상을 내세웠다. 보살 중에는 뛰어난 승려도 있었지만, 신심 충만한 재가자들이 함께 했다.

대승불교가 일어난 지 1000년이 지난 12세기에 불교는 인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 원인으로 이슬람교도들이 승려들을 살해하면서 불교가 패망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불교가 지나치게 학문적이고 철학적이어 대중성을 잃었다는 분석도 많다.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는 데는 불보·법보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승보(승가)의 소멸로 불교가 추락한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 불교도 인도와 같은 현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근자에 스님들과 대화를 나누면, 관심 주제가 출가자 부족이다. '앞으로 30년 이후의 불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구동성으로 토로한다. 대부분이 한숨과 한탄 뿐이다.

지난 3월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 질의에서도 출가자 문제가 거론되었다. J스님은 "종단 현황을 보면 출가자는 적고 고령자 추세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교학과 수행을 구족하게 해서 불교계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미래 출가 승가의 대안, 그리고 종단 차원에서 해외 불교국가의 청년 출가자 교육체계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출가자와 관련된 종책 질의는 안타깝게도 처음이 아니다. 매년 거론되는 문제이고, 답변하는 부장 스님들마다 한결같다. "교육원만이 해결할 수 없고, 종단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현대불교신문, 3월 23일자). 솔직히 누구를 탓할 수도,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수도, 누구에게 답을 구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20여년 전 4~500명의 출가자 시대로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지 못한다. 출가자 부족은 '인류문화의 시대적인 흐름'에 속해 있다. 한탄과 이론 제시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진보적인 현실 직시가 필요하다. 미래는 예측할 것이 아니라 개혁해 나가고 만들어가야 한다. 승가 교육에 대한 비전을 지금 실시해도 늦었다. 시행착오를 겪을 지라도 어떤 제시든 시작이라도 해야 한다. 출가자가 부족하면, 재가 불자들이라도 교육시켜야 다르마가 만대에 이어질 것이 아닌가!

부처님도 사문으로 출가해 사회 변화를 주도했고, 성도하실 때도 관습화된 고행과 선정이 아닌 중도를 제창한 개혁자였다. 또한 대승불교를 주도한 보살들 또한 당시 부파교단에 대한 진보주의자들이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불교도들은 개혁주의자였던 부처님처럼, 대승불교를 주도한 보살들처럼, 제2의 대승불교를 일으킬 수 없는 것인가. 간절히 소망한다. 나무아미타불.

社說

완벽 방역 '연등회'로 치러지길

부처님오신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심상치 않다. 4월 8일 현재 하루 확진자 수가 700명을 기록하며 다시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지난해 연등회를 취소해야 했던 불교계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올해에는 불교계도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가 4월 8일 조계종 원로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연등회는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연등회 연등법회는 기존 동국대 운동장이 아니라 조계사에서 봉행되며, 연등행렬은 조계사를 중심으로 간략히 진행된다. 행렬코스도 조계사부터 안국동사거리, 공평사거리로 대폭 축소됐다. 이들 행사는 줌, 유튜브, 불교계 방송을 통해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중계된다고 한다.

전국도 마찬가지다. 불도(佛都) 부산의 불교계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봉축연합대회와 연등행렬을 취소했다. 대신 5월 1일부터 16일까지 송상현 광장에서 코로나19 극복·국운 융창과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릴레이 기도를 이어간다고 한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선보이는 차량을 이용한 연등행렬도 코로나19 시대를 넘기 위한 지역불교계의 눈물겨운 노력이다.

올해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이후 첫 연등회로 더욱 의미가 있었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정상과 버금가는 연등회도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역병은 다시 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응해 연등회를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대폭 전환한 것은 환영할 만 하다. 소규모 행사들도 확진자 '0'을 위해 완벽한 방역 체계를 구축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완벽 방역' 연등회를 기대한다.

지자체, 가톨릭 성지화 자중을

200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가톨릭 성지가 급증했다. 순교지와 탄생지, 거쳐간 곳이 성지가 되고 교황이 발을 디딘 곳까지도 성지가 되고 있다.

성지를 기념하는 기념관 등이 건립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성지와 성당 등을 잇는 가톨릭순례길 조성사업이 한창이다. 지역관광문화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 및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전국토의 가톨릭 성지화가 도를 넘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가톨릭 성지화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무엇보다 가톨릭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점이 200여년 남짓한 종교라는 점에서 그렇다. 가톨릭 성지는 대부분이 종교적 신념에 기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문화와 별개로, 한반도의 외래종교로서 탄압받았던 역사적 사실이 가톨릭 성지를 만들어낸 굳건한 토대다. 물론 가톨릭 신자들에겐 신심을 고취시키는 의미있는 장소겠지만, 국민들에게도 그럴지는 되짚어봐야 할 문제다.

더욱이 이렇게 탄생한 가톨릭 성지가 그 장소에 원래 존재했던 역사와 종교를 덮어버린다면 어떨까. 천진암, 주어사지, 해미읍성, 서소문, 남한산성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정종교 성지화는 신중해야 한다. 특히 그 종교가 한반도 5000년 역사에 비해 극히 짧은 200년 남짓의 역사를 갖고 있을 경우 더욱 그렇다.

한반도에 뿌리깊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깊이 스며있는 불교문화들이 가톨릭 성지 확산으로 자칫 퇴색되고 있는 것은 아닐지, 또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정작 지역 곳곳에 스며있는 우리 민족의 전통과 정서가 흐려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짚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임종기도

올해 1월 1일 전국비구니회관 내 '전국비구니회 CPE센터'를 개원하고 3월부터 8명의 학생들과 첫 CPE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 학생이 임종기도의 케이스(Case)를 준비해 와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다. 임종을 진행 중이고 또 가족들은 오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임종기도'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중에 나의 경험 속 한 환자와 가족들이 떠올랐다.

S병원의 병원지도법사로 있을 당시였다. 도선사에 다닌다는 한 보살이 남편과 함께 병원법당을 찾았다. 남편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해 동네 병원의사의 추천서를 들고 S병원을 찾아 검사하고 결과를 듣고 나오는 길이라며 보살님이 말을 하던 중 눈물이 터졌다. 눈을 감고 있는 남편의 눈에서도 한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보살은 본인의 일을 정리하고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한 남편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거사는 병원에 들어오면서 급속도로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고 한 달 만에 임종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림 · 최주현

자정 무렵 남편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살님의 연락을 받고 나는 부리나케 병원으로 달려갔다. 연락을 받고 온 가족들이 임종실을 꽉 메우고, 오열하는 소리가 호스피스 병동 입구까지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우선 가족들에게 "환자분이 이생과 작별하는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가시는 길에 힘이 되어주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니 모두가 울음소리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나는 간단한 광명진언으로 환자와 가족을 안심시킨 후 환자에게 말했다.

"거사님, 한 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며 열심히 사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가족들 인사도 시키고 거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이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환자에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었다. 울음이 터지는 것도 참아가며 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정성스러웠다. 죄송하고 용서를 비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순간이었다. 마지막은 내가 부처님께서 남편을 극락왕생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발원하는 기도를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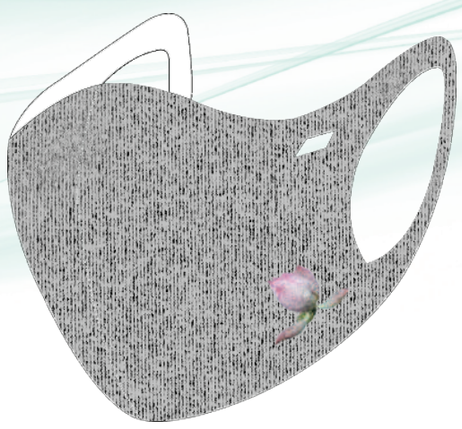
나는 가족들에게 "경전을 보면 아버님의 마지막 한 생각이 다음 생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부처님의 나라로 연결되는 한 생각을 놓치지 않도록 가족들이 아버지를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왔다.

나중에 간호사에게 들으니 환자가 임종할 때까지 가족들은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며 마지막을 함께 했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KOVI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FDA 등록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Deodorization 소취
Antibacterial 항균
Anti-Splash 비말차단
UV Protection UV차단
Fast Drying 빠른건조
Reusable 재사용가능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

힐링, 치유 그리고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마음의 여행, 2021 템플스테이

토닥토닥 힘들었지?

쓰담쓰담 수고했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 방역 관계자,
여행업계 및 문화예술 관계자 등을 위한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2021년 12월까지 전국 100여 개 사찰에서 동반 1인까지 무료로 지원합니다.

토닥토닥 코로나19 대응 의료인 및 방역 관계자 대상 최대 3박 4일 진행
쓰담쓰담 소상공인, 여행업계, 문화예술 관계자 대상 최대 1박 2일 진행
신청방법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www.templestay.com)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템플스테이 TEMPLESTAY

www.templestay.com